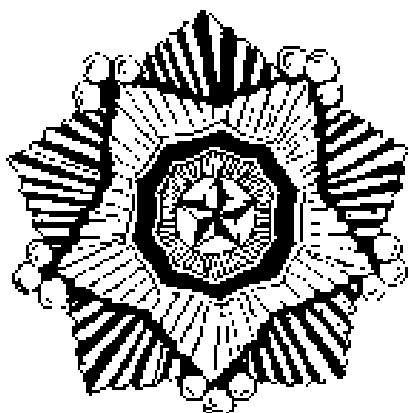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8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8호

(루계 제 658 호)

◇◇◇◇◇◇◇◇◇◇ 차 례 ◇◇◇◇◇◇◇◇◇◇

8 월은 무엇을 새겼는가	4
명언해설	5
꽃구름 피는 산천	5
영광의 호수	6
광복의 환호성(외 1 편)	7
네 운명 네놈이 잘 알아	7
한편의 동요에 비낀 위인의 숭고한 시세계	8
인류문화의 천재	10
새 명절이 오리라	10
아버이의 부름에 호응하는 7 천만의 통일대합창	11
젊어서 좋다고	13
친필비앞에서	14
선군혁명시가문학에 흐르는 미래사랑의 세계	16

우리 장군님과 정	2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면모	24
옛 분대장의 구령	25
학교의 밤	26
《동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27
옛 전장에서	35
50 년 그해 여름 (외 2 편)	36
전호속의 웃음소리	36
《무쇠 밤알》	36
나의 전우들	37
탄부의 보금자리	38
글밭	49
자기 생활의 터밭, 시의 터밭에서	50
양보 《철학》	54
유고, 빅토르	55
금강내기바람	56
해금강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66
짚신이어	67
어록비에 새겨진 글	68
어처구니	70

인기를 끄는 풍자도서	79
씨름	80

8 월은 무엇을 새겼는가

주 경

1

무조건 행복을 알리는
《천황》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남의 땅을 짓밟고도
그 땅을 치며
《야마도족》들이
기모노를 눈물로 적시었다
유골함을 가슴에 드리운
팔다리가 없는
황군의 패잔병들이
죽음의 벌떼마냥
니이가다항구에 쏟아져 내렸다
침략의 칼부림에 미쳐 나
대륙에 날리던 일장기는
도쿄의 궁성에 락엽처럼 구겨 박혀
패망의 날바다에 수장되는 일본렬도를
검은 조기마냥 묵묵히 조상할 때
물거품처럼 되어 버린
군국주의야망을 불안고
일제침략자들이 대성통곡을 터뜨린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의 **김일성** 장군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자주위업의 총대에 채워
일제를 멸망시킨
《대일본제국》의 《국치일》이었다

2

모란봉 술 푸른 언덕에도
을밀대의 이끼 덮인 성벽에도
모시두루마기를 입은 로인들
흰 웃고름 날리는 녀인들
은 평양성인이 뒤설레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목청껏 웨치는 광복의 환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끊어 번질제
나 어린 소년로동자였던
궤여진 몽당치마를 입은
나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역의 찬바람에 시들며
정치없이 떠돌아 다니던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
빼앗기고 뜯기우던 농민들이
고역에 멍들었던 로동자들이
오얏꽃처럼 시들던 아이들이

짓눌렸던 가슴가슴마다에
민족의 이 환희를
봄우뢰마냥 터친 날이어
아, **김일성** 장군님
이 땅우에 서리고 서린
망국의 검은 구름을 가시여 주고
식민지 철쇄를 끊어 버린
조국이 해방된 8월 15일은
만경대에 솟아 오른 태양의 빛발이
인민의 가슴속에 와닿아
삼천리를 밝게 비쳐 준
진정한 조선의 아침이었다

3

세월의 언덕은 넘어
이 가슴에 메아리쳐 오는
광복의 만세소리여
너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새기였느냐
주작봉마루에 영생의 모습으로
조국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날의 투사들에게 물어 보라
조선혁명박물관 긴 복도를 걸으며
피어린 항일의 20성상을
가슴에 안아 보라
전우들의 무덤과 무덤을 지나
가슴속엔 그처럼 눈물도 많으신
우리 수령님 회고록이
그 갈피갈피 번져 보라
말 그대로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이었다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이었다
아, 조국을 찾으려
만리타향에 청춘을 묻고
못다 산 그 꽃나이는
총대에 맡긴채
투사들 마지막눈동자에 담고 간것은
오늘의 푸르름이 아니던가
합금을 모아 사울수 없는게 조국이기예
총대로만 찾아야 할 조국이기예
청춘을 생명을 민족의 운명을
통채로 기울였던 총, 총!
오, 8월의 환호성이
승리한 인민에게
력사의 진리로 깨우쳐 준것은
오오, 총, 총은 조국이었다

명언해설

《미의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명언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이 아름다운것과 그렇지 못한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아름다운것과 아름답지 못한것을 가르는 기준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지향에 맞는것은 아름다운것이며 그렇지 않은것은 아름답지 못한것이며 추악한것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는것이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 기본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사상정신적품모에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니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는 참된 아름다움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숭고한 사상정신도덕적품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꽃구름 피는 산천

강옥녀

방목지에 찾아 온 염소떼의 울음소리에
나무잎에 맺힌 이슬들이
늦잠 자는 젖빛안개의 잔등을
툭-툭... 두드립니다

젖빛안개는 기지개를 켜며
빙그륵-돌아 눕습니다
그 어리광을 살살 달래며 주던 해님이
어린애마냥 안개를 듬쑥 안아 받쳐 줍니다

어머니이팔들은 팔을 떠들고
손 잡아 일으켜 줍니다
젖빛안개는 발을 살짝 오무리고
동동 매여 달립니다

산천은 젖빛안개를 깨워 보내며
우리에게 넓은 가슴 열이 줍니다
통통 살이 오른 싱싱한 초원은
아낌없이 쭉-욱 자리를 내어줍니다

말없이 맞아 준 고요한 산천에
흰 구름 같은 염소떼가 흐릅니다
마을에서 몰아 온 기쁨과 웃음이
다박다박 흰꽃처럼 피어 납니다

나에겐 생각됩니다

활등같이 늘씬한 이 회초리는
푸른 산천을 누비는 수놓이 바늘처럼
골짜마다 기슭마다 몽실몽실 오르는 염소들은
줄줄이 풀려 나는 하얀 실몽치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채양모자 땀시나게 눌러 쓰고
산천의 푸른 옷에
흰 실로 꽃구름 수 놓는 처녀입니다

언제나 꽃구름 같은 염소떼로
푸른 산의 허리를 감으렵니다
마을에 넘치는 웃음 퍼내고 또 퍼내어
초원에 한벌 쪽-깎아 놓으렵니다

그러면 빙글어 지는 내 나라의 웃음속에
산천은 풍덩- 잠길것입니다
세상에 자랑 높은 사회주의 내 나라에
우리는 산천마저도
웃는 산천을 낳아 단장할것입니다

이때문에 산천은 밤새 품어 재운 안개도
아쉬움없이 흘 떠나보내는가 봅니다
푸른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도 부러워
내 고향 산천만은
힘들게 지나는가 봅니다

영광의 호수

슈테닌꼬브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바이칼호, 바이칼호
장엄한 씨비리대자연의 호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나의 조국 로씨야친선방문의 나날
친히 열차를 타시고
너의 곁을 지나가시였어라

푸른 하늘에 비끼
수정같이 맑은 호수는
아름다운 바이칼호의 풍치
그이께 보여 드리려는
씨비리사람들의 마음의 거울이런가

끝없이 실례이는
호수의 물길소리는
김정일장군 호수가에서
잠시라도 쉬여 가시라
간절히 바라던 이 고장 사람들
심장의 목소리이런가

허나 폭양이 내려 쪼이는
무더운 여름의 그날
그이께선 쉽없이 이어 가시였어라
수만리 장정의 길을

달리는 열차 안타까이 따라 서며
푸르른 파도 처절씩 가슴을 친다
그이 타신 열차안의 무더위
서늘히 가서 줄듯
달아 오른 열차바퀴
시원히 적셔 줄듯

바이칼호를 지나
멀리 노보씨비르스크
모스크바와 썬크뜨-페쩨르부르크...

김정일장군
가시는 곳마다에서
로조친선의 뉴대 두터이 하고
인류의 앞길 환히 밝혀주실제

세계는 걱정의 환호 터졌어라
그이께 영광 드리였어라
그 시각 바이칼호 너도

김정일장군 만세환호 터쳐 올리는듯
감격의 격파 솟구치며
세차게 파도쳐 설레였어라

위대한 **김정일**장군
떠나가시는 길에
씨비리사람들의 간결한 소원 헤아리시며
차창밖으로 펼쳐 지는
아름다운 바이칼호의 일만경치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어라

아, 못 잊을 력사의 그 시각에
바이칼호여 너는 비껴 담았어라
거울같이 맑은 물위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그이의 영상을

너의 가슴에서 솟아
저 멀리 동쪽으로 뻗어 간
봇나무숲 하얀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
김정일장군 안녕히 가시라
친절히 배려하는
씨비리사람들의 다정한 손길이런가

김정일장군
씨비리땅을 지나가시였던만
푸른 바이칼호수가에 서면
그이의 영상 환히 떠올라라

오, 바이칼호! 바이칼호!
광활한 대자연의 나라
나의 조국 로씨야의 자랑인
유구한 력사의 호수여!

너 오늘은
21 세기의 태양을 맞이한
영광의 호수
21 세기의 태양아래 밝아 오는
장엄한 새 시대의 아침 노을
영원히 비껴 담은
영광의 호수여라

(필자는 로씨야사람임)

광복의 환호성 외 1 편

리동후

무성한 푸른 계절 8월이여
너는 어찌하여 불현듯
이 가슴을 못 견디게 휘저어
추억의 갈피를 뒤편지게 하느냐

아마도 그것은 이 마음에 새겨 저
못 잊을 감회가 깊어서이리
내 철 없던 그 시절
해방된 그날의 감격 그날의 환호성이
오늘도 귀전에 들려 와...

지금도 눈앞에 삼삼 이려 와라
밤새 노그라져 시름 겨우던 화전민들
푸름히 새날이 발기도전인데
-우리 세상이 왔다고
금시 물록이 터진듯 행길을 떼우며
읍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왕배적삼 앞자락을 훨훨 날리며
나도 덩달아 맨발로 따라 나서니
구호대 선창 따라 터치는 함성
쩌렁쩌렁 산발을 뒤흔드는 메아리어
-**김일성**장군 만세!

얼마나 이날의 꿈을 안고
조국땅에 비껴 오는 려명을 그려 왔던가
저 멀리 북녘하늘 우러르며
백두산에 장수별이 떴다고
그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밤 깊도록 마당가에 모기불 피워 놓고
로인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도 신기해
나도 술깃이 귀를 강구었나니
장군님의 기묘한 축지법에 길러
왜놈군대 참대같이 쓰러진 통쾌한 싸움

혈전의 길 헤쳐 온 빨찌산대오
조국진군의 발구름 높이 승리 펼치여
이 땅에 광복의 새날은 밝아
적막강산이 잠을 깬듯
격동과 환희에 싸인 마음들이
얼마나 격렬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던가

침략과 략탈의 아성으로
홍물스레 서 있던 주재소와 면사무소
거센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는 잔해를
황황-타번지는 소리 그것은
일제패망의 마지막 애절한 비명이었나니

영광의 그날이 와서
경사의 그날이 와서
괘과리 쟁- 쟁- 울려 울려
사람도 산천도 정기에 넘쳤으니
조선에 대통운이 튼 복 받은 8월이여

바로 그날에 나는 들었노라
하늘땅을 진동하는 만세소리에서
민족의 태양을 처음 맞이한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세상
해방된 조선의 새 탄생의 선언을

네 운명 네놈이 잘 알아

산중의 이른 새벽
아직은 어스름이 잠을 깨기전
키 높은 돌담장 어깨성으로 타고 넘어
은밀히 주재소를 에워싼 젊은이들
실망어린 눈빛 마음도 산란했네
-놓쳤구나, 왕곰보 악질 순사놈
어느새 감쪽같이 꼬리 사렸다
가슴의 의분 누를길 없어
푸들푸들 몽둥이를 으스러 켜
허탕친 분풀이 그 어디 하소할 길 없는데
종주먹 부르쥘고 숨 가빠 아이들 달려왔네
-저기 벼랑턱 소나무꼭대기에 곱이...
놀라와라, 마을의 젊은이들 성급히 물었네
-곱이라니? 무슨 엉뚱한 소리냐

승기가 돌친듯 우르르 달려 가니
아니다 다들가 이 산골 청빈한 농가살림
칼부림으로 진탕치던 왕곰보 순사놈
-곱이 아니라 괴물로구나
어찌하랴, 아슬한 절벽아랜 검푸른 강물
아무리 소리치며 돌벼락 안기여도
도무지 내려 올 심산이 아니었네
하기야 네 운명 네놈이 더 잘 알아
절망의 애원이 우리에게겐 통할리 없지
벼랑끝에 올라도 땅밑으로 내려도
처참한 죽음의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뿐
순간 소용도는 물속으로 침범 꼬르르...
쪽발이 왜놈의 비렬한 그 물골을
울부짖는 강물이 꿀꺽- 삼켜 버렸네

한편의 동요에 비낀 위인의 숭고한 시세계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 대하여-

김용부

강한 민족애와 조국애가 맥맥히 흐르는 시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법이다.

주체41(1952)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시어 그해 12월 설맞이모임준비에서 친히 부르신 노래 **《조국의 품》**.

부르면 부를수록 부드러운 서정속에 절절한 사랑이 넘치는 노래, 정겹고도 유순한 흐름속에 심오한 철학이 비낀 조국찬가 **《조국의 품》**.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을 안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주체의 태양 빛나는 조국의 하늘가에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고 장엄히 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금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멸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이 작품은 한편의 작은 동요이다. 그러나 담고 있는 뜻은 매우 심오하다. 말 그대로 부피 큰 소설도 대비할수 없는 심오한 주체사상적내용을 담고 있다.

명작은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의 참된 의미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심오히 밝혀 내고 있다.

조국, 이것은 시인들의 영원한 노래의 대상이었다. 정겨운 시내물소리, 새들의 지저귀, 푸른 산, 푸른 들, 정든 집...

어느 시인들을 못 잊을 고향, 사랑하는 조국을 시에 담아 노래하지 않았으랴.

그러나 시인들이 텅진 선물의 음계는 서로 달랐으며 사랑과 금지의 정서적깊이도 같지 않았다.

태줄을 묻은 땅, 나서 자란 곳이라고 하여 조국이 아니다.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고 따사롭다고 하여 정든 조국은 더욱 아니다.

조국은 인간의 참된 삶을 지켜 주고 꽃 피워 주는 땅,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지난 날 이 나라의 불우한 시인들은 빼앗긴 조국

을 두고 피 맺힌 가슴을 쥐여 뜯으며 절통하게 노래 불렀다.

남에게 빼앗겨 다시는 안아 볼수 없는 조국, 들을 빼앗겨 몸조차 빼앗긴 조국,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땅, 허공중에 산산이 흩어진 조국을 영탄의 시줄속에 담으며 몸부림쳤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지켜 주지 못하는 조국,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혜택도 줄수 없는 조국, 정녕 그것은 조국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의 참된 삶을 지켜 주고 행복을 마련해 주는 따사로운 품이어야 한다. 그 품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날 불우한 시인들은 그 품을 찾지 못했다.

허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그 품을 찾으시었다.

왜놈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의 품이라고 금지높이 노래하시었다.

이처럼 명작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무게 있는 종자를 작품에 심고 명확하게 밝혀 냄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가장 위대한 조국을 안겨 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은 조국의 의미를 아동적인 체험과 그 심리에 담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함으로써 주체아동시문학의 빛나는 고전적본보기로 되었다.

명작이 제기하고 있는 종자는 그 무게가 매우 크고 심오하며 주제는 동요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하고 폭이 넓다.

그러나 명작은 문제제기도 자연의 아름다움속에 용해시키고 종자도 추상적으로 선언한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적표상속에서 형상화하였다.

명작은 어린이들의 인식과 심리정서적특성에 맞게 조국의 의미를 생동한 자연적표상으로 쉽게 그려 주면서도 이 아이적체험을 깊이 파고 들어 뜻깊은 사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

명작에서 조국의 품은 먼저 가장 가깝고 친근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화폭으로 감수되고 있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과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개,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과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 바다위에 등실 솟는 아침해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은 동심에 끝없이 황홀한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바로 여기에 조국의 표상을 련결시킴으로써 추상에 빠지지 않고 생동한 형상적화폭속에서 조국이라는 거대한 대상이 안겨 오게 하였으며 이 자연적표상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아이적체험을 파고 들어 뜻 깊은 사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적표상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아이적체험을 파고 들어 뜻 깊은 사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

서정적주인공에게는 노을이 붉게 타는 모란봉, 무지개 곱게 비낀 대동강이 바로 정든 고향집이고 그것은 곧 조국의 품으로 련상된다.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은 곧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으로 소중히 안겨 오며 봄이 자기의 따사로움으로 진달래를 꽃피우고 종다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준것처럼 다심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복만을 안겨 준 어머니의 모습이 곧 조국의 모습으로 감명 깊게 떠오른다.

아침해 빛나고 별빛이 반짝이는 밝고 밝은 조국, 이것은 삶의 환희와 보람, 희망찬 미래와 련결되어 있다.

조국땅에 빛나는 광휘로운 해빛, 우리의 보람찬 삶에 비치는 이 빛, 그것은 저 하늘의 태양이 주는 자연의 빛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빛인것이다.

노을, 무지개, 진달래, 종달새, 아침해, 별 등 자연적표상속에서 고향, 어머니와 같은 정든 대상을 다정히 부르며 유난히 흐르던 시의 시정은 마침내 조국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을 밝혀 낸다.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순탄하고 빈틈 없는 서정구조를 이루고 있는것은 고전적명작이 이룩한 중요한 예술적성과의 하나이다.

명작은 기승전결의 자연스러운 정서적흐름을 이루고 있다.

정든 집,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서정적으로 환기되기 시작한 감정의 흐름은 《나》를 안아키워 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뜨거운 애정으로 승화되며 3절에 가서 끝없이 환희롭고 궁지높은 정서적체험속에서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흠모

의 정으로 폭발된다.

동시에 명작은 논리적순차성도 치밀하게 보장하고 있다.

명작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 곧 조국이라는 사상적결론으로 이끌어 가는데서 우리가 흔히 보는 동요에서 그림 매절의 결구(후렴)에서 단번에 시적일반화를 주지 않고 그 의미적심도, 추상적사유의 심도가 깊어 가는 순서로 점차 심화시키는 논리의 궤도를 취하였다.

이처럼 명작이 선택한 특색 있고 순차적인 논리적흐름은 가사의 진실성과 통속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고 있다.

명작은 아름다운 시어와 세련된 운률미로 동요창작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 있다.

동요는 고유한 우리 말을 잘 살리고 비유법을 능숙히 리용하였으며 다양한 운률조성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롭고 황홀한 운률미를 창조하였다.

보통 시가처럼 어느 한 시행에서 비유법을 쓴것이 아니라 명작이 통채로 조국의 품에 대한 비유이다.

참으로 명작전체가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적비유로 되어 있다.

명작은 반복, 대구법도 능숙하게 구사하여 8, 5조의 아름답고 발랄한 동요적운률을 살리었다.

이처럼 명작은 사상과 내용,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수령 형상창조문학에서 그 어느 작품과도 대비할수 없는 시대적본보기작품으로 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이 창작된지도 반세기가 흘렀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명작의 심오한 철학적의미는 더욱더 증폭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덥혀 준다.

전화의 불구름을 뚫고 태양의 노래로 은은히 울리던 정 깊은 선률은 선군의 기발이 힘차게 나뭇기는 21 세기의 하늘가에 충성의 노래되어 변함없이 울린다.

그리고 뜨겁게 절절하게 호소한다.

조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라고.

조국땅위에 오늘의 삶의 환희와 보람, 미래를 밝혀 주는 찬란한 빛, 그 빛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되라고...

인류문화의 천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90(2001)년 8월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이 나날 뽀슈깸명칭웁스 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실 때 있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실 그무렵 도서관에서는 《조선-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이름밑에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회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 일군들은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길에서 분망한 시간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자기 도서관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마음으로 1930년대에 웁스크고리끼사범대학에서 공부한 우리 나라의 이름난 혁명시인 조기천의 성적증을 찾아 내어 전시회장에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성적증앞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이곳 해설원은 위대한 장군님께 조기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마야쑹스끼》라고 말씀 드리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행한 도서관일군들을 정답게 둘러 보시며 조기천은 《조선의 뽀슈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설원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아 주시였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의 문학계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이름난 작가, 시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로씨야문학에 대하여 환히 꿰들고 계시었기때문이다.

마야쑹스끼나 뽀슈깸은 다같이 로씨야인민들이 내세우고 사랑하는 재능 있는 시인들이였다. 마야쑹스끼로 말하면 《울라지미르 일리이즈 레닌》이라는 서사시를 창작하여 쏘베트시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확립한 진보적시인으로써 쏘베트시 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하면 뽀슈깸은 로씨야에서 사실

주의적민족문학의 길을 개척한 로씨야문학의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찬양되고 있는 유명한 시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씨야문학계에서의 뽀슈깸과 마야쑹스끼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혁명시인 조기천의 특출한 공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에 조기천을 뽀슈깸과 같은 력사적인물로 보시며 그를 《조선의 뽀슈깸》이라고 하시였던것이다. 시인 조기천은 대결작품인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상에 길이 전한 조선의 혁명시인, 대문호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기천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로씨야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기천을 《조선의 뽀슈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옹호하고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도록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혁명적시인으로서 그가 세운 특출한 공로에 대한 높은 평가였다. 거기에는 또한 투철한 수령옹위정신,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다 바친 혁명전사를 현 시대뿐아니라 먼 후날에 가셔도 인민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접한 뽀슈깸명칭 웁스 크국립과학도서관의 해설원과 일군들을 비롯한 로씨야사람들은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커다란 감동을 금치 못해 하면서 **김정일** 동지이시야말로 인류문화의 천재, 도덕의리의 화신이라고 마음속으로 우러러 칭송한다.

가사

새 명절이 오리라

최문식

내 나라 3천리금수강산에
또 하나 새 명절이 생겨 나리라
온 겨레가 열싸안고 울고 웃으며
춤바다를 펼쳐 갈 통일 새 명절

부르며 찾는 소리 사무친 땅에
헤어졌던 혈육들이 만나는 명절
민족자주힘으로 장벽 허물고
분별의 아픔 가실 통일 새 명절

수령님 계시여 광복의 날이 있듯
장군님 모시여 통일의 날이 오리
강성대국 내 나라 세상 떨치며
태양민족 빛내갈 통일 새 명절

아, 통일의 새 명절
민족의 새 명절이 찾아 오리라

어버이의 부름에 호응하는 7 천만의 통일대합창

-가요 《우리는 하나》에 대하여-

리동성

노래가 울린다. 새 세기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백두에서 하나까지 아니 전체 조선민족이 사는
지구의 그 어느곳에서나 노래가 창창히 울려 퍼진
다.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줄도 하나
하나 이 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부르면 부를수록 7천만겨레의 심장을 통채로 들
어 잡고 기세찬 통일열풍으로 숨 쉬게 하는 노래
《우리는 하나》.

온 세계를 진감시킨 6.15북남공동선언과 더불어
다시한번 누리를 떨치며 통일을 알리는 장엄한 퇴
성인양 새 세기의 하늘가에 힘차게 울려 가는 시대
의 명작-노래 《우리는 하나》(황진영작사, 작곡).

사실 몇줄 안되는 한편의 짧은 가사로서 한 시대
와 한 민족의 심장을 한치의 여유나 한점의 공허도
없이 통채로 틀어 잡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일이건만 이러한
행운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그런 노래를 본다. 통일에 대한 벽찬
환희의 감정으로 삼천리강산을 뚫게 하는 가요 《우
리는 하나》를...

그렇다면 그 비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진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따라 부르노라면 우리는 어느
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태양의 친근하고
도 귀 익은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다! 분명히 태양의 웨침이다! 우주의 태양에
는 비기지 못할 위대한 선군의 밝은 빛과 열로 온
누리를 밝게 비치며 이 땅우의 온갖 그늘을 말끔히
가져 주는 우리의 태양, 그 위대한 태양이 지금 온
민족, 온 겨레를 향하여 《하나!》 하고 선창하시
는것이다.

태양의 이 부름에 이번에는 이에 호응하는 7천만
의 장엄하고도 우렁찬 대합창소리가 울려 온다, 민

족도 하나! 피줄도 하나! 이 땅도 하나! 하나! 하
나!...

옳다. 이것이다. 민족의 어버이의 부름과 이에 호
응하는 7천만겨레의 통일대합창, 어버이와 천만자
식의 선창과 화창으로 이루어 지는 독특한 서성구
조, 일찌기 다른 가요들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이 독
특한 서정구조속에 모든것이 다 들어 있는것이다.
현 시대의 통일철학과 민족의 통일 의지 그리고 만
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놀라운 견인력과 형상적
매력도 또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
상의 요소들이 뿌리 내릴수 있는 바탕이 있는 생활
의 사상적알맹이도.

그러면 가요의 이러한 독특한 형상생리는 어디서
부터 출발한것인가.

여기에는 사색이 있다. 위대한 태양과 뜻도 숨결
도 같이 하는 높은 정책적안목과 깊디깊은 사색의
바다에서 퍼올린 《하나》에 대한 철학적발견, 《하
나》이차 곧 민족통일, 민족대단결, 태양조선이라
는 이 심도 있는 발견이 곧 그 출발점으로 되고있
다고 볼수 있다.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하나》라는 말은
단순한 수자적개념이 아니다. 여기에는 거의 반세
기나마 응축되고 다져 진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으
며 꿈에서조차 찾고 부르는 미래가 있고 삶이있다.

추억의 기슭을 노 저어 가느라면 지난 시기 응답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가 하나로 되지 못한탓에 가
슴 아픈 상처인들 얼마나 많았고 긴긴 세월 흘린
눈물 또한 그 얼마였던가. 민족도 피줄도 이 땅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분명 하나였건만 외세에 의
해 둘로 갈라 져 지지리도 아픈 일이 많았다. 동시
에 의지와 지향도 하나로 다져 졌다.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살 길은 오직 통일...

하기에 노래도 많지 않았던가, 《조선은 하나
다》, 《통일돈돌라리》, 《통일무지개》... 이 노
래들은 다같이 하나를 지향하여 하나를 웨쳤다.

그러면 새 세기의 통일가요 《우리는 하나》에서
노래되는 《하나》의 의미, 통일의 어버이와 7천만
의 화창속에 보여 지는 《하나》의 의미는 과연 무
엇인가.

그 《하나》의 의미는 우한 《민족끼리》이다.
이것은 분명히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북남공동선
언에서 높이 울려 퍼진 태양의 선창이다. 보라, 지
금도 울려 오고 있지 않는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
산기념궁전에서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 혜쳐 가시는

선군령도의 길과 길들에서...

그가 누구이든, 과거에 어떠했던 신앙과 정견,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한없이 넓은 사랑의 한품에 안아 통일의 길로 손 잡아 이끌어 주시는 민족의 태양-**김정일** 동지.

아버 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그대로 이으시여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룰데 대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통일철학, 분렬과 반목의 빙설을 순간에 녹여내고 만민의 가슴에 통일의 봄을 안겨 주는 태양의 통일의지. 이 통일철학, 통일의지는 오늘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리념으로 되고 있다. 이 통일리념을 외면하는 자 살아 이 땅에 숨 쉴 곳 없고 죽어 이 땅에 묻힐 곳 없으리라.

이처럼 가사가 만사람의 심장을 뚫게 하는 위대한 통일철학을 담고 있기에 가사의 서정은 것처럼 진실하면서도 부드럽고 씩씩하면서도 환희로운 것이다. 가사에는 그 어떤 심각하고 격렬한 선언적 웅변이나 투쟁어로의 강렬하고도 직접적인 호소가 없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통일열기가 있고 전 민족을 통일으로 부르는 부드럽고도 강한 호소가 있다.

하나 언어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하나 력사도 하나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백두에서 한나까지 분단장벽 허물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차넘치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가사에서 노래되는 《하나》의 의미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하나는 단순한 기계적합침이 아니다. 그 《하나》가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미는 둘 합쳐서 더 큰 하나가 되어 세계에 그 위용을 과시할 하나의 《태양조선》이다. 우주의 태양도 하나이듯이 통일조선우에 빛날 민족의 태양도 하나이며 하여 온 민족이 힘을 합쳐 건설해야 할 더 큰 하나도 다름아닌 위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조선이다.

더 큰 하나-태양조선, 이 얼마나 우리 가슴 벅치게 울리는 것인가. 금시 찬란한 우리 태양이 창공높이 빛나는 통일조국, 이 세상 제일 가는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빛날 태양조국의 눈앞에 펼쳐 진듯싶다.

매절의 결구에서 힘차게 반복되며 크나큰 의미를 안겨 주는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라는 구절에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의지와 유훈이 깃들어 있고 수령님의 대로 우리 조국을 하나의 강성하는 태양조선으로 빛내 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철의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으며 현 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이 땅을 하나의 통일된 **김일성** 조선으로 가꿔 가려는 우리 민족의 열화같은 념원과 지향이 그대로 숨배여 있다. 통일된 강성대국, 태양조선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뿐아니라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남조선과 세계각지에서 힘차게 타번지고 있는 **《김정일열풍》**은 이에 대한 너무나도 명백한 산응변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노래에 심어 진 《하나》의 의미는 참으로 뜻이 깊고 감미롭다. 또한 이러한 《하나》의 의미에 기초하여 태양의 선창과 민족의 화창으로 이루어 지는 독특한 형상생리를 찾아 쥐고 훌륭한 가사형상을 펼친데 이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있고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형상적인 매력에 있다.

노래의 구절을 따라 부르노라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점을 감득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전 시기 가사들에서 소원으로만 바라오던 통일을 노래했다면 이 가사에서는 오늘의 시대적변천,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번지고 있는 조국통일열기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통일을 미래적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인것으로 펼쳐면서 그 요인을 심오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펼쳐 지고있다. 어제날에 소원으로만 노래하던 통일이 눈앞에 펼쳐 지고 있으며 온 민족이 이것을 폐부로 절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경이적인 사변은 어떻게 마련되었인가.

가사에서 노래되고 있는것처럼 그것은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고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와 조국통일업적에 의해 현 시기 우리 민족의 통일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으로 되는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얼마전에는 또다시 북남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남조선의 고위 경제인물들이 련이어 평양을 찾아 왔다. 드디어 마음과 마음의 문이 하나로 열려 지고 있다.

가사에서 노래된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고 《백두에서 한나까지 분단장벽 허물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차넘치》고 있다. 하나의 소원, 하나의 애국인 통일이, 《몽치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되는 통일이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누리에 찬연히 밝아오고 있다.

하나 소원은 하나 하나 애국은 하나
하나 몽치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통일의 아침이 누리에 밝아 오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꿈이 아니라 현실

로 펼쳐진 통일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며 이 통일에 바쳐진 위대한 태양의 뜨거운 열과 밝은 빛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시대와 시대정신을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대와 시대정신에 충실한 문학일수록 놀라운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시대를 초월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법이다. 의심할바 없다. 이 노래도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 지리라.

가요 《우리는 하나》는 서정흐름과 언어형상에서도 온 민족이 하나로 합쳐 부를 하나의 통일노래로서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의 시정은 그 내용에 맞게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기백 있고 환희롭다. 서로 류사하면서도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춘 매개 절의 1행과 2행은 다같이 선창과 화창의 특색 있는 형식속에 기백있고 씩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유순한 서정을 띠고 있으며 3, 4행은 극적이면서도 환희로운 장쾌한 서정을, 5행은 다시금 반복되는 선창과 화창속에 승엄하면서도 명쾌한 서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서정은 3절에 이르기까지 반복증화되면서 가사의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부각시켜보여 주고 있

다.

또한 가사에 쓰인 《우리》, 《피줄》, 《땅》, 《하나》, 《못 살》, 《뭉치면》, 《합치면》 등의 많은 표현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입에 올릴수 있는 민족적색채가 짙은 고유어들이며 《민족》, 《언어》, 《문화》, 《력사》, 《애국》 등의 어휘들은 통속적이면서도 민족적감정을 질게 드러내는 어휘들로서 가사의 사상적내용을 돋구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특히 가사의 사상적알맹이를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라는 표현은 매절마다 무려 10번씩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색채를 안고 가사의 내용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형상이 박력과 톨조도 조성하고 나아가서 가사전반의 대중성과 통속성, 민족성을 살리는데서도 크게 한몫 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통일가요 《우리는 하나》, 이 땅에 펼쳐진 통일의 환희와 더불어 이 땅에 태를 묻은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하나로 합쳐 부를 7천만의 통일대합창곡 노래 《우리는 하나》는 날이 갈수록 온 세상을 뒤흔들며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진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태양민족의 통일대합창이여! 통일을 알리는 축포로 영원히, 영원히 힘차게 울려 가라!

젊어서 좋다고

김성우

꽃잎이 날리고
눈발이 스치고
사색의 창가에 세월은 흘러도
내 마음에 깃들인 순간은 하나

아버이장군님
내곁에 오시여
컴퓨터의 건반도 손수 눌러 보시며
환히 웃어 주신 그 몇초!

큰 학자인데
젊어서 좋다고
검은 머리 정답게 바라보실 때
내 어이 말 못하고 더운것만 삼켰던가

그 순간에 내 한생이 다 흘렀다
젊은 날의 그 모든
소원도 행복도
다 안고 벗어 섰던 소중한 시간이어

이제 더는 나에게 필요 없노라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초도!
장군님께 드릴 기쁨 안고 오기전에는
한오리도 셀수 없는 나의 검은 머리여!

해빛이 웃고
별빛이 속삭이고
사색의 창가에 세월은 흘러도
내 사는 시간은 오직 그 순간

먼 후날 장군님 다시 오시여
백발이 된 내 모습
정답게 바라보시며
잠시 오늘을 추억해 주신다면

아 궁지높이 아뢰이고 싶구나
나를 위해 센 머리는 한오리도 없다고
장군님 위해 바친 내 삶의 천만시간
언제나 검은 머리 그 순간에 살았다고!

친필비앞에서

리영삼

나는 가고프다

산너머 감실이는 노을을 보아도
바래주던 어머니 손저움 같아
문득 불러 보는 어머니-
그러면 떠나온 고향의 동구길이
못 건디게 눈에 밝혀 와

다시 불러 본다
어머니-
심장속에 사랑을 고이 지닌채
손 꼬아 수십년을 하루같이
이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긴긴 세월
꿈속에서도 불러 보는 어머니
모질게 보낸 하루하루가
해 저무는 동구길에서 수심에 잠겨
하염없이 눈물 짓는
어머니머리우에 얹혀 백발이 되었으리

구세기
피빛노을속에
아득히 메아리쳐 온 통일
나는 온넛으로 너를 부른다

오해와 불신
대결의 장벽 쌓으며
말잔치처럼 입술에 침 바르며
너를 모독하는 역적의 무리
가랑잎처럼 흩날려 버리며
북남 3천리에 메아리치는
민족의 웨침-통일!

뜨락에 심은 감나무가지에서
익은 감알이 소리없이 떨어 질 때
상처로 우묵한 어머니가슴속에도
모질게 돌이 날아 떨어 진 세월
그 얼마나 가슴 찢었더냐 분렬의 세월이어

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
울고 웃으며 살아서 잡아 볼
그날이 저기 동 터오나니

어둠을 밝히며
아픔과 고통
민족분렬의 상처를 씻어 주며
동 터오는 새날의 해빛인양
태양의 글발은 누리를 비쳐 준다

《김일성

1994. 7. 7》

통 일

민족자주를 등지고
분렬의 장벽우에 까마귀처럼 올라 앉아
피대를 돈구는 역적의 그 비명이
그 어이 막는다더냐
7천만 겨레의 저 웨침을

통일은 웨치며
높뛰는 민족의 가을에
가를수 없는 혈맥을 이어 주며
막을수 없는 민족통일대행진의 길을 밝히며
태양의 손길처럼 글발은 가리킨다
통일의 넓은 길을

조선사람이면

입은 옷을 보아도
먹는 음식을 보아도
생김새며 말씨를 보아도
속궁냥까지
틀림 없는 한형제 한민족

남이 던져 주는 돈을 쓰고
남이 던져 주는 《자유》를 들고
남이 시키는 말만 하면
한피줄사람이 아니다

북과 남 단합이 우선인 때
외세를 끼고 사방 돌아 치며
제 몸값에 치장이 바쁜 자는
한겨레사람이 아니다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짊없이 사랑하고 돕고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온몸 한소리로 통일을 앞당겨야
나라 사는 길이 열린다
한강산 태양을 본다

한누리

사랑걸음 한누리
아장걸음 한누리
누리누리 한누리
다 합쳐서 한누리

이슬 물고 한누리
서리 물고 한누리
하늘길로 한누리
바다길로 한누리
산발 타고 또 한누리

하나의 리유로
하나의 아픔에 모질게 울며
피눈물 쏟은 한누리
기어이 열싸 안은 한누리

빈말로 달랠수 없어
어깨를 맞대고서
아름다운 쌍무지개로 솟아 빛날
북남강토 한누리
북남겨레 한누리

진달래인양 단풍인양
순수를 지켜
불꽃으로 타오르는
백두 한나 한누리

아, 아 해빛 밝은 세상
영원토록 번영할
내 나라 통일 누리 한누리
강성대국 한누리여!

《김일성 1994.7.7》

내 나라
허리 묶이여
반세기가 넘었다

리념으로 피를 가른다더냐
체제로 땅을 가른다더냐
물덤병 불덤병
보기 역겨운 무리도 있어

탈 쓴 얼굴을 들고
하나될 때라고 말은 하지만
주머니에 총구를 잡고 불질을 노리는
역적도 있어

열풍처럼 몰아 치는
6.15북남공동선언관철열풍을
매국으로 여윈 한가슴에 막아 보려
어리석은 땀 구리게 떨구며
분주히 돌아 치는 어리석은 자들

겨레여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일 있다더냐
넓은 창공 통일창공을 펼치는 일에
남의 이발을 지켜 주는
입술노릇을 그만 두어야 한다

피투성이 되게
씨 마르게 동족상쟁을 부추기는
외세의 검은 속심이
도처에서 지랄을 부려도
겨레의 뭉친 힘은 하늘을 찌른다

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위하여
쟁쟁 울리는 빗발을 쏟으며
태양의 눈빛인양 삼천리를 굽어 보는
관문점 천필비앞에 마음을 세우고
온 민족이 합창한다 통일만세의 함성처럼

《김일성
1994. 7.7》

선군혁명시가문학에 흐르는 미래사랑의 세계

김일수

이 세상 가장 뜨거운 불의 문학, 가장 위력한 총대의 문학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선군혁명시가문학이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과 같은 시가들이 바로 백두산총대 문학의 위력을 말해 준다.

하다면 총대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서 우리 시문학은 인간의 다정다감한 정서의 표현인 사랑과 열정, 웃음과 눈물과는 인연이 없는것인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시문학에 비껴 있는 웃음과 눈물, 그것은 눈물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위인승배, 그리움의 눈물이며 웃음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승리자의 락관의 웃음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가 누구라 해도 이 세상 가장 다감한 인간성시의 문학에 대하여 말하라면 선군시가문학을 첫 자리에 놓았을것이다.

총대와 운명을 하나로 편결시켜 나가는 우리 인민, 우리 시대를 노래하는 선군시가문학이 어찌 총대로 지켜 주고 총대로 꽃 피워 주는 오늘의 생활감정, 정서를 떠나 다른 그 무엇을 알것인가. 그리움의 피줄기로 이어진 우리의 혼연일체도 총대가 맺어 준 열화의 정이고 강성대국이 찬란한 미래가 비낀 라남이 봉화도 총대가 지펴 준 번영의 불이며 행복한 우리 생활의 희열도 총대가 꽃 피준 봄노래이다.

선군시대 서정이야말로 더없이 뜨겁고 격조 높은 시이기도 하며 더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노래이기도 하다.

그 줄기찬 흐름속에 비껴 흐르는 아이들의 세계...

우리 시가문학이 노래하는 총대와 아이들! 이 두 시적대상은 그 개개로 볼 때 너무도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총대가 강한것의 상징이라면 아이들은 연약한것의 상징.

대조라도 이렇듯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시적대상이지만 선군시대서정의 흐름속에 그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울린다.

백두산총대가 내뿜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일로 뜨겁고 구김살 없는 밝은 웃음, 눈 부신 미래를 안고 나래치는 꿈으로 채색된 아이들의 생활세계, 노래의 세계가 곱이쳐 가는 곳은 선군시대서정의 대하이다.

그렇다. 아이들의 세계를 떠나 선군의 리상, 선군의 정의, 선군의 승리를 말할수 없을만큼 형상적으

로 밀착되어 있고 선군을 떠나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할수 없으리만큼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것이 바로 우리의 선군시가문학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 우리 시문학이 노래하는 아이들의 세계는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상적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이전 시기에 주로 행복한 나날에 깃든 아이들의 기쁨이 노래되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총대에 의해 꽃 피난 조국의 미래가 노래되고 있다는것이다.

아이들의 웃음과 노래마저 말리우려는 원썩들의 광풍이 사납게 휘몰아 치는 엄혹한 정황, 그러나 총대로 더 힘 있게 지켜 지고 총대에 의해 더 아름답게 꽃 피는 조국의 미래, 여기에 그 생활정서적 바탕에 있어서나 미학적의미에 있어서 이전 시들과 구획지어 지는 고유한 형상세계가 있고 선군시가문학으로서의 면모와 특징이 있다.

총대와 아이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이러한 형상적련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전선길에 새겨진 깊은 뜻, 선군의 의미를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견지에서 새롭게 밝혀 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 선군령장의 위인상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노래할수 있는 무한한 형상적가능성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백두산장군의 선군령도의 전선길은 절세의 위인이 지닌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거룩한 력사를 노래하는 시가의 화폭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 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 저어 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가사 《장군님과 아이들》(김정곤작)중에서-

이것은 조국과 인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노래인 동시에 선군으로 꽃 피는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노래이다.

따뜻한 봄정서를 타고 흐르는 이 하나의 시적 화폭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인가. 야영소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서 노래하는 시형상! 여기서 선군의 의미가 새롭게 밝혀 지고 심원한 시대의 진리가 부각된다. 그것은 선군이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고 미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라는 의미이며 아이들의 웃음꽃은 총대우에 피어야 지지 않는다는 진리인것이다.

하여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끝 없는 전선길, 아름다운 미래로 끝없이 이어진 선군령도의 그 길에서 백두산장군이 지니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 숨엄하게 울려 나오는것이다.

선군시가문학은 바로 이 사랑의 철학, 선군의 심원한 뜻을 숨결로 새겨 안고 《포성은 저 멀리 울리어 오고 불구름 밀려》오는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두려움 모르고 사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노래로 엮어 그들의 가슴에 안겨 준다.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말아.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단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김정일** 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란다!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절대신뢰가 담긴 시적 주정, 그 절대민심의 정서가 파도쳐 가는 곳은 언제나 최전연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거니 노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가 그토록 심금을 울려 주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뜨겁게 우리 인민, 우리 아이들을 품 안아 준 선군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의 웃음을 가장 힘 있게 따스히 보살피주는 사랑이며 천만년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 주는 사랑이라는 격조 높은 웨침이 선군시가의 갈피마다 력력히 비껴 있다.

행복한 나날에 다는 몰랐던 아이들의 웃음, 그저 세사롭게만 대해 왔던 그 웃음은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우리 시문학에 새로운 느낌의 세계로 찾아 왔다. 우리 생활에 혼란것이 아이들의 웃음인것 같았지만 사실 그 웃음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가슴 저리도록 깨닫게 하여 준 시 《아이들이 뛰놀니다》(문용철)의 구절구절들...

슬픔 겪은 이 나라가
얼마나 듣고 싶던
아이들의 저 웃음소리입니까

조국과 혁명이 얼마나 가슴 조여 기다리던
이 나라 《왕》들의 저 웃음소리입니까
...

아 얼마나 답습니까!

저애들의 얼굴에 가슴에 손벽에
또다시 아이를 꽃 피워준

김정일 장군님의 그 사랑은!

수령님의 웅석받이들이 웃는 이 아침

온 조국이 더운 눈물 짓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허리 펴고 웃습니다

여기서 보여 준것처럼 《혁명중의 이보다 중한 혁명 어디에 있》으랴고 생각하리만큼 아이들의 웃음이 가지는 무게와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웃음을 잃었던 아이들로부터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에도! 이러한 강한 정서적대조속에 울려 나오는 시의 주장은 무엇인가. 스러졌던 아이가 생생히 되살아 난 아이들이 눈 내린 거리의 주인공이 되여 마음껏 뛰놀며 즐기는 화폭에 짙은 색조로 비쳐진 것은 태양의 밝고 선명한 빛이다.

아버이수령님의 령전에 목 놓아 울며 밥 먹기도 잠 자기도 잊었던 아이들의 가슴에 서리서리 영겼던 설음, 줄지에 철이 든듯 싶어 어른들마저 대하기 서먹했던 아이들의 응어리를 다 녹여 주고 말끔히 가져 준 은혜로운 태양! 바로 그 태양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태양이 꺼졌던 아이의 하늘에 다시 솟은 태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우에 피여 나는 밝은 웃음의 정서가 이 시를 일관하고 있는것이다.

선군혁명시가문학이 태동하던 첫 시기에 나온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명준섭),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우리 설날》(김일신)은 바로 창창히 열린 조국의 미래,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확신의 세찬 분출이였고 그 용암 같은 열정으로 굽이치는 힘찬 정서의 흐름이었다. 미래에 대한 락관의 절정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이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김일성**민족의 태양의 영원함을 절감한 우리 시인들이 조선의 미래는 영원무궁하리라는 가슴에 사무친 걱정을 시대의 하늘가에 터쳐 올린것이다.

아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만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안겨 살 영원한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신념이 환희와 감격의 노래를 낳았던것이다.

백두산의 총대-선군시가가 내뿜는 불길이 바로 이러한 미래 확신, 미래사랑의 불길이다.

채가루가 발목을 덮던 전후의 그날보다도 더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주의나 죽음이나

를 판가름하던 그 시기에 우리 인민의 가슴에 우리의 래일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심어 주고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심과 고무를 북 돌아 준 삶의 노래가 무엇이었던가를 구태여 묻지 말자.

《아기를 업은 엄마 넘어 질수 없듯이/사회주의 어머니는 곳곳이 걸어 가리》라는 시 《너인의 노래》(렴형미)가 이미 말해 주지 않았는가. 《추위도 배 고파도/ 따뜻한 래일을 안고 오시는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기에》 추운줄도 배 고프줄도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세상에 떨칠 강성대국을 주마/ 통일된 하나의 조국/ 천만년 번영할 미래를 주마》고 약속하신 백두산 장군님의 그 말씀이 울리는 서사시 《조국과 미래》(명준섭)가 이미 대답을 주지 않았는가.

고난의 겹치고 시련의 파도가 밀려 올수록 선군 시가에 채워진 미래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불길은 더 세찬 화력으로 선군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원썬들의 광풍을 맞받아 쳐갈겨 버리는 백두산총대바람을 안은 소년단붉은넥타이서정이 더 힘 있게 나뭇갓고 원썬들이 얼혼이 빠져 나자빠지도록 그들의 눈살을 찌르고 심장을 서늘케 하는 아이들의 웃음폭탄이 연방 날아 갔다.

그러면 선군시가문학이 그 어려운 나날에도 그칠 줄 모르는 아이들의 웃음과 노래를 선군시가의 총대에 장악할수 있는 기본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든 백두령장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신뢰감, 선군으로 안아 온 눈부신 미래에 대한 락관에 있었다.

후대들을 위하여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백두의 그날에
아이들을 품에서 놓지 못하시던
우리 수령님처럼.
사나운 광풍이 몰아 칠수록
더 뜨겁게 아이들을 안아 주시는
우리 장군님
-서사시 《세상에 부럼 없어라》(명준섭작)중에서-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영원히 흐르는 백두산장군의 줄기찬 력사의 격류를 감득한다.

이 시에서 힘 있게 울려 나온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아이들의 걱정의 웨침, 행복의 노래에는 영원한 장군복을 누리는 이 나라 력사, 백두산장군력사를 한줄기로 이어 주는 거대한 힘이 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수령님의 력사는 흐르고/ 미래에 대한 사랑

으로/ 장군님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진다는 폭넓은 철학적일반화와 하나로 잇닿아 있는것이다.

백두산장군력사가 있어 이 세상에 부럼 없고 두려움 없는 아이들의 력사가 있다!

이 시대적사상감정의 정수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르는 절대적 위인숭배이며 무궁무진한 선군위력에 대한 확신이다. 하기에 우리는 선군시대 아이들의 행복과 기쁨을 투영하는 상징이, 시대어로 된 《세상에 부럼 없어라》가 영원한 조선의 메아리라고 자부한다.

우리 시간문학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분 그 하늘의 태양은 **김정일**동지이시라고 노래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장시 《만대에 휘날려라 붉은기와 더불어》(민병준)에서 아이들을 《이민위천의 왕자》로 노래한것과 어떤 형상시련관속에서 볼수 있는가. 시의 구절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김정일동지가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후대들을 아끼고 고와하는것은
대대로 혁명하는
우리 가문의 가풍이라고
그리도 기뻐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음 떠진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그것이 명시중의 명시임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위대한 수령관, 미래관의 견지에서 보면 그이의 아이들에 대한 사상은 바로 백두산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에서 흘러 나온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화로 시형상에 구현된다.

이로부터 심화된 《이민위천의 왕자》라는 의미 깊은 시형상에 응결된것이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영원한 후대사랑에 있다는 우리 장군님의 심원한 철학세계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한평생을 집대성한 회고록에 쓰신것처럼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친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라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

그러기에 선군시가문학은 아버지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만대로 이어 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아름다운 미래로 끝없이 이어 지는 전선길위에 부각하며 불러 다함없는 노래의 다발을 엮어 간다.

선군으로 더 넓게, 더 뜨겁게 열어 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 그것은 세쌍둥이를 태운 비행기

는 하늘에 올려 보내시고 자신은 멀고 험한 전설길을 다리시는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더운 눈물로 쓰다듬는 담시 《우리 머느리가 하늘에 올랐소》(홍철진)에도 있다.

김정일 장군님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노래한 시 《이 땅을 닦거라》(박경심), 《대홍단의 아기들아》(김은숙)에도 선군의 빛발로 감싸 안아 뿌려 준 축복의 미소가 따뜻이 어려있다.

그 길에 가없이 펼쳐진
동해의 소금밭 한가운데서
장군님 한품에 안아 주신 류소금이가
미래를 향해 방긋 웃고
농기계소리 높은 대홍단벌에서
활짝 핀 감자꽃과 키دون음하며
장군님 축복 받은 홍단이가 한껏 재롱을 부리거
니

선군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선군은 아이들의 빨간 앵두볼
선군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서사시 《20세기 평마루에서》(김만영작)중에서-

선군혁명천만리와 더불어 새겨 지는 거룩한 자욱 자욱을 더듬어 우리 시인들이 목소리를 합치는 노래의 세겨 그 어디에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향기가 감돌고 그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가 안겨 온다.

이런 시들을 일관하여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우에 아이들의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스스럼없이 흘러 나온다.

그렇다. 백두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은 후대들을 위한 선군이고 민족의 미래를 위한 선군이다.

다박술초소에 찍으신 선군의 첫 자욱에서 지구를 진감시키는 거대한 선군되성이 터져 오른 그날로부터 이 땅에 굽이쳐 흐른 선군력사,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멀리 병사들속에 계시어도 가까이 더 가까이 아이들에게로 오신 이 땅의 날과 달이였고 그래서 학생소년궁전의 그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것을 총으로 말하고 싶으셨던 사연이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로 이어 졌음을 우리 다 알고 살았던가, 얼마나 헤아려 보았던가.

허나 오늘에 와서 우리 이것만은 똑바로 알고 있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던 또 하나의 굴함 없는 삶의 노래-그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두렵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기쁨이었음을!

위대한 장군님 계시기에
오늘도 웃으며 낳는 귀여운 아이들
조국이며, 소중히 받아 다오
사회주의를 믿는 이 나라 너인들의 뜨거운 확신을
-시 《시련과 너인》(렴형미작)중에서-

이루 말할수 없이 간고했던 우리 생활의 갈피갈피에 깃들여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으로 퍼덕인 삶의 강한 숨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어 고난을 맞받아 과감히 돌파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보람과 희열이 바로 이것이었다.

오늘은 비록 우리 락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강성대국에서 살아 갈 귀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과 의지도 함께 하고 감정과 정서도 함께 나누는 우리 인민은 그 사랑에서도 하나여기에 어머니조국의 품-장군님과 인민에게 시를 바치는 선군시문학이 그 미래사랑의 노래가 아닌 과연 어떤 다른 노래를 부를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시가가 엮여 나가는 한구절 한구절, 한페지 한페지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 조국의 미래에 대한 불 같은 사랑으로 꼭 차흐르고있었다.

해 저물도록 별판을 누비며 이삭을 자래우는 농장원들의 모습너머로 즐거운 식탁에 모여 앉은 아이들의 웃음이 비껴 왔고 땅속 깊은곳 지하막장에서 한치한치 탄벽을 털어 나가는 역센 사나이들의 발자욱마다에서 파스한 창너머로 나래 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왔다.

랭기 서린 잠자리에서 밤잠은 좀 설쳐어도 학교가는 아이들의 책가방을 메워 구며 오늘도 공부 잘 배우고 돌아 오라며 바래우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간곡한 당부는 여전했으며 때로 전기불이 오지 않은 밤은 있었어도 등잔불아래일방정 아이들의 숙제를 보아 주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어린 가슴들을 노래로 다독여 주는 아버지들의 일과는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과연 이것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노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 시문학이 자기의 폐지들에 새겨넣은 우리 조국의 모습, 인민의 모습이 아니면 그대 무엇이란 말인가.

미래를 락관하는 시대의 호흡, 후대들을 위해 바쳐 가는 생활의 숨결은 어느 시에서나 느껴 졌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삶의 터전, 국토를 가꿔 가는 진정을 담은 시 《고운 아이 걸음마 떨적에》(정동찬)에 높뛰는 맥박이였고 첫 아기를 품

에 안은 엄마의 애정이 소롯이 깃든 시초 《아기앞에서》(박경심)에 스민 삶의 희열이었으며 자라는 아기의 모습에서 조국의 래일을 안아 보는 시 《엄마의 속살이》(리명옥)에 감도는 싱싱한 기운이었다.

조국의 미래, 우리 미래에 대한 사랑과 확신, 열정과 환희로 충만된 정서의 줄기찬 흐름속에 하나, 둘 얹혀 지는 시세계는 또한 아이들의 꿈세계와 이어 질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의 래일을 펼치며 그 래일은 벌써 오늘에 숨 쉬며 시작되었다는 예술적확증이기도 하였다.

시 《탄전의 미래는 시작부터 좋다》(리명옥), 《두 언제중에 어느 것이 급니까》(고남철), 《사랑과 철의 도시 행복한 너인이대요》(럼형미), 《사랑과 꿈이 어울린 아이》와 《미래를 아껴》(문용철)가 바로 그것을 말하여 준다.

이 시들에서는 놀음에 정신 팔린 아이들이 보여 온다. 군사놀이 용해공놀음, 탄차놀이 언제썰기 놀음, 논사람만들기... 그러한 놀이세계도 나름대로 다양하고 그 시적흐름도 각이하지만 하나의 형상적 공통성이 있으니 그것은 밝은 래일의 꿈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껴 있다는것이다.

잠간새 시내물 척 타고 앉은 언제우에
큰 강 작은 강 다 새겨 진 지도를 펼치고
수풍, 강계, 남강, 태천... 짜랑짜랑
아버지들 세운 언제를 쏘아 가던 아이들
동해 서해 두 바다를 제것이라 우깁니다

장군님 받들어 아빠 형님 누나들
큰 강 작은 강 다 막아 언제를 세우면
자기들은 동해 서해
넓은 바다를 막는답니다
-시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급니까》중에서-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엉뚱》하기도 하다. 아버지들 세운 청춘언제와 아이들이 세운 시내가 꼬마언제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급니까》라고 시에서 물었지만 그것은 이미 물음이 아니다. 《장난세찬 미운 일곱살내기들》의 꿈이 펼쳐진 화폭이, 시에 그려진 래일의 주인공들의 모습이 이미 대답을 주었기때문이다.

미래의 과학자로 자라는 새 세기의 주인-창조자의 모습을 그린 시 《사랑과 꿈이 어울린 아이》에서도 더욱 밝아 질 조국의 래일을 후더운 가슴에 안아 볼수 있다.

흔한것이 아이들의 놀음이고 쉽사리 부서질수도 있는 연연한 아이들의 꿈이라고 해서 무심히 넘겨버리지 말라.

넓고 넓은 이 세상을 둘러 보면 제아무리 화려한

등불을 내건다 해도 초불처럼 꺼져 가는 미래, 그 미래가 없는 땅들도 있을진대 우리 시가들이 래일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그리도 소중히 쓰다듬는것이 어찌 레사롭기만 할것인가. 더더구나 아직 어려움을 채 가지지 못하고 시련의 풍파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는 이 땅에 아이들의 꿈이 무지개가 비끼는것이 어찌 무심타 할것인가.

그것은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품 안아 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운명을 맡긴 행복속에서만 싹틀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며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그 품이 있어 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활짝 펼친 소원의 나래이다.

우리는 그 꿈의 세계에서 선군으로 더 휘황해 질 내 조국의 미래, 총대바람을 안고 키운 꿈나래 펼치며 총대처럼 강한 나라를 일떠세울 **김일성** 조국의 미래를 내다본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직 총대로만 안아 올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선군시가는 아이들에게 총대사랑을 깨닫게 하는 서정도 절절히 토로한다. 시 《어린이와 묘비》(홍철진)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던 어머니조국이 이 땅에 5천년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있어 본적 없는 묘비, 신천의 백둘어린이묘비를 세우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것이 무엇인가를 불 같은 감정으로 뿔어 올린다.

큰 소리로 읽어라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희또래 동무들의 이름 같은
이 묘비의 글발을

그것은
천진하고 순진한 너희들도
승냥이 미제에겐
적이 될수 있다는 말
이앞에선 아이이거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

《승냥이앞에서 순진한 눈동자란 있을수 없다/야수들에게 먹히우지 않으려거든》 총대를 틀어 쥐라. 이 땅에 아직 풀지 못한 천추에 사무친 원한과 증오가 무엇인가를 알거든 총대를 사랑하라고 시의 구절마다 불이 되어 터쳐 진다.

이 깨우침도 결국은 사랑이었다. 무자비한 징벌의 불뢰성으로 《아메리카라는 덩지 큰 파철무지글》 21세기 한구석에 끌어다 내동댕이칠(시 《나는 <푸에블로>호를 본다》, 김승제) 래일을 두고 후대들을 그저 귀여운 애무만으로 키울수없는 어머니조국인줄 알기에 사랑중의 가장 큰 사랑, 총대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선군시가들인것이다.

하기에 이 땅이 아이들은 《어리광이나 응석보다 먼지》 총대를 알고 병사로 자란다. 우리를 미워 하는 원수들이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노래마저 시들게 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는데야!

그것은 달리는 뿔수 없는 당연한 리치이다.

전쟁과 《보복》을 떠벌이는

원수들의 불장난질에

드르릉-창유리 울리는 교실에 태연히 앉아

꼬마땅크 그림을 그리는 분계연선마을의 소년아

그렇다 영웅의 심장은 바로 그래야 한다

-시 《우리 시대 사람들》(손진금작)중에서-

선군의 총대로 높이 들어 올린 이 하늘아래 우리 아이들이 큰 심장을 지니고 자라고 있다.

사랑과 증오가 무엇인가를 교과서에서가 아니라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연한 그 손에 장수힘 키우며 총대를 틀어 잡고 사랑과 증오의 대답을 이 나라 삼천리강토에 후련히 쓰고야 말 그날을 당겨 오려 으쓱으쓱 커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되는것은 흘러 가는 세월만이 아니다. 력사의 시련을 겪으며 사연도 많은 이땅, 미래에 대한 사랑의 새 력사가 수놓아 지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은 키도 마음도 자랐거니 그에 대한 시적형상세계에도 선군시가의 위력과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

아이들의 그 세계가 바로 선군이 결실이며 또한 선군의 힘이라는것을 실증하고 있지 않는가.

백두산총대바람이 차넘치는 우리 시가문학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나래 펴는 맑은 하늘을 노래할수 있으며 아이들의 맑은 얼굴로 더 밝게 빛나는 내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가슴 펴고 당당히 노래 부를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세계로도 얼마든지 선군시대와 그 장엄한 기상과 벽찬 숨결을 선명하게 보여 줄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 지면 부모들은 웃지 못한다. 아이들의 맑은 노래가락이 울리지 않는 나라의 표정이 활기에 넘칠수 없다. 조국의 미래가 가을빛 하늘처럼 높고 푸르게 비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남의 눈치를 살피며 주접 들지 않는 배심에서 솟구치는 즐거운 웃음을 담지 못하는 시가라면 그 무슨 민족시가의 빛과 생명을 론할수가 있으랴.

그러하듯이 웃으며 강성대국의 래일을 열어 나가는 우리 시대의 진군길을 떠밀어 주는 힘, 우리 인민의 강의한 삶의 열정과 투쟁기세를 배가해 주는 힘의 원천은 위대한 선군령장이 꽃 피워 주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노래에 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

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 안고 있기에 조국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더 가까이 마주 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기에 어머니조국은 그리도 강한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의 세계에 비낀 시대적사상감정의 진수이다.

이 진수를 확고히 틀어 칠 때 그것만 가지고서도 선군시대 서정의 메아리는 얼마든지 크게 울릴수 있으며 선군시가문학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의 선군시가문학이 가지는 중요한 형상적특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명백히 말하건데 백두산장군의 총대-선군혁명시가문학의 위력과 생명력을 확고히 담보하는 광원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다.

태양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단란한 한식술인민들속에 아이들속에 영원한 주소를 정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정서, 가장 아름다운 정서를 담은 시가가 뿌리 내린 대지이며 이 세상 가장 힘 있고 가장 다정하고 부드러운 서정이 깃을 펴는 하늘이다.

우리 시가문학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한마디 표현으로 그 모든것을 노래 한다.

우리 장군님에겐

너희들이 온통 기쁨이란다

너희들이 한생의 행복이란다

-시 《봄이 웃는다》(백의선작)중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멀고 험한 전선길에서 아이들의 기쁨이 소리치는 웃음을 지켜 주시고 영원히 이어져 갈 봄노래를 안겨 주셨으니 크나큰 그 품에서 떠나온 노래는 다시 그 품으로 돌아 간다. 조국은 어려웠어도 야전복자락에 따뜻이 감싸 안아 조선의 미래를 꽃 피준 그 품으로!

장군님 가꾸시는 그 미래가

벌써 웃고 있습니다

아, 그 미래

내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시 《엄마의 속삭임》(리명옥작)중에서-

그 품에서 시작되는 노래는 퍼내고 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런듯 부르고 또 불러도 다함이 없다. 우리 조국의 미래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의 선군혁명시가문학이 보금자리를 편 영원한 노래의 고향이 바로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품이기에!

우리 장군님과 정

리혜옥

나는 이 땅의 평범한 녀성
로동의 희열속에 사는 누구나 그러하듯
남편과 자식들의 정에 묻혀 사는
단란한 한가정의 소박한 주부

행주치마 두르고
밥 짓고 빨래하던 물 젖은 손으로
나는 감히 붓을 들었어라
아무나 들수 없는 그 무거운 붓을

용서를 빌고 싶다 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손에 붓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머리태를 잘라 붓처럼 매여서라도
나는 꼭 노래하고 싶었다

이 가슴에 봄물처럼 차흐르는
숭고한 정에 대한 이야기
일터에서, 부엌에서 짹짹이 적어 본
작은 수첩을 나는 조심히 펼치노라

1

정은 쉽게 들지 않아라
정은 황금으로도 못 사는것
폭력으로는 더욱 못 얻는것
정은 꾸준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여라

지난 세기 말엽에 겪은 그 엄혹한 시련은
우리 공장에도 들이닥쳤다
이글거리던 전기로의 불길이 꺼지고
기대소리 넘치던 구내는 숨 죽은듯 한적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모여 앉아
자기들이 겪는 처절한 식량난보다도
공장의 앞날, 나라의 앞날을 더 우려했거니
장차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 낼것인가?

모두의 마음은 그이께로 쏠리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해 지신분
이 어려운 때
수령님 안 계시니 그이 얼마나 힘드시라는 생각

허나 그이는 스스로 먼저
그 준엄한 행군의 앞장에 나서시였다
그이는 우리처럼 험한 고생 아니 해도 되시련만
기꺼이 시련 겪는 인민속에 몸을 잠그시였다

아직도 잊을수 없어라
그이께서 현지도의 길에
어느 한 집에 들리시여 손수
풀죽이 들어 있는 밥가마도 열어 보셨다는 이야기

그때 어린 아이가 조막손으로 황급히
가마뚜껑을 못 열게 짜악 그러안자
기특한 그 애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선 슬머시 고개 돌려 우시였다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는 그 이야기 들으며
나는 처음 생각해 보았다
그이는 장군이시기전에 정말로
우리 사정 잘 아시는 우리와 같은 평민이시라는
생각

이렇게 느껴 지니 부르튼 입술가에 웃음이
피어나고
허기져 지친 이 가슴엔 움썽-새힘이 솟았다
마음속엔 든든한 배심
-이 어려운 행군을 장군님과 함께 한다!

그처럼 배 고파 청얼대는 어린것을 업고도
마음은 희망차게 공장정문으로 들어 섰고
온기 없는 선뜩한 바닥에서 떨면서도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랑만이 솟구쳤거니

이렇게 그이는 우리들앞에
한집안식구처럼 가까이 오시였다
초상화로만 우러르던 그이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정겹게 자리 잡았다

나의 귀전엔 들려 왔다, 또 이런 이야기가
어느 해 겨울 그이께서
한 군관학교를 찾으시였을 때
기념사진촬영장이 온통 울음바다였다는 이야기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 찍게 된
크나큰 영광으로 병사들 설레이는데
문득 흑! 하는 흐느낌소리
바로 장군님 뒤줄에 선 병사들속에서 터져
나올줄이야

어인 영문인지 알수 없어
모두가 서로 마주 보며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병사들 흐느끼면서 손으로 가리키는것은

아아, 장군님 입으신 솜옷뒤면에 보풀인 자리

얼마나 차를 타고
쉬임없이 달리셨으면
얼마나 야전차에서 낮과 밤을 보내셨으면
솜옷잔등이 그렇게 다 보풀이 일었으랴

눈비에 젖은 야전복 입으신채로 말리우시며
후방도 익숙도 없는 사선은 돌파해 가시는
그이의 천만고생이 집약된 그 솜옷이야기앞에
나도 울고 온 작업반이 눈시울 적시고...

그 눈물은 끝없이 나의 마음을 적시며
이 가슴에 가득히 그이 영상을 새겨 주었다
전설 같은 그 이야기들과 더불어 그이는
인민과 강렬한 정으로 이어 졌다

그렇다. 류레없이 간고한 그 행군길에서
인민은 그이의 심장을 보았거니
천지가 뒤집힐때도 인민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그이께 인민은 자기 정을 통채로 드렸나니

보아라, 그이께 얼마나 정들었으면
그이께서 잠시 궤도전차 타고 지나가시는데
인민들이 떨쳐 나 《장군님!-》하고
울며 만세 부르며 막 엮어 질듯이 따라 왔으랴

그정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해산을 앞둔 한 제대군인의 안해가
글쎄 녀성으로서의 부끄러움마저 잊고
그이께 귀속말로 아기이름 지어 달라고 아뢰었으랴

오, 내 나라에만 있는 이 정이어
이렇게 붉은기조선은
령도자와 인민이 강철보다 더 억센 정으로 뭉쳐
세상이 우러난 고민이 험령을 헤쳐 넘었거니

좋은 날에 맺은 정은
아침이슬같이 쉽게 사라지더라
허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낸 정은
천도불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천하를 이긴다

가장 어려운 행군을 인민과 함께 하시며
천금 같은 인민의 정을 얻으신 장군이어서
아버이를 잃어 텅 빈 인민의 가슴에
또다시 태양의 정을 채워 주신 오늘의 우리
아버이시여

2

정이 없다면
떠나가도 그리지 않으리
정의 깊이는 곧
그리움의 크기여라

바로 새 세기 첫해에 단행하신
우리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령도자와 인민의 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력사앞에 인류앞에 보여 준 일대 사변이거늘

아, 그리웠다! 떠나가신 날부터
새벽에 쌀을 안치면서도
저녁에 동자질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방송보도에 귀를 강구였거니

기대결에서 점심밥을 나누면서도
소박한 우리끼리 나눈 첫말은 그이께서 왜
안오실가
잠자리에 들었어도 뒤채기며 잠 못든 생각은
그이께서 지금 어디쯤 가계실가

조국에 계실 땐 다는 몰랐는데
떠나시니 못 견디게 그리워 지는 그이
우리때문에 고생만 하신 그이여서
이리도 눈물나게 그리운것일가

날이 갈수록 그리움은 넘쳐나
흰새처럼 훨훨 그이 계신 곳으로 나래쳐 갔거니
제발 그이가가는 길에 비가 내리지 말기를
제발 그이 잠자리 편하여 안녕히 주무시기를

간절한 이 마음 안고
아침이면 더 일찍 출근길에 올랐다
이제 그이 돌아 오시면 기뻐하시게
마음속 꽃다발을 소중히 엮어 갔다

이렇게 온 나라가 낮에 밤을 불 태우며
그이 맞이할 준비로 들끓어 번질 때
대륙을 넘어 가슴 뜨거운 소식이 날아 왔거니
장군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며 잠 못드시
다는...

조국을 떠난지 한주일도 못되는데
수령님이 그립고
조국인민들이 그립다고
깊은 한밤중에 말씀하셨다는 그이

아, 인민이 얼마나 그리우셨으면
자정이 넘도록 주무시지 못하시고
이처럼 가슴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울리는것이라

오, 세상에 없는 정이어
령도자는 인민을,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생각하고 위해 주는 정
잠깐 떨어 졌는데도 것처럼 그리워 달려 가는 정

이런 인민의 정수에 떠받들린 장군은
이런 장군의 정을 받는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세계에서 이 행성에서 가장 행복한
조선의 어버이시여! 조선인민이여!

× ×

나는 아직 한번도
그이를 뵈지 못했어라
하건만 평범한 이 가슴에도
그이는 땀수 없는 정으로 거시나니

한시도 못 살아 그이와 떨어 처신
마음은 언제나 그이와 함께 갔다

그이 천리길을 달리시면 마음은
만리길을 달려 가는 그리움의 정

이 마르지 않는 인민의 열화 같은 정의 바다우에
우리 장군님은 천세만세 굳건하시다
이 드눌지 않는 령도자의 무한대한 정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천세만세 만복을 누리리라

그렇다 우리는 정으로 승리했다
이 정만 있으면 무서울것 없는 우리
부러워 하라 세계여
조선의 영원한 필승불패의 이 보검을

상식

인공지능기술의 발전면모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의하는 기술이다.

인간의 지능에는 주로 사람의 왼쪽 뇌수의 논리적 추리기능과 오른쪽 뇌수의 추상적처리기능 그리고 전체 뇌수의 병행처리기능이 속한다.

인간의 뇌수기능을 모의한 인공지능기술은 앞으로 복잡한 정신로동에서 인류를 해방하고 과학과 예술 등 매우 창조적인 정신로동을 수행하게 될것이다.

인간의 지능과 같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기계를 연구 제작하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갈망하는 목표로 되어 왔으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공지능기술은 주체 86(1997)년에 와서 비로소 사기의 면모를 드러내보이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장기명수가 슈퍼컴퓨터와의 《대결》에서 끝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이로써 사람이 처음으로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각에 불과한것이였다.

지금은 컴퓨터가 소설까지 쓸수 있다고 한다.

이미 간단한 소설을 써낼수 있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연구개발되였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에 가서는 엑스피어보다 더 재능 있는 컴퓨터 《작가》가 출현하게 될수 있을것이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년안에 컴퓨터가 적어도 어린이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기술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져 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추리기능을 이미 실현되었으며 학습과 련상기능은 지금 많은 연구중에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인간의 오른쪽 뇌의 추상적처리기능과 전체 뇌수의 병행처리기능을 모방하는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결코 단순히 논리적사유의 모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수와 신경계통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수록 《감정은 지능의 일부분으로서 지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더욱 굳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연구분야의 다른 하나의 과제는 컴퓨터가 보다 높은 논리적추리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감정도 가지게 하는것이다. 특히 식별과 감정표현의 능력은 컴퓨터와 인간사이의 자연스러운 교체에서 매우 중요한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기술은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발전할것인가?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21세기에 출현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에 그치지 않을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지혜》에 있어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명한 학자들을 능가하게 될날이 올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계가 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 낼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늦어도 21세기 중엽에는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 서게 될것이다.

옛 본대장의 구령

정영종

(노래는 대체로 후렴을 동반한다. 그것은 모름지기 후렴이 노래에 담긴 사상의 강조나 재확인, 그 심화를 위해 자못 큰 형상적효과를 주기때문일 것이다....)

음악에 종사하지도 않는 내 머리속에 이런 동떨어진 생각이 떠오른것은 좀전 1백화점앞에서 만난 한 인민군상좌때문이었다.

그때, 퇴근빠스에서 내려 서는 내 팔굽을 누군가 슬쩍 건드렸다.

《분대장동지가 아십니까?》

돌아 보니 검실한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운, 그래서 첫 인상이 엄해 보이는 낯선 군관이 뚫어지게 마주 보고 있었다.

《?!》

《허허, 그 잔뜩 찌프리는 이마살... 틀림 없군요.》 군관은 삽시에 순진한 소년 같은 웃음을 온 얼굴에 피우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분대장동지, 제 박정국입니다.》

《그럼... 그 <잠보>?!...》

《맞습니다!》

우리는 길복판에서 부끄럼도 모르고 얼싸 안고 돌아 갔다.

이제금 돌이켜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귀한 손님으로 치부되어 매번 찾아 갈적마다 환대를 받곤 하는 친구의 아들이름을 끝내 외워내지 못해 늘 안주인을 민망케 만들던, 건망증이 심하고 덜렁하기 짝 없는 내가 거의 30전에 한해썹 데리고 있던 옛 대원을 대뜸 알아 본것이다. 그것도 약이 오른김에 한마디 내뱉은것이 전부인 별명까지 상기해 내면서!

그것은 어느 여름철 포기동훈련의 날에 있는 일이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장마비, 그속을 뚫고 어깨를 파고 드는 두대의 권선기와 전화기 등 장구류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허덕 내달리던 우리 통신병들, 새벽녘에 갑자기 내려진 포진지와 지휘소사이의 전화선가설명령, 그때 눈앞의 이 군관-어제날의 전사가 한창 풀어나가던 권선기를 떨구며 풀썩 꼬꾸라 지더니 코를 땀다 끌기 시작 했었다. 웅근 이틀째 눈 한번 붙여 보지 못한 참이었다.

《정국이, 일어 나라. 눈을 뜨란 말야. 눈을!》

안타까이 잡아 흔들었으나 전사는 무겁게 덮쳐온 눈시울을 끝내 치켜 올리지 못했다. 줄금줄금 얼굴에 떨어져 내리는 비방울조차 달콤한 잠을 부채질

하는듯 그의 입에서는 노근한 잠꼬대 같은 소리만 흘러 나왔다.

《조끔만... 조끔만 자자요, 본대장동지... 조끔만요. 그러면 내... 내...》

분초를 다투는 명령시간때문에 속이 타던 나로서야 그때 무슨 소리들 못했으랴.

《너 정 애를 먹이겠니?... 이 잠보야, 그럴바엔 뭇때때 군복을 입었어, 뭇때때 잉?!... 보기 싫다. 차라리 그 총을 이리 내고 썩 집으로 가버려!...》

총을 내라는 소리가 그 지독한 졸음을 순간에 말짱 걷어 간들 화닥닥 뛰쳐 일어 났던 그날의 전사가 지금 내앞에 서 있다. 상좌의 군사칭호를 단 위엄 있는 군관의 모습으로!

《뭇해전까지만도 분대장동지의 작품을 인민군출판물들에서 보았는데... 군복을 벗었군요.》

아쉬운듯 한 그의 말이였다. 어째선지 가슴이 뭉클해져 나는 《그렇게 됐네.》 하고 혼자소리처럼 얼버무리고 나서 서둘러 팔을 잡아 끌었다.

《가세, 우리 집이 코앞이야. 저 광장너머에.》

《그래요?!》

옛 대원의 얼굴이 환해 졌다. 그러나 시선은 어느 곁에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탑을 재빨리 슬쩍 더듬었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군요. 실컷 회포도 나누고...》 잠시 동안을 두는 사이 그는 본래의 엄한 표정으로 되돌아 갔다. 《헌데 오늘은 안되겠습니까. 부대에서 병사들이 기다려서요. 분대장동지야 잘 알지 않습니까. <잠보>가 되어서는 안되는 저를요.》

그다음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분대장동지, 오늘도 그때처럼 제게 구령을 쳐주십시오.》

더 이상 붙잡을수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때처럼 구령을 쳐야 했다. <전사 박정국 구보롯!>...

그때 나는 《전사》라는 호칭의 엄숙한 의미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가? 단지 명령시간을 어기는것이 군인으로서의 치욕이라는 타는듯 한 초조감에만 다쫓겼던것은 아니였을까?

그랬을것이다. 하지만 부언하건대 그때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오늘 전군이 높이 치켜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로 요약되는, 우리가 멘 총의 사명감에 대한 본능적인 자각

이 뜨겁게 타 끓었으리라하는것은 명백하다.

총대!... 얼마나 크나큰 의미로 울리는 말인가.

최근에 나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면서 공화국영웅 리수덕녀성의 생활을 취재하였었다. 그리고 거기에 심취되어 버렸다.

총이란 무언가 지키는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해방전부터 포수였으므로 리수덕의 손에는 총이 쥐여 져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총으로 지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생활이 없었다. 노예나 다름없는 머슴살이, 고역끝에 폐인이 된 남편, 집도 땅도 없어 끝내는 세상을 등진 산간오지에서 산짐승들과 함께 덩굴어야 했던 서러운 삶... 결국 위력 있다는 쌍대배기사냥총이 그에게는 몽둥이만한 쓸모조차 없는것으로 되었을뿐이었다.

조국해방후에야 리수덕은 자신의 복된 삶, 인간다운 존엄, 자식들의 먼 미래까지도 환희속에 내다 볼수 있는, 진정 지킬 가치가 있으며 죽어도 앓고 싶지 않는 생활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 주신 생활이었다. 어버이수령님 계시고 안녕하셔야 길이 누릴수 있는 생활이었다. 이것은 실지 채심으로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그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녀성의 몸이지만 최고사령부를 옹위하여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미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떨칠수 있는것이다. 성능에서는 해방전의것과 다를바 없는 그런 사냥총으로!... 그러니 총이란 수호의 대상이 귀중하고 위대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참된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수호의 총대를 잡고 내가 초소에 섰었고 오늘은 이 옛 대원이, 천만의 병사들이 리수덕영

웅의 그 신념, 그 자각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를 이루고 서 있다!

《그럼... 잘 가시오, 정국동무.》

《고맙습니다, 분대장동지!》

상좌는 정중히 거수경례를 하고 힘 있게 돌아섰다.

그는 가고 있다. 어제날 분대장의 구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 자신 어제는 지휘관이 되어 대원들에게 성스러운 복무의 걸음을 재촉할 구령을 내리러 가고 있다.

잠전에 그는 말했었다.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아마 래일도 모래도 그는 우리 집을 찾을 기회를 가지지 않을것이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하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총폭탄 되어 결사옹위하는 대오에 선 그의 걸음에 순간의 지체도 공백도 있어선 안되기에!

나도 걸음을 내짚었다. 여느때와는 전혀 다른, 류달리 초조하고 성급해 지는 걸음이었다. 고막속에서는 수십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를 《분대장동지》라고 뜨겁게 불러 주던 옛 대원의 목소리가 쟁쟁 울렸다. 《그때처럼 제게 구령을 쳐주십시오!》... 군복을 벗었으니 이제는 권리가 없다. 하지만 나는 구령을 칠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군사복무의 나날이 하나의 정겹고 역센 노래였다면 나는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자랑하는, 그 시절의 정신을 되 불러 오는, 오늘도 그 시절에 살라고 호소하는 《후렴》을 계속 불러야 할것이다. 창작의 붓대로 우리 군대제일주의의 긍지 높은 노래를,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드림없이 내달려 가자는 힘찬 구령을!

학교의 밤

이 구원 (로씨야)

하수홍 역

나는 사랑해- 그때 그들의 첫 속삭임
지금도 여기선 말하고 있네- 《나는 사랑해》
난로불이 활활 타번지누나
그때도 저렇게 타고 있었지...
파시스트 날짐승들 날아 들 때면
먼 옛적 부락의 군사모임인양
분노로 들끓던 학교의 밤
나는 사랑해!-선서인양 울렸거니
나는 사랑해!-강철음향인양 울렸거니
대장부의 용맹이 온몸에 넘치었네
나는 사랑해!... 가물거리는 초불밑에서

계속되고 계속되던 학교의 밤은
언제면 끝이 날지 말할수 없었네...
뿌슈킨을 읽고 단테를 읽던
여기서 총각들 병사되어 떠났거늘
영생의 오각별이 머리우에 빛났네
나는 사랑해!-오늘도 남아 있는 학교의 밤에
나는 사랑해!-엄숙하고 친근한 노래이런가
나는 사랑해!-별처럼 빛나던 그 시절이여 연약한
처녀에게 남긴 맹세여

《문학창작은 심오한 사상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세계관이 바로 서고 철학적사색이 깊으며 창작적열정과 예술적자질이 높은 작가라야 인민의 사랑속에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김정일

20세기 추억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김정일

(전호에서 계속)

4. 웃음나라의 웃음동요들

《동요할아버지》는 8.15광복의 날을 서울에서 맞이하였다. 그는 다시 붓을 들고 동요창작의 길에 나섰다.

광복직후에는 서울과 대구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아동문예예술원》의 주필사업을 하면서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을 출판하였다. 윤복진은 주체39(1950)년에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그리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 왔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의 가슴은 한 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끝없이 설렘었다.

보고 듣는 모든것이 다 시였다.

그러나 막상 붓을 잡으면 웬일인지 작품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어두운 눈물의 나라에서 해마다가 갑자기는 부신 웃음의 나라로 들어 섰기때문이었다.

그때까지 그가 쓴 동요들은 밝고 명랑한 동심세계를 노래한것이 극히 드물었다.

일제통치시기나 미국놈들이 강점한 리승만피괴통치시기에 쓴 동요들은 거의다가 비통하고 침울한 양상을 띠는것이였다. 《동요할아버지》는 그때의 자기 심정을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어둠속에서 헤매던 소경이 눈을 뜬것과 같이 어리둥절해 졌다. 나는 자기를 문학신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좋기만 하였다.》

두번째 처녀작

《여느 작가들에게는 첫번째 처녀작밖에 없겠지만 나에게는 두번째 처녀작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동요할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쓴 동요 《새 조선의 꽃봉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전화의 나날에 조선인민군 어느 한 국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군복을 입고도 그는 문학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책을 읽다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시를 접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혁명 선렬들의 뜻을 이어 나갈 꽃봉오리들이다. …

혁명의 꽃봉오리! 이 얼마나 뜻 깊은 말씀인가! 세상에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혁명가와 정치인, 이를 떨친 문호들이 남긴 말이 적지 않지만 이런 명언은 찾아 볼수없다. 그때부터 《동요할아버지》의 가슴속에는 《꽃봉오리》라는 표현이 깊이깊이 아로새겨 졌다. 외워보면 그 뜻이 그대로 시로 안겨 왔다. 이 말을 잘 쓰면 좋은 동요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주체41(195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새 교과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동요할아버지》는 교과서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되었다.

그에게 인민학교 1학년용음악교재의 첫 머리에 종을 동요를 쓰라는 영예로운 과업이 맡겨 졌다.

어떤 동요를 쓸것인가. 그는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꽃봉오리에 대한 노래를 쓰기로 하였다.

《동요할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썼다.

김일성원수님

넓으신 품안에
자라나는 우리들은
새 조선의 꽃봉오리
우리모두 그 품안에
씩씩하게 자라지요

김일성원수님

따사론 품안에
방실 웃는 우리들은
새 조선의 꽃봉오리
우리모두 그 품안에
즐거웁게 배우지요

《동요할아버지》는 지금 와서 이 동요를 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좀 더 아름답게 노래했더라면 좋았을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곤 한다고 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서 처음으로

로 쓴 동요이기때문에 각별히 사랑한다고 은근히 자랑하곤 하였다.

학습을 다하고서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이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었다. 어디 가나 학교가 있었고 랑랑한 글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 왔다. 책보를 메고 학교길을 오고 가는 학생들 보고 너희들의 첫째 가는 혁명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마다 《동요할아버지》는 학습을 주제로 한 동요를 쓰고 싶은 충동을 받곤 하였다.

주체41(1952)년 어느 날, 그는 평양교외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집에는 딸형제가 있었는데 맏딸은 인민학교1학년생이고 둘째딸은 유치원생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회포를 나누는데 들창밖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 왔다.

《언니야, 나하구 놀자.》

《안돼. 숙제를 아직 못다 했어. 너 혼자 놀러구나.》

창밖을 내다보니 언니는 옷방에서 공부를 하고 동생은 혼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학습주제의 동요세계가 떠올랐다.

...동생은 혼자 놀기 심심해서 자꾸 조를것이다, 그때마다 언니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것이다, 그의 대답을 통해 학습을 첫 자리에 놓는 우리 어린이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여 줄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밋게 그려서는 안된다, 둘 다 곱게 그리자, 아름다운 화폭속에 아름다운 정서가 흘러 넘치도록 ...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것이 있었다.

잘못하면 사실라벌에 떨어 질수 있고 뽕드름히 질수 있었다. 작은 동요에 인물을 들쭉이나 등장시키고 대화까지 주고 받게 한다는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동요할아버지》는 주로 짧은 서정동요 들을 써왔다. 틀에 박히다싶이 된 개성을 대담하게 깨뜨려 버려야 했다. 아무래도 담시에 가까운 동요로 쓸수밖에 없었다.

반복의 수법으로 주고 받는 말을 재미나게 엮으면 그것대로 특색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요할아버지》는 친구네 집 토방에 앉아서 동요를 쓰기 시작하였다.

첫런부터 이야기형식으로 들어 갔다.

봄바람 솔-솔
불어 오는 어느 날
꽃놀이 가자고

순이는 조르지요
언니 언니 그만큼 공부하고
나하구 둘이 꽃놀이 가자요
그래그래 가자꾸나
오늘 배운 우리 말을
다시 한번 읽고서 놀자꾸나

순이는 할수없이 혼자서 꽃을 꺾으며 논다.

그러나 재미가 없다. 꽃이 꺾긴 했지만 동무가 없으니 쓸쓸해 진다. 꽃보나 더 아름다운것이 동무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조른다.

개나리꽃 꺾어다
꽃동산을 꾸며 놓고
혼자서는 재미 없어
순이는 조르지요
언니 언니 그만큼 공부하고
산에 들에 꽃놀이 가자요
오냐오냐 가자꾸나
한참 있다 가자꾸나
오늘 배운 산수문제
또 한번 풀고서 가자꾸나

(자, 이제 끝내야 한다. 지루해 지기전에...) 하고 생각하면서 《동요할아버지》는 순이가 다시 한번 더 조르는것으로 결구를 맺었다.

울긋불긋 꽃동산
곱게곱게 꾸며 놓고
혼자서는 재미 없어
언니 보고 조르지요
정말정말 그만큼 공부하고
나하구 둘이 꽃놀이 가자요
오냐오냐 가자꾸나
우리 둘이 가자꾸나
학습을 다하고서
산에 들에 꽃놀이 가자꾸나

《동요할아버지》는 이 동요의 운률을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가깝게 썼다고 말했다.

고정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써보자는데도 있었지만 시의 사상정서적흐름이 그것을 요구하였기때문이었다. 동요는 인차 작곡되어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 들어 갔다.

그해 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 총화모임에서는 이 동요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평론가들과 작가들은 아이들의 학습생활을 생동하게 노래하였을뿐아니라 동요문학의 새 양상을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한 특색 있는 성과작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소년애국가를 쓰는 심정으로

주체39(1950)년 가을 《동요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머나먼 길을 걸어 보았다. 간고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다.

그는 서울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적기들은 북으로 가는 대렬을 막아 보려고 악착스럽게 달려 들어 폭탄과 소이탄을 마구 퍼부었다. 38선을 넘어 서자 풍요한 가을풍경이 가슴 가득 안겨 왔다. 넓고넓은 들에는 옅은 물결 치고 높고낮은 산에는 푸른 숲이 설레이고 있었다. 비록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여 있긴 했지만 조국산천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해방후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몰라 보게 달라진 마을과 도시를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천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자 립진강하류에 있는 고랑포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다시 평양까지 걸었으니 전화의 나날에 그가 걸은 길은 2천리도 훨씬 넘는 머나먼 길이였다. 《동요할아버지》는 멀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 조국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그의 가슴속에는 조국찬가를 쓸수 있는 씨앗이 뿌리 내렸다.

주체42(1953)년 전승의 광장에 승리의 축포가 오르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다. 《동요할아버지》는 방송에서 울려 나오는 《애국가》의 은은한 선율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이 부를 조국찬가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소년애국가도 있어야 한다.)

그는 책상앞에 마주 앉아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쓰기 시작하였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무르익혀 온 시있기때문에 막힘 없이 단숨에 쓸수 있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옅은 물결치는
원수님 세워 주신
참 좋은 나라

×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원수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동요할아버지》는 아침 일찌기 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로 갔다. 마침 분과에는 리원우와 강효순이 있었다. 《동요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보여 주었다.

리원우는 동요를 읽어 보고 나서 환성을 올렸다.

《야- 참 좋구만.》 하고 말머리를 메고 나서 《맙시나게 쓴 멋쟁이 동요입니다. 완전히 끝난 문장이 하나 없는데도 은률이 잘 흐르고 오히려 깊은 여운을 주고 있어 좋습니다. <금은보화>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것 같긴 하지만 그대로 둥시다. 작곡가들이 보면 저마다 곡을 달고 싶어할겁니다. 역시 운복진동무는 동요의 명수입니다. 나 같은건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막 시샘이 날 정도입니다.》 하고 극구 찬양하였다.

강효순은 자기는 산문작가여서 동요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나라의 우월성을 금치높이 노래하고 있는것이 참 좋다고말했다.

《동요할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이날만은 자기 자랑을 숨기지 않고 말하였다.

《나는 이 동요를 소년애국가로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51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에야 끝을 맺었습니다.》

흘러 가는 시내물을 따라서

동요 《시내물》은 《동요할아버지》가 쓴 여러 편의 성과작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명작이다.

시내물이 졸졸
노래하며 흘러 가네
푸른 하늘아래로
노래하며 흘러 가네

한강이를 돌아 드니
불 탄 산에 새봄 왔네
잔디밭은 다시 돌고
진달래가 방긋 웃네

또 한강이 돌아 드니
새 목장이 생겨 났네
어린 양떼 뛰어 나와
반겨하며 물 마시네

또 한강이 돌아 드니
물방아는 간곳 없고
물방아 돌던 곳에
전기방아 새로 도네

이렇게 시작된 동요는 계속하여 흘러 가는 시내

물을 따라 가며 새로 지은 학교와 넓은 들을 갈아엎는 트랙토르, 우뚝우뚝 솟아 나는 새 공장들과 일떠서는 우리 평양은 차례차례로 펼쳐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동요할아버지》는 자기 자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이 동요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는 잡지 《청년문학》 창작수기 《동요 <시내물>을 쓰기까지》를 발표하고 그 밖의 여러가지 형태로 창작경험글을 써서 청소년들을 위한 출판물들에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창작경위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적으려고 한다.

그날은 창작실에서 《동요할아버지》의 동요동시집 《시내물》에 들어 갈 원고들을 룬독하고 합평회를 진행한 날이였다.

우리는 《동요할아버지》와 이런 일문일답을 주고 받았다.

물음: 선생님은 동요 《시내물》의 시상을 어떻게 잡게 되었습니까?

대답: 전쟁이 한창 벌어 지던 주체40(1951)년 어느 여름날이였네. 그날 나는 모란봉지하극장에서 기록영화를 보았는데 일화에 줄줄 흘러 가는 시내물이 나오지 않겠나.

얼음장을 뚫고 나온 시내물은 버들강아지가 한들 거리는 산골짜기를 감돌아 자꾸만 흘러 가더라말일세. 그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시내물에 의탁하여 새봄을 노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 났네.

새봄, 그것은 승리한 조국의 앞날이였네. 그런데 막상 쓰자니 한줄도 쓸수 없더구만.

승리의 새봄이 이 땅에 펼쳐 지게 될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게 되고... 그래서 시상을 오래동안 가슴속에 묻어 들수밖에 있었지.

전후복구건설이 한창 벌어 지고 있던 주체43(1954)년 봄에야 쓸수 있었네.

물음: 동요 《시내물》은 내용도 좋지만 표현형식도 재미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형상을 찾아 낼수 있었습니까?

대답: 나는 동요의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간만 고심하지 않았네. 동요에 담아야 할 생활화풍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한줄로 꼭 관통시킬수 있을가, 어떤 내용은 담고 어떤 내용은 담지 말아야 하는가...

아무리 궁리해 보아야 신통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더라 말일세. 처음에는 한편으로 쪽 련결시켜 써보았네. 재미가 없더구만. 사실만 련거하게 되고 흥이 나지 않았지. 그러다가 우리 나라 옛 시인들이 조국이 아름다운 자연을 열두쪽 병풍에 병풍에 담아 노래한 시들을 생각하게 되였네. 민족적인 색채가 진하게 풍겨 오는 그 시들은 동요의 알맞는 표현형식을 찾아 낼수 있게 도와 주었네.

열두쪽 병풍을 펼치듯이 시내물을 따라 가며 굽이마다 안겨 오는 전형적인 생활화풍들을 어제와 오늘을 대비하여 노래하니 전변되는 조국의 도 잘 안겨 오고 흥취가 나더구만.

그리고 한편으로 썼던것을 두련으로 나누고 매련의 앞머리에 전련을 놓았더니 좀 길어 지긴 하였지만 지루하게 느껴 지지 않고 물결치듯 흐르더라 말일세.

물음: 동요를 추고할 때 제일 애 먹은것은 무엇이였습니까?

대답: 알맞는 표현을 고르는것이였지. 초고에는 《전쟁》, 《전후》, 《복구건설》 등과 같은 단어들 들어 있었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더구만.

이렇게 하면 어렵고 딱딱한 표현들을 쓰지 않고도 시내를 나타낼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던 끝에 지금과 같이 형상적으로 풀어 쓰게 되였지.

《불탄산》이라는 표현과 같이 발음하기 힘든 단어도 제 자리에 들어 가니 넘어 가더군.

제일 애 먹은것은 《또》라는 접속이였네.

나는 원래부터 《또》, 《또한》, 《그리고》, 《그러면》과 같은 접속어는 시어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네. 그런데 이 동요에서는 도저히 피할수가 없더구만. 그래서 할수없이 《또》를 몇번이나 쓸수 밖에 없었네. 이 동요에 곡을 붙인 작곡가와 마주앉아 밀착작업을 할 때 《또》라는 표현때문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대로 넘어가더라 말일세. 그 다음부터는 시어가 되지 못할 단어란 따로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였네.

문제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이였네.

《동요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동요 《시내물》의 후련을 쓰겠다고 하였다.

그후 그는 오늘의 《시내물》이라고 할수 있는 기행동요 《대동강을 따라서》를 창작하여 잡지 《아동문학》에 발표하였다.

《저것 보오, 하늘이 참 맑지》

《동요할아버지》는 주체44(1955)년 9월 1일에 평양을 떠나 현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당내에 기여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어리석게도 당정책을 시비하며 음으로 양으로 쏘라닥거리고 있었던 때였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어느 한 종파분자는 윤복진과 같은 오랜 지식인들을 당과 리탈시키려고 여러가지로 모해하고 박해하였다. 그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남조선에서 무사상적인 작품을 쓰던 아동문학작가가 어떻게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있겠느냐고 지상을 통하여 인신공격까지 하였으며 나중에는 로동현장에 내려 보내여 단련시켜야 한다고 들이 댔다. 현지에 나가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직사업도 하여 주지 않았다.

윤복진은 할수없이 자기 발로 평안남도인민위원

회 로동과에 찾아 갔다.

그와 로동과 부원과는 이런 말이 오고 갔다.

《그래 어데로 보내주면 좋겠소?》

《여보시오. 난 대동강을 떠나면 살수 없는 사람
이요. 어디든지 좋으니 대동강기슭에 보내주시
오.》

《그래요. 그럼 지명에 대동강이름이 붙어 있는
곳으로 가는것이 어떻소. 대동군 말이요.》

《중소.》

이리하여 그는 대동군 망일리 추자도로 가게 되
었다. 집이 없어 남의 집 결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요할아버지》의 부인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
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아궁에 불을 지피니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보
다 사방으로 난 쥐구멍으로 새는 내굴이 더 많더군
요. 그런데다 뭇나무도 없었지요. 밭에 나가 강냉이
그루터기를 털어다가 겨우 밥을 짓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계를 지고 밭으로 나간
남편이 웬일인지 저녁 늦게 까지 돌아 오지 않았다.
부인은 기다리다 못해 마주 나갔다.

그런데 그가 둔덕길옆에 강냉이그루를 엮은 지계
를 진채 벌렁 누워있는것이였다.

혹시 다치지 않았나 해서 급히 달려가 보니 뜻밖
에도 하늘을 올려다 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윤
복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것 좀 보오. 하늘이 참 맑지 저건 보통
하늘이 아니요. 만경대의 하늘이란 말이요. 이제 두
고 보오. 저 하늘이 우리 집에도 큰 복을 내려 줄게
요.》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전원회가 열리었는데 여기서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죄행이 전면
적으로 폭로분쇄되었다.

하루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꾼이 찾아 와 윤복
진의 현지 생활을 료해하고 돌아 갔다.

며칠후 《동요할아버지》네는 경치 좋은 순화강
가에 솟아 있는 두칸짜리 번듯한 기와집으로 이사
를 갔다. 온 마을이 모여 와 새집들이를 축하해 주
었다. 그날부터 《동요할아버지》는 만경대협동농
장 현지파견작가, 민주선전실 실장으로, 군당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퍼고 동요창작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개구리는 땅속에서》, 《푸른
꿀벌로스》, 《검둥아 멍멍》, 《뜨락뜨락가 들어 온
다》, 《봄아가씨는요》를 비롯한 사회주의농촌현
실을 반영한 주옥 같은 동요들을 수십여편 창작발
표하였다.

제일 큰 행운

윤복진은 8년동안 만경대 협동농장 현지파견작
가로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힘 있게 벌렸다.

이 기간에 당에서는 그의 창작생활에 아무런 불
편이 없도록 따듯이 보살펴 주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 단기강습반에 보내여 정치실
무적자질도 높이도록 하여주었다.

《동요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자주 회상하곤 하
였다. 그때 있었던 일을 두고 화가 복으로 된것이였
다고 하면서 《행운중에서도 제일 큰 행운》을 받
아 안은 가장 행복 시절이었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가 받아 안은 제일 큰 행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깃들여 있는 위대
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사적내용들을 누구보다 먼저 들을수 있게 된
행운이었다.

윤복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어머님과 한집안
식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야
할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수집정리하고 고증하는
일에 달라 붙었다. 그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
다. 그때로 말하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조차
모르던 때였다.

그가 이 성스런 사업을 스스로 맡아서 진행할수
있었던것은 그만큼 수령관이 투철하였기때문이었다.
《동요할아버지》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
절을 노래한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묶
어 내기 위한 고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었다. 이 동
요동시집에는 《만경대는 우리 고향》, 《무지개》,
《군사바위》, 《깊진》을 비롯하여 총 18편의 동요
동시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세상에 잘 알
려 지지 않은 사적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동요동시
집은 어린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윤복진의 생각은 깊어 갔다.

어떻게 하면 만경대의 이야기를 어린 독자들이
다 잘 알게 할수 있을까. 동요동시만 써서는 다 알
려 줄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문으로 쓰기로 하였다.

그는 한줄두줄 심혈을 기울여 장편실화 《**김일성**
원수 어린 시절》을 써서 출판에 회부하였다. 《동
요할아버지》가 만경대협동농장 파견작가로 있을
때 현실체험을 얼마나 실속 있게 하였는가에 대해
오늘도 로작가들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로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작가학원에 다닐 때였소. 한번은 여러 작
가들과 같이 만경대에 간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고향
집 토방에 앉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어머님과
상봉모임을 가지게 되었소. 삼촌어머님이 말주변이
없는 자기보다 작가선생님이 말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윤복진동무보고 마라라고 하더구만. 그러자
윤선생이 고향집사적물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
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나 설명해 주었소.
그때 우리는 같은 작가로서 윤선생이 정말 현실체
험을 실속 있게 하고 있구나 하고 감탄했고 부러움
을 금할수 없었소.》

《동요할아버지》는 이 시절에 《문학신문》을

비슷한 여러 출판물들에 만경대를 주제로 한 단상과 수필도 많이 써서 발표하였다.

다시 만난 옛 동무

《동요할아버지》가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세상에 발표한지 얼마후에 있는 이이었다.

하루는 뜻밖에도 바다건너에 있는 일본땅에서 한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나에게 온 편지가 옳긴 옳은가?)

그는 걸봉을 다시 살펴 보았다.

자기에게 온 편지가 분명하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들여다 보며 그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가 누굴가?)

편지를 읽고 난 그의 가슴은 후두둑 뛴뛰었다.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에 쓰여 있는 작가 이름을 보고 대구에서 살던 옛 동무 윤복진이 아닌가 해서 펜을 들었는데 맞으면 인차 회답을 보내 달라는 사연이 쓰여 저 있었다.

(아니, 그럼 중학시절에 나와 한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그 옛 동무가 한덕수의장이란 말인가!)

윤복진은 그날 밤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품에 꼭 껴안고 오래동안 잠 못 들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인 아름다운 만경대의 노래야, 너는 나의 학창시절 옛 동무를 만나 볼수 있는 꽃다리까지 놓아 주는구나. 고맙다!)

그가 쓴 회답편지는 인차 한덕수의장앞으로 날아갔다. 그후 얼마 안 있어 뜻 깊은 상봉의 날이 왔다.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이 그를 찾아 왔다. 그들은 어느 한 초대소에서 만났다.

그들은 얼마 앉고 감개무량하여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였다. 이윽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 축배잔을 나누며 아득히 흘러 가버린 어린 시절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한책상에 나란히 앉아 시를 짓던 일이며 대구에 두고 온 윤복진의 안해와 두 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헤어질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얼마 안고 나서 윤복진이 퍼그나 멀리 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등뒤에서 급히 찾는 소리가 들려 왔다.

《복진이, 복진이, 이리 오라구.》

돌아 보니 한덕수의장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웬일인가 해서 다시 들어 가니 한덕수의장이 깜박 잊을번 하였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키 대보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들은 돌아 서서 등을 맞대고 키대보기를 하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약속이나 한듯이 어린 시절에 부르던 동요가 흘러 나왔다.

누가 키가 더 큰가

어디 한번 대보자
올라 서면 안된다
발을 들면 안된다
똑 같구나 똑 같애
래일 다시 대보자

한덕수의장은 키 대보기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자기가 좀 더 크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두 어깨를 으쓱거렸다. 윤복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사이에는 자주 편지가 오고 갔다. 윤복진은 새로 출판한 자기의 동요동시집 《시내물》을 보내고 한덕수의장은 자기가 쓴 가사와 시들을 보내며 의견을 달라고 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데 왜 윤복진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였는가.

그 이유를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자네야 말로 고지식한 인간이여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사실 그대로 말해 줄 사람이기 때문일세.》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동요 할아버지》는 주체 53(1964)년부터 주체 68(1979)년까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현인작가로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이 기간은 우리 아동문학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펼쳐진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된 뜻 깊은 나날이었다.

《동요 할아버지》는 불 타는 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린 시절을 노래한 동요 《해도 해도 뜨기전에》와 《백양나무》를 비롯한 여러편의 동요동시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노래한 동요 《아름다운 삼지연》과 《사랑의 보급자리》를 비롯한 여러편의 동요동시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송가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수십여편의 동요동시들을 창작하여 우리 아동시인들이 해마다 묶어 온 동요동시집 《온 나라 꽃봉오리 영랑 드려요》에 꼭꼭 넣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요 《우리들은 당의 품에 피는 꽃송이》, 《백두산고향집》 등을 들수 있다.

《동요할아버지》는 년로한 몸매 건강까지 좋지 못하여 주체 69(1980)년부터 자택에서 창작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집에 들어 가면 한두해사이에 풀썩한다고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그의 집에 가면 땀샘이 책상앞에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동요창작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쓴 동요들은 아이가 찰찰 넘치고 티없이 깨끗하였다. 어쩌나 천진란만한 동심세계를 재미나게

그렸는지 이게 분명히 칠십고령의 할아버지가 쓴 것이 옳긴 옳은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였다. 할아버지가 쓴 것이 옳긴 옳은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였다.

《선생님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이로구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웃으면서 《응, 그건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야. 동심이 없으면 동요를 못 쓰게 되고 동요를 못 쓰게 되면 난 죽어야 하거든.》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 무렵에 그가 쓴 대표작으로는 《저 하늘이 높고 멀어도》, 《우리 아기 눈동자》, 《꽃구두》, 《우리는 행복해요》 등을 비롯하여 수십여편이 훨씬 넘는다. 얼마전에 나는 그의 집에 가서 《동요할 아버지》가 가보로 남겨 두고 간 다섯권의 두툼한 학습장을 펼쳐 보았다. 그가 일생동안 쓴 대표작들이 시기별로 차례차례 정리되어 있었다.

나의 눈길은 표지에 《만경대의 노래》(1956~1968)라고 쓴 학습장 마지막페이지에서 오래도록 떨어 질줄 몰랐다. 거기에는 맺음시 《그리시던 고향집에서》라는 제목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스무해만에 만경대고향집에 돌아 오시여 명석자리를 펴고 주무시던 밤을 노래한 미완성 동요가 써여 저 있었다. 동요의 맨 아래에 《나는 만경대의 노래를...》이라고 쓴 끝 맺지 못한 글 한줄이 적혀 있었다. 어느 때 썼는지는 날자가 적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뽕뽕뽕한 글씨로 보아 떨어는 손으로 겨우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뜨거움을 삼키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 《동요할 아버지》는 마지막순간에도 붓을 놓지 않았구나. 채 쓰지 못한 문장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는 만경대의 노래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일 것이다!)

5. 그의 삶은 영원하다

(아무리 《작고도 큰 문학》이라고 하여도 동요는 역시 모래알과 같다. 어떻게 두터운 장중권소설이나 서사시와 비길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일부 사람들과 성인 작가들속에서는 은근히 동요문학을 차요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 영향을 받아 몇몇 젊은 아동시인들은 한평생 동요나 써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궁지감을 가지지 못하고 성인시문학을 넘보거나 지어는 방향 전환까지 하였다.

그때마다 《동요할 아버지》는 《요란한 명성을 꿈꾸는 아동시인은 좋은 동요를 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원이라고 생각하고 동요를 써야 합니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동요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긴 하였지만 동요문학에 대한 그릇된 경향을 논박하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심장을 크게 공감시키

지는 못했다. 그러했던 그가 어떻게 되어 모든 작가들이 부러워 쳐다보는 문학의 높은 단상에 자기의 동요를 안고 당당히 오를 수 있었는데, 누가 그의 창작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세상만복을 다 안겨 주었는가. 누가 그를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었는가.

그분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그가 쓴 동요 《시내물》을 보시고 빨리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눈 부신 모습을 시내물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흥미 있게 보여 준 생활적인 노래라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주체67(1978)년 4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아동시인들은 만경대를 노래한 동요묵음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가르치심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다그치고 있었다.

윤복진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동요 《학습터에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어찌나 창작에 열중하였던지 어느새 날이 밝았는지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윤복진의 동요 《학습터에서》가 들어 있는 동요묵음을 친히 보아 주시고 분에 넘치게도 잘 썼다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다망하신속에서도 그가 쓴 동요 《청년근위대의 노래》, 《저 하늘이 높고 멀어도》를 비롯한 수십편의 작품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몸소 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늙음을 모르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동요들을 려이 어 써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국기훈장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 주시였다.

어느덧 그는 일흔고개에 올라 서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분인과 아들, 며느리가 모여 앉아 일흔돌 생일상을 차릴 의논을 하였다.

생각 같아서는 크게 차렸으면 하였다.

사실을 알게 된 윤복진은 괜히 공연한 걱정들을 한다고 하면서 식구들에게 일흔돌 생일에 대한 말을 밖에 나가서는 일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소문없이 간소한 음식상을 차려 놓고 집안식구끼리 지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흔돌 생일상을 내려 보내주시고 그의 가슴에 또다시 국기훈장 1급과 사랑어린 보청기까지 안겨 주실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의 집에서는 큰 경사가 났다.

아래웃방이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붐비였다.

로작가들은 어서 새옷을 입고 사랑의 생일상을 차려져 있는 아래방으로 내려 가자고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러자 그는 급히 옷장 문을 열고 주련이 걸려 있는 열두개의 넥타이들 가운데서 빨간 넥타이를 골라 댔다.

한 로작가가 물었다.

《아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빨간 넥타이는 왜 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젠 한덕수의장이 준 넥타인데 그도 내가 젊어진 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차려 주신 일흔셋 생일상을 받은걸 보면 좋아 할게야. 다음번에 만나면 기념사진을 보여 주며 자랑하려고 그래.》

이것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천진관만한 동심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요할아버지》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다. 윤복진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감사의 큰 절을 올리고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듯 분에 넘치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 주십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만일 저 남녘땅에 있었다면 이미 무주고혼이 되었을것입니다... 이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동요창작의 붓을 더 힘껏 틀어 쥐겠습니다.》

이어 머느리가 술을 못고 아들이 그 잔을 아버지에게 드리었다.

이제는 다 자라서 어엿한 일군이 된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윤복진은 《오냐, 고맙다...》하고 말라고 나서 눈굽을 적시는것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떻게 잊을수 있단 말인가. 남녘땅에 두고 온 안해 로연양과 두 딸자식을...

그렇게도 한생을 동요창작에 바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 어린이들이 다 아는 그가 분렬의 력사와 함께 것처럼 불행한 안고 가슴의 한쪽구석이 그늘져 있는줄은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것이다.

며칠후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보청기를 끼고 창작실로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노상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책상앞에만 앉아 있을수 없이 그는 대동강가로 나갔다. 련광정을 안고 도는 유보도를 거닐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잔물결 소리도 꽃잎사이로 날아 도는 꿀벌들의 나지막한 봉봉소리도 크게 들렸다. 한편 그 시각에 창작실에서는 한 녀류아동시인이 책상앞에 마주 앉아 동시 《사랑의 보청기》를 쓰고 있었다.

《쉬- 쉬-, 이젠 이젠 우리 할아버지 잘 들으신다》라는 인상적인 구절로 엮여진 동시에는 사랑의 보청기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아이적으로 재미나게 노래되어 있었다. 녀류아동시인은 《동요할아버지》가 들어 오자 자기의 동시를 소리높이 읊었다.

그러지 《동요할아버지》는 《아이구, 귀청이 떨어지겠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읊노.》 하고 웃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좋은 동시를 써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윤복진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었다.

그후에는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상인 《김일성상》을 수여해 주시고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것을 료해하시고는 즉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 주시였다.

그날 밤 그의 집 창가에서는 밤 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윤복진은 책상우에 원고지를 정히 펴놓고 한자두자 정성을 담아 수기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큰 절을 드리며》를 썼다.

그가 쓴 수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의 참된 삶의 첫 걸음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비로소 시작되였다.

...

일제식민지학정에서 피멍이 들고 남반부에서 미래의 악독한 구두발에 응혈졌던 나의 가슴에 흘러든 사랑의 해빛, 그것은 진정한 재생의 봄빛이였다.》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윤복진은 꽃다발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감사의 큰 절을 드렸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배려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다시 젊어진 심장과 다시 밝아진 귀로 동요창작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고스란히 바쳤다.

윤복진은 마지막으로 《수령님, 고맙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통일되면 고향에도 가보고 장군님께 올릴 통일동요를 짓고 싶었는데 못드리고 갑니다.》하고 말하고 나서 조용히 두눈을 감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는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애석해 하시며 기관장으로 장례를 잘 치러 주도록 하여 주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의 여러 기관들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검은 땃기가 드리워 있는 하얀 화환이 그를 빙 둘러쌌다. 그속에 누워 있는 그는 자는듯 평온하였다.

그날은 주체80(1991)년 7월 16일이였다.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태양의 품에 안긴 그의 삶은 영원하리라.)

×

《추억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붓을 놓자. 못다 쓴 이야기는 후날에 더 쓰기로 하고... 래일은 편집부에 원고의 첫선을 보여 줄가. 아니, 하루만더 두

고 보자. 꼭 들어 가야 할 자료가 빠진것이 없는지.》

나는 이렇게 혼자소리로 만하며 창작실을 나섰다. 의암동에서 승리역까지는 퍼그나 멀다. 전차정류소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천천히 걸어 가기로 하였다.

머리속에서 떠날줄 모르는 《동요할아버지》와 끝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류교를 건넜다.

나의 발걸음은 《동요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능수버들밑에서 멈춰 섰다.

예나 이제나 휘 늘어 진 능수버들도 푸르고 흘러가는 대동강물도 푸르다. 거울처럼 잔잔한 맑은물에 《동요할아버지》의 둥그런 얼굴이 비껴 있는듯싶다. 머리우에서 버들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봄바람소리도 발밑에서 기슭을 적시며 흘러가는 물결소리도 그가 것처럼 사랑을 담아 노래한 동요 《시내물》의 아름다운 가락을 읊조리는것 같다. 문득 나의 눈앞에 《동요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띄운

버들잎배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 온다. 그날에는 미처 모르던 그 깊은 뜻을 이제는 알것 같다. 그 버들잎배는 어떤 배였던가.

《동요할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읊은 수많은 노래들을 다 실은 작고도 큰 동요의 배였다.

그의 뱃이 타고 간 그 배에는 눈물, 웃음, 사랑, 행복이 배선에 넘쳐 나도록 가득 실려 있었다. 지금쯤 그 버들잎배는 어디까지 갔을가?

저 주체사상탑의 밝은 해불이 비쳐 주는 항로를 따라 그가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대구의 옛 고향 집에도 가보았을것이다. 거기서 다시 닳을 올린 버들잎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누리에 펼쳐주고 계시는 눈 부신 태양의 나라, 끝없이 아름다운 《동요의 나라》로 오늘도 앞서 가고 있을것이다. 나는 잊지 못할 옛 선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 보며 흘러가는 대동강 푸른 물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주체89(2000)년 4월 25일

-대동강가에서-

옛 전장에서

김정춘

불 타던 땅...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꽃은 폈구나 바람은 맑고나
하늘은 높고 푸르고나

수류탄 입에 문 나의 전우
적진으로 굴러 떠난 이 산정에
파일은 탐스럽게 익었구나
향기에 뜨거움에 목이 메노나

턱으로 중기압철 누르며
중기사수가 몸부림치던 저 바위에
보화덩이 같은 꿩들이 내려 앉노나
쌍쌍이 부리를 비비며 거니노나

아! 화점으로 내달던 최후의 만세소리
총장의 부딪침, 육박의 소음 끓던 곳에
뜨거운 피 점점이 젖어 든 곳곳에
지금은 고요히 꽃들이 피며 웃노니

말할수 없구나

저 꽃 그저 철쭉이라고
저 열매 그저 사과라고
저 산새 그저 꿩이라고

전우의 아들이기도 형제이기도 한
그의 부모처자 벗이요 친우이기도 한
저 산천
전사의 노래요 꿈이기도 한
기름진 들의 저 물줄기, 흰연기 펼쳐 든
저 하늘

저 꽃이름 대신에
저 열매이름 대신에
창공을 가르는 저 아름다운 새이름 대신에
하나하나 떠오르는선
사랑하는 이 땅에 길이 살아 숨 쉬는
아, 떠나간 전우들의 이름...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꽃은 폈고나 바람은 맑고나
하늘은 높고 푸르고나

50년 그해 여름 외 2편

문선건

포병?
땅크병?...
정말 어벌도 컸지
키는 제일 작아 꼬마로 불리우는 주제에

신병훈련 마치고
배치 받던 날
그래도 마음은 하늘을 날고
으쓱해서 들떠 있던 그날

누가 어찌지도 않는데
키 큰 사내들만 좋은데 가는것 같아
몸가짐도 부자연스럽던 그날
유별나게 키 작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호송군관이 물었다네
-꼬마는 어떻게 군대에 나왔나

꼬마라는 말에
언짢아도 대답할수밖에

-훈장이 없으면 처녀들이 시집 안 온다나요
영터리 없는 나의 대답에
군관은 허허 웃으며
철 없는 나의 통담도 허물없이 받아 주었다네
-그래 훈장 타러 나왔단 말이지
-아무렴요

순간 군관은 나의 손을 덥석 잡고
-함께 가세- 했다네
아마도 나의 《위훈의 갈망》
훌륭한 영웅병사의 표징으로 보았던가봐

정말 50년 그해 여름부터
내 키는 더 자라지 않았어도
전쟁 3년간의 이 많은 군공은
침략자에 대한 증오로 불 타는
수호자의 심장속에 크게 자리 잡은
그 위훈의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전호숙의 웃음소리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나서
또 한바탕 싸움준비 끝내고 나서
염초들을 말며 수염들을 말며
중대가 잠간 쉴 때
전호벽에 척 기대인
전라도내기 익살군 상등병
신입병사 꼬마와
주교 받는 이야기 정다웠더라

-집에 누이가 있지?
-예, 있습니다
-나 매부 안 삼을래?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어리둥절했던 꼬마병사

무엇을 생각했던지
해쭈 웃으며 대답했다네
-이제 세살이야요

와하하하...
고지를 들었다놓는 웃음소리
그런 익살끝에 오는 웃음은
가렬한 결전의 순간에도 생각나
저 혼자도 히쭈 웃어 본다네

그러면 마음속엔 힘이 불끈
용맹이 솟구쳐
죽음도 두려움 없었다네
비겁한자는 그렇게 웃을수 없다는걸
나는 그때 불길속에서 알았네

《무쇠 밤알》

총포탄에 고지의 바위도 부서져 날릴 때
겹에 질러 갱도안에 뛰어 든 다람쥐
병사들 정히 채마귀도 만들어
우리안에 《모신》 다람쥐

날을 따라 병사들과 낮이 익어 저서
재롱도 곧잘 부리던 다람쥐
누군가 무심결에 넣어 준 총알
반들반들한 밤알로 아는지 굴리며 놀았네

두발로 끌어 안고 놓지 않는 탄알
병사는 그 한알마저 빼앗아 들고
총포탄이 작열하는 전호가로 달려 가며
사랑스런 《친구》에게 용서를 빌었네

다람쥐야
네게 진짜 밤알을 들푹 안겨 주자니
야박해도 그 한알마저 빼앗게 되는구나
《무쇠밤알》 그 한알마저

나의 전우들

송명근

한번 다 모여들 보았으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나이들을 잊고
병사시절 걸쭉한 룡담을 주고 받으며
마음껏 떠들어 보았으면
아, 머리 희숙해 질수록 더 그리워 지는
나의 전우들

덕천내기 황동무야
평양태생 조동무야
누구는 중앙의 일군으로
누구는 지배인으로
누구는 군복 입은 쟁쟁한 시인으로
비운 초소가 없고
아니 간 고장이 없지

달리는 부를수 없는
화선친구들!
병사통침대에 간격이 없고
병사의 잠자리에 경계가 없었듯이
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소곤대던 전우들 마음엔
간벽이 없었지

없었지, 네것 내것이란 개념이
하기야 병사의 살림살이
배낭 하나가 전부였으니...
쏟은것 정이었고
주는것 자신의 전부였노라

나눌수 없는 목숨까지도 나누고 싶어
불 뿜는 화점앞에 나서야 한다면
터지는 수류탄우에 덮어야 한다면

제 가슴 먼저 내대려
한발자욱을 앞서 다루던 나의 전우들!

이 동지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흩어 저 남남이 되었으리
장가들고 자식들 거느린 가장이 되고...
잊혀 진것 한두가지라 30여년 세월에
허나 내 장담하노니
세월이 검증한 전우는 영원한것

내 말할수 있노라
혈불이보다 순결한것 화선의 동지애라고!
피는 같은 형끼리만 섞을수 있듯이
마음은 하나의 뜻으로만 합칠수 있어
장군님 위하여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애는 일단 뭉치면 굳렬이 없다

못 잊을 전우들
화선친구들아
우리 서로 먼 곳에 있어도
소리 쳐 부르자
나누고 싶은 기쁨 있다면
혹 감당키 어려운 불행이 닥쳤다 대도

가야 할 혁명의 길 멀고 험해도
두렵지 않노라
좋은 일엔 한걸음 물러 서도
죽음앞이라면
다투어 먼저 나서는
그 한걸음에서 시작된 동지애가 있는 한...

아, 그 한걸음때문에
영원히 못 잊는 나의 전우들!

탄부의 보금자리

김광남

저녁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깃들자 전차의 푸른 섬팡이 번쩍거린다. 산기슭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앉은 집집의 창가에는 하나둘 전등불이 켜진다.

저녁연기가 안개처럼 희어 오르는 탄광마을길로 몸매가 체소한 젊은이가 걸어 가고 있다.

너성적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룬 등실 한 얼굴은 가슴앞으로 수그려 젖고 총이 센 머리칼이 아무렇게나 이마우에 드리워져 있다. 드문히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리며 머리를 들었다가는 다시 수그린다. 직동탄광 중대 당세포비서 김유봉이다.

멀리 샷샷봉마루에 둥근달이 떠오르고 숲속으로 날아 드문 새들의 지저귂소리며 퇴근길에 오른 탄부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늘 보아 오던 탄광마을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었건만 유봉의 마음은 쓸쓸하고 무거웠다.

집이 가까와 지자 유봉은 고뇌어린 눈길을 들었다. 사랑하는 안해와 귀여운 두 딸애가 기다리고 있는 집, 창문가의 불빛이 어서 오라 정답게 반짝인다. 유봉은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은 순간 그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집, 우리 집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안해와 애들은...

어이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 생각을 털어 버리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일단 떠오른 그 생각은 물위에 떠 있는 고무공처럼 아무리 눌러도 가라앉지 않는다.

왕청 같은 생각에 쫓기듯 허둥허둥 집앞에 이르른 유봉은 조심히 대문을 열었다. 부엌문결에 쭈그리고 누워 있던 검둥이가 슬며시 다가 와 꿈꿨다. 마치도 (내 우리 하나 지어 주지 못하는게 어디 주인이요.) 하고 나무라는것 같았다.

(어쩌겠니. 너까지 돌봐 줄 시간이 없구나.)

검둥이의 목덜을 쓰다듬어 주고 난 유봉은 문손잡이를 쥐었다가 다시 놓았다. 마당가의 널의자에 앉은 그는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담배부스레기와 함께 몇알의 강냉이가 집혀 젖었다. 그것을 꺼내 손에 든 유봉은 한동안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그는 일찍 막장에 나가려고 서둘렀다. 식량이 부족했다. 터발의 강냉이도 여물지 않았으니 아침저리가 변변치 않다는것을 알았기에 식사할 생각도 안한것이다. 그가 옷을 입는데 안해가 무엇인가 담긴 비닐바가지를 들고 다가왔다. 통강냉이 담은것이였다. 말없이 받아 든 유봉은 안해와 두딸,

자기것으로 네뭇 갈라 한줌만 주머니에 넣고 갠으로 나왔던것이다.

유봉은 물끄러미 올려다 보는 검둥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담배 부스레기를 훑 불어 버리고 강냉이를 내밀었다. 검둥이는 조심스레 혀로 핥아 가드등 가드등 깨문다.

유봉은 담배를 꺼내 불어 물었다. 달빛을 받은 푸릿한 연기가 그물그물 피어 올랐다.

며칠전 중대채탄장에서 큰 물주머니가 터졌다. 예견치 못한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과는 상상외로 컸다. 터져 나오는 수압이 얼마나 켜던지 100여메터에 있던 탄차가 뒤집혀 쭈그러 들었고 전차레루가 엇가락처럼 휘었다. 여러 대의 벨트콘베아, 채탄설비들과 함께 7백여메터나 되는 막장이 키를 넘는 죽탄물속에 잠기였다. 채탄기소리 요란하던 막장은 피피한 적막속에 잠겼다. 중대 석탄생산은 완전히 멎었다.

탄광책임일꾼들과 기술실무일꾼들이 사고현장에 달려 왔다. 비상회의회가 열리였다. 여러대의 고성능 뿔프를 들이 대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가망이 없는 일이다. 모든것이 긴장되고 어려운 때여서 뿔프와 수백메터의 배관을 얻어 올데도 없었거니와 퍼내면 자꾸 터져 나오는 지하수를 어느 세월에도 처리하겠는가. 막장 회의실에 연기가 뽕얇게 담배를 피우며 열을 올리였으나 신통한 대책이 서지 않았다. 막장의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하지만 너무도 심각한 문제여서 누구도 선뜻 결론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수도 없었다. 탄부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탄차에 죽탄을 담아 퍼냈다.

어느날이였다. 허우대가 남달리 큰 동발공 리만일이 헛 삽질을 하며 넘어 질듯 비틀었다. 옆에서 일하던 유봉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그저 좀...》

옷웃을 벗어 던진 그의 온몸은 땀과 죽탄에 게발려 흑인처럼 번들거렸다.

《좀 쉬라구!》

《일없어요. 발이 미끄러져서...》

만일이는 이렇게 대꾸하며 다시 삽질을 하였으나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자주 허우적거린다. 맥이 빠지고 지친것이 분명했으나 삽질을 멈추지 않는다.

《?!...》

중대에서 그중 꺾고 힘풀이나 쓰는 만일이가 이
럴진대 다른 동무들은 어떠하겠는가. 유봉은 생각
이 깊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저녁작업종화때였다.

여기저기 맥을 놓고 앉아 있는 탄부들을 둘러보
던 중대장이 물었다.

《만일이가 왜 보이지 않소?》

탄부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좀전에 막장에서 무엇인가 죽고 있었는데...》

누구인가 이렇게 대꾸하자 중대장이 근심스레 소
리쳤다.

《빨리 찾아 보지요.》

물에 잠긴 막장에서 혼자 다니다가는 큰 사고를
칠수 있기때문이다. 탄부들이 주섬주섬 일어 서는
데 안전등을 번쩍이며 만일이가 헐떡헐떡 뛰어 왔
다. 무엇인가 지고 온것을 한쪽구석에 털썩 내려놓
았다. 죽탄에 범벅이 된 널판자 토막과 구부러 들고
놓은 끈이 씌여 있다.

중대장이 미간을 찡그렸다.

《그건 어쩔려구 그래?》

《저... 좀 필요해서...》

무엇이든 숨김이 없고 활달한 만일이였지만 왜서
인지 말끝을 얼버무리며 우물쭈물 했다.

성미가 폭발하고 일밖에 모르는 중대장이 벌컥 어
성을 높였다.

《그게 뭐요. 녀마 좇는 늑은이처럼. 막장을 살리
느냐 마느냐 하는 판에 어디 딴 생각 할새가 있는
가 말이요. 동문 요즘 어떻게 된게야. 앓기만 하면
졸지 않나, 드문히 지각을 하지. 젊은 사람이 영 맥
을 못 춘단 말이요.》

만일이는 함마같이 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무슨 말인지 할듯 갑자르더니 머리를 수그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유봉은 어쩐지 만일이가 민망스러워 고개를 돌렸
다.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돌봐 주는 만일이가 비판
받는것이 자기에 대한 비판처럼 생각되어 얼굴이
뜨거워 졌다.

중대장은 부리부리만 눈길로 탄부들을 둘러 보
았다.

《물론 생활이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
소. 그러나 당분간 참읍시다. 지금 막장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소.》

따지고 강조하는 중대장의 청 굵은 목소리속에
작업종화가 끝났다. 탄부들이 헤쳐 가자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유봉을 쳐다보았다.

《세로비서동무, 어쩌면 좋겠소. 막장을 살릴 길
은 막연한데 사람들도 지쳤지. 이러다간 월 석탄계
획도 못할것 같구만.》

《...》

중대장이 하루실적을 보고하려 갱 지령실로 올라

가자 유봉은 휴계실벽에 붙여 놓은 경쟁도표판 앞
으로 다가갔다.

《평양으로 달리는 경쟁도표》라고 제목을 단 우
에는 《장군님 기다리신다 10만톤의 석탄을!》이
라고 쓴 구호판을 걸었다. 중대인원수만큼 칸을 긋
고 매 개인별로 10만톤이라고 쓴 작은 《전기기관
차》를 만들어 최월에 끼워 놓았는데 《직동》부터
《평양》이라고 쓴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

이 경쟁도표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몇해전 중대는 년간계획을 6월 말까지 끝냈었다.
기자들이 촬영기를 메고 찾아 왔다. 온 직동골안이
들썩했다. 탄부들은 기쁨에 겨워 어깨가 으쓱해 졌
다.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허리를 좀 펼수 있게 되
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봉은 평양에 다녀 온 한 일군
으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다. 석탄부족
으로 화력발전소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여 장군님
께 근심을 끼쳐 드렸다는것이다.

그날밤 유봉은 잠들수가 없었다. 년간 계획을 했
다고 만족하여 기뻐 한 자신을 뼈저리게 질책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 섰다. 중대원들에게 년말까
지 10만톤의 석탄을 캐자고 호소했다. 탄부들은 주
먹을 흔들며 호응해 나섰다. 10만톤이면 중대의 몇
년분 과제와 맞먹는것이다.

탄부들은 자기들의 결의가 담긴 맹세문을 장군님
께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올린 소박한 편
지를 몸소 보아 주시었다. 훌륭한 탄부들이라고 동
무들을 믿는다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
었다.

유봉은 이 경쟁도표를 만들어 막장의 탄벽에 세
워 놓았다.

《누구의 기관차가 평양으로 제일 먼저 가는가 봅
시다. 우리의 몸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막
장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더
캐며 땅속깊이 들어 갈수록 평양의 불빛이 더 밝아
지고 그리운 장군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것
을 명심합시다.》

탄부들은 채탄기를 억세게 틀어 잡았다.

력사에 류례가 없는 어려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장군님께 드린 맹세를 지켜 냈다.

뜻밖의 사고로 무너진 굴속에 갇힌 일도 있었
다. 숨 막히는 가스에 정신이 혼미해 지는 속에서도
술임을 깨물고 진흙물을 타먹으며 일어 섰다. 허기
져 일어 서기 힘들면 동발나무껍질을 씹으며 무너
진 굴을 헤치고 나왔다. 그리고는 병원으로가 아니
라 또다시 무너진 갱을 복구하고 석탄을 캐냈다. 이
렇게 탄부들은 장군님께 맹세 드린 10만톤의 석탄
생산과제를 해마다 어김없이 수행하여 왔다.

유봉은 다시 한번 경쟁도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정녕 석탄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억척같이

받들어 갈 탄부들의 마음을 비쳐 보는 충성의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 단 한점의 공백도 한사람의 락오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면 탄부들을 불러일으켜 막장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석탄을 캐겠는가.

유봉은 이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슴을 태웠으나 방도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른 유봉은 만일이네가 살고 있는 합숙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만일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떠돌아다니며 살다 보니 성격이 거칠었다. 주먹이 세고 불량청년들을 휘동해 가지고 다니며 말썽을 부리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제 마음대로 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밤교대에서 동발이 모자라 석탄을 켈수가 없었다. 그러자 동발공인 만일이가 말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얼마후 그는 동발을 가득 실은 광차를 밀고 나타났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른 때보다 2배의 석탄을 더 캐냈다. 만일이는 《영웅》으로 떠받들리웠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갱보수중대장이 혈떡거리며 뛰어 왔다. 만일이가 그 큰 주먹을 휘둘러 으름장을 놓으며 자기네 사람들이 보수한 운반갱에서 동발을 5대나 훔어 왔다는것이다. 지령장과 로동안전원이 달려 오고 일대 소동이 벌어 졌다. 그러나 만일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젠장, 동발 몇대 뺏았다고 암석갱도가 당장 무너지는것도 아닌데 왜 야단들이요.》

그리고는 들었던 도끼자루를 획 집어 던지고는 막장에서 훌쩍 나가버렸다.

중대장이 성이 나서 소리쳤다.

《저따위 말썽꾼이 없다고 석탄을 못 캐겠소. 아예 다른데로 보내고 말지요.》

그러나 유봉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중대에서 내쫓는다면 그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도와 줍시다.》

만일이는 결함도 많았지만 의리심도 있고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좋은 점도 있었다.

유봉은 안해와 토의하고 만일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때부터 한가마밥을 먹으며 차근차근 일깨워 주고 도와 주면서 다년간 함께 살아 왔다. 뼈가 굵은 만일이는 탈선된 탄차도 혼자 들어 올리고 아름드리 동발도 량 어깨에 두대씩이나 메고 다니는 혁신자로 자라났다. 지난 해에는 운반갱의 전차운전 공처녀와 짝을 무어 결혼식까지 차려 주었다. 아무리 잘 돌봐 준다 한들 제 안해의 사랑만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일찍 장가를 보내준것이다. 집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붙잡았으나 안해와 함께 부득부득 합숙으로 나가 생활하고 있다.

한지붕아래서 오래동안 함께 살아 온 그가 드문히 무슨 결함이 생겨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면

은근히 마음에 걸려 내려 가지 않는다.

요즘 일이 바쁘다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보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며 유봉은 걸음을 다그쳤다.

그들이 사는 합숙에 가보니 문에 큼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다. 잠시 서성거리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합숙생이 지나가다가 귀뜸해 주었다.

《만일동문 집 짓는데 가 있어요.》

《?!...》

유봉은 그곳으로 찾아 갔다.

길다란 장대끝에 카바이드등을 매달아 놓은 만일이는 서까래우에 올라 앉아 막장에서 좇아 온 널조각들을 박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길다란 그림자가 땅우에 얼른거린다. 그밑에서는 만일이 안해가 널판자를 올려 주느라고 애 쓰고있다. 돌을 고이고 올라 섰어도 키가 자라지 않아 잔뜩 쳐든 발뒤꿈치가 바들바들 떨린다. 유봉은 수집계 인사하는 만일이 안해의 손에서 널판자를 받아 들고 대신 올려 주었다.

《형님 오셨어요!》

유봉을 알아 본 만일이가 인사를 건넸다.

《혼자 집을 짓느라 수고하는구만.》

얼마 되지 않는 널판자들을 다 올려 주고 난 유봉은 천천히 집주위를 돌아 보았다.

몇달전부터 중대탄부들이 토피를 찍어서 짓고있는 집이었다. 세멘트와 목재도 구하기 힘들었고 석탄생산에 몰리워 일손마저 딸리고 보니 아직까지 완성 못한것이다.

토피를 쌓아 축조는 기본적으로 되었으나 미장도 못했고 널판을 대지 못한 지붕으로는 하늘이 올려다 보였다. 창문과 출입문은 문틀조차 없다. 골조만 앙상한 집을 완성하자면 아직도 적지 않은 자재와 많은 품을 들여야 할것이였다.

유봉은 일이 바쁘다고 만일이 집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막장을 살려 보자고 아글타글 애 쓰는 이때 제 집을 짓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 만일이가 섬섬하게 생각되였다. 올려 보낸 널판자를 다 박고 난 만일이가 지붕에서 훌쩍 뛰어 내렸다.

《집이 그리 바쁘나. 막장을 살려 낸후 중대의 도움을 받아서 완공하면 안되겠어? 당장 한지에 나앉은것두 아닌데.》

만일이는 뒤덜미를 썩씩 굶었다.

《저... 말하기가 거북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안해가 당장 해산하게...》

《음, 그래?!...》

유봉은 며칠전 안해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감감 잊어 버리고 있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럼 우리 집에 다시 들어 오라구.》

만일이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천천히 담

배를 붙여 물고는 서너모금 깊숙이 빨았다.

《누님이랑 7년나마 저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어떻게 지우겠어요.》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런 소리야.》

《형님, 솔직히 말하면 전 부모의 사랑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집이 없어 떠다니며 살던 나날 밤이 되면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집집의 창문을 들여다 보며 남 몰래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가버린 부모의 사랑을 그리면서 말이예요.》

장가를 가서 안해가 끓여 주는 음식을 먹고 안해가 빨아 주고 손질해 주는 옷을 입으며 저는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안해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도 내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만일이는 더 말을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서 있던 만일이 안해가 얼굴을 싸쥐고 돌아섰다. 순간 유봉의 심장이 찢어질 듯했다. 자기 안해와 태어날 어린애에 대한 애절한 연민이 어린 만일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가슴을 모질게도 파고들었다. 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겠는가. 낮에는 막장에서 죽탄을 퍼내느라 땀을 흘리고 밤에는 또 안해와 함께 여기저기서 주어 모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자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랴... 그러니 그가 어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일을 하였겠는가.

《용서하라구. 내 만일이 그 심정을 몰랐어.》

《아니예요. 제가 너무 집욕심을 부린것 같아요.》

자기를 탓할 대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는 만일이를 보며 유봉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수억년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열량을 축적해 온 석탄처럼 이 땅우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기들의 생활적고충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탄을 캐며 한생을 바쳐 가는 탄부들이다.

이런 탄부들을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 주고 이끌었던가... 석탄생산이 걸린것은 채탄장이 물에 잠기고 동발이나 화약, 탄차와 전기만이 걸렸기때문이 아니다. 제 구실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나에게 걸려 있다.

이튿날 유봉은 중대장을 만나 만일이 집문제를 토의해 보았다. 중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어쩔수가 없구만. 막장이나 살려 내고 봅시다. 막장복구에도 로력이 모자라 찢쩍 매는데 탄부들을 동원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일이에 게 시간을 떼주어 집을 짓게 하세요.》

《...》

집을 지으라고 만일이의 등을 떠밀어 보내긴 했

으나 유봉의 마음은 편안치 않았다.

이제 겨우 벽체만 세운 집을 자재와 로력도 없이 어느 세월에도 완공한단 말인가. 중대동무들에게 호소해 보고 싶었으나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막장 복구때문에 지칠대로 지친 탄부들이 아닌가.

문득 지배인 생각이 났다. 탄부들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보던 텔레비존도 서슴없이 내어 놓는 인정 깊은 지배인에게 제기하면 집문제가 풀릴것 같았다.

퇴근후 지배인을 찾아 가니 방이 비어 있다. 두툼한 안경을 낀 기요원이 행처를 알려 주었다.

《지배인동진 어제저녁 2갱막장에 들어 갔는데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연합에선 무슨 회의가 있다고 찾는데 이거 야단났습니다.》

《?!...》

유봉은 어쩔지 오지 말아야 할데 온 사람처럼 마음이 불안해 졌다. 온 탄광의 석탄생산을 책임지고 낮이나 밤이나 늘 막장에 붙어 살다싶이 하는 지배인을 돕지는 못할 망정 손을 내밀다니...아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유봉은 만일이가 집을 짓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만일이를 도와 흙 한삽이라도 떠주어야 마음이 놓일것 같았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만일이는 보이지 않고 그의 안해가 부엌바닥에서 흙을 파내고 있다가 삽질을 멈추었다.

《만일동문 어디 갔소?》

《저, 그인... 막장에서 동무들이 고생하는데 아무래도 잘된 일 같지 않다면서 좀전에 막장으로...》 만일이 안해는 호-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친다.

《!...》

전차의 푸른 섬광이 번쩍이는 갱쪽을 바라보는 유봉의 가슴은 뜨거웠다.

《자, 어서 내려 가세요. 혼자서 이러다가 앓아 눕기라도 하면 어쩔려고 그러오. 내 어떻게 하나 집을 해결해 보겠소.》

만일이 안해를 위로하여 보낸 유봉은 무거운 걸음을 떼었다. 그의 귀가에는 태어날 어린애에 대한 애절한 연민이 어려 있던 만일이 목소리가 들려 오는듯 했고 혼자서라도 집을 완공해 보겠다고 애를 쓰던 만일이 안해의 모습이 어른거려 눈곱이 흐려졌다.

집을 완공하라고 시간까지 떼여 주었으나 오히려 막장으로 다시 들어 간 만일이를 어떻게 도와줄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는 떠오르지 않았다.

×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것이 손등을 핏는 촉감에 얼른 정신을 차린 유봉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발소리를 죽여 가

며 달빛이 환한 집주위를 돌아 보았다.

떨어 진 벽을 서툰 솜씨로 미장한 자리며 팔뚝같은 강냉이가 여물어 가는 넓은 터밭, 가슴이 넘게 빙 둘러 친 돌올타리, 그것은 안해가 터밭을 일쿠느라 손톱이 모지라지게 파고 주어 내어 쌓은것이다. 그렇게 일쿠어 놓은 터밭에 봄이면 울감자를 심고 그뒤엔 강냉이며 유봉이 좋아하는 풋고추와 갖가지 남새를 심어 어려운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 돌올타리였으로는 긴 장대를 드문히 세우고 새끼줄을 열기설기 쳐놓았다. 거기로는 줄당콩이 뻗어 올라 빨간꽃이 피어 있다. 유봉은 걸음을 옮겨 창문결에 높이 자란 네그루의 감나무밑으로 다가갔다. 달빛에 반짝이는 나무잎사이로 파란 감알들이 오롱조롱 내려다 본다.

어느 해 봄인가, 유봉은 감나무모를 얻어다 심었다. 그때 유치원에 다니던 막내딸 향란이가 조그마한 발로 흙을 푹푹 밟아 주며 종알거렸다.

《제일 큰건 아버지꺼. 그 다음은 어머니, 그리고 저건 언니꺼구 요건 내꺼야. 아버지, 언제면 감이 열리나요?》

《이제 네가 인민학교 학생이 될 때면 붉은 감이 열리지.》

《야, 좋네. 그럼 난 빨간 감을 따서 탄부 아저씨들한테 줄래요!》

《음. 그래라!》

그때부터 온 집안식구가 물을 주고 거름을 묻으며 애지중지 키워 왔다. 올봄엔 처음으로 흰 꽃이 피고 감알들이 열렸던것이다.

금시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 그 모든것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는 유봉의 가슴은 따뜻한 감동으로 달아 올랐다. 늘 막장에 붙어 살다 싶이 한 자기였다. 둘째 딸을 낳을 때마저 돌봐주지 못해 얻은 산후탈로 허리를 잘 쓰지 못하는 안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이를 사려 물고 일어나 아글아글 애 쓴 안해의 땀방울이 그 어디에나 스며 있는 소중한 창조물들이다.

집이자 안해였고 안해이자 집이었다.

하루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 온다. 풀죽이긴 하지만 독이 오른 풋고추에 된장을 꼭꼭 찍어 얼벌벌하게 먹고 나서 코등에 맺힌 땀을 훔친다. 네활개를 쭉 펴고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딸딸 모란이가 부르는 노래까지 듣고 나면 하루의 힘든 로동에서 지치고 영킨 피로가 일시에 다 풀린다.

고난속에서도 집은 생활의 터전이었고 안식의 보금자리였다. 그는 자기 집 창문가의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집을 주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나 차마 용단을 내리지 못한것이다. 그러나 만일이를 도와 줄수 있는것은 오직 그 길뿐이다.

내 무엇을 더 주저한단 말인가.

그에게 있어서 집보다 더 귀한것이 탄이였고 그

탄을 캐는 탄부들이었다. 하지만 안해와 애들이 이것을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유봉은 조심히 출입문을 열었다.

안해가 차려 준 저녁을 몇술 뜨는척 하던 유봉은 슬며시 수저를 놓았다. 것처럼 좋아 하던 풋고추도 입맛을 돋구지 못했다.

《어디 몸이 편치 않으세요?》

김옥순의 유순한 눈에 근심이 어렸다.

《아니요.》

저녁상을 거둔 뒤 애들이 옆집으로 텔레비존구경을 나갔다.

《향란이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심어린 안해의 물음에 유봉은 담배불을 비벼켰다.

《내 좀... 할 말이 있소.》

유봉은 자기의 결심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우리 집을요?》

바느질감을 들고 앉았던 옥순은 옷가지를 무릎위에 떨구었다.

《부모없이 자란 만일이가 아니요. 집이 없어 합숙에서 아이들 낳아야 함 그들을 생각하면...》

유봉의 목소리는 떨렸다.

옥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옷가지를 손에 잡았으나 바느질은 하지 않고 멍하니 방바닥만 내려다 본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합숙에 나가지요. 애들도 다 컸고 생활경험도 있으니 일 없을게요.》

유봉이 이렇게 말하자 옥순은 애원이 어린 눈을 들었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쩐지 안해가 애처로웠다. 유봉은 목이 메여 머리만 끄덕거렸다.

이처럼 어려운 때 생활의 보금자리인 집을 내놓자니 어찌 마음속 동요와 고민이 없겠는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 일생을 두고도 체험해 보지 못할 절절한 감정을 느껴 보고 있을 안해였다.

잠시 고느직한 침묵이 흘렀다.

옥순은 정든 집과 마지막 리별을 하려는듯 방안의 여기저기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나서 나직이 입을 뗐다.

《향란이 아버지, 집을 주자요.》

유봉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리도 바라던 대답이 었건만 가슴이 칼로 에이는듯 했다.

오히려 안해가 불만을 터뜨렸든가 눈물을 흘리며 반대라도 했더라면 이다지도 마음이 괴롭지는 않았을것이다. 자기 어깨에 덧지워 질 아픈찬 부담보다도 남편의 마음을 더깊이 리해하였기에 혼연히 따라 나서는 안해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가슴 그득히 차올랐다.

《여보!》

유봉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안해의 손을 꼭 쥐었다. 더 갈라 지고 굳은살이 배긴 손이었다. 손뽕금수였던 처녀시절 나긋하고 얼마나 고운 손이었던가. 이 손에 가정을 위해 어려운 시련을 헤쳐 온 고심어린 노력과 사랑이 다 스며 있는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석탄생산때문에 근심하시면서 자신께서 꺾으셨다면 석탄을 캐고 싶다는 교시를 전달 받고 유봉이 탄광으로 진출할 결심을 말했다. 《나도 당원 체대군인이예요!》라고 하면서 갖 돌이 지난 만팔 모란이를 업고 주저없이 따라나선 안해였다. 풀뿌리와 나물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성의껏 마련한 음식을 해이고 막장에 들어와 손뽕금을 타면서 탄부들을 고무해 준 이 손에는 이제 우리가 잘 살 날이 오면 그때엔 잠을 한번 싹 킷 자보겠다던 소박한 소원까지도 다 깃들여 있리라...

그런데 내가 안해와 애들에게 너무 하지 않는가. 유봉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당신을 고생만 시켰구만... 아니, 다른 방법으로 집을 해결해 보겠소.》

옥순은 정겹게 남편을 쳐다보며 머리를 저었다.

《향란이 아버지도 참, 제가 당신마음을 어찌 모르겠나요. 집을 당장 어디서 구한다고... 저와 아이들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저 이불장이랑 다 주고 나가자요. 결혼식때 가구를 해주지 못한것이 은근히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

유봉은 뜨거운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았다.

선량한 마음의 후광이 은근히 내비치는 가름한 눈, 그 어떤 난관에도 굽어 들줄 모르는 성미처럼 오흘한 코며 부르르진 했어도 순박해 보이는 도두룩한 입술, 살이 빠져 관골이 두드러지고 해별에 타서 거칠어 진 안해의 얼굴에는 온갖 아름다운미가 다 깃들여 있었다. 이 순간 유봉은 자기의 집을 내어 만일이를 도와 줄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컸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한 가정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고난속에서도 남을 도와 줄줄 아는 안해의 그 너그럽고 착한 마음이 집이나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귀중했다. 이런 안해와 교락을 함께 한다는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여보! 고맙소!》

유봉은 두눈을 습쩍거렸다.

옥순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서로의 고결한 마음에 매혹되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없이 웃었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으나 유봉은 집을 나섰다. 그 길로 함숙으로 달려 갔다.

《집이 해결되었소!》

《집이라니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던 만일이 안해가 몰라서 일어 섰다.

《며칠전 지배인한테 제기했었는데 우리 갱 가까이 집을 해결해 주었소.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기로 하고 만일이네는 우리 집에 들기로 했소.》

《?...》

《그전에 상한 다리가 이따금 말뼉을 부려 갱 가까이로 가려는것이니 달리 생각 마오. 자, 이걸 받소. 우리 집 열쇠요. 래일아침 만일동무가 들어오면 집을 꾸러 가지고 함숙에서 나오라우.》

유봉은 자기의 본의 아닌 거짓말이 하루도 넘기지 못한다는것을 알면서도 즐거운 기분으로 함숙을 나섰다.

동지를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은 언제나 유쾌한 법이다.

이튿날 먼동이 희뵈하니 밝아 오자 유봉은 서둘러 이사집을 꾸렸다. 입던 옷가지들과 이불, 간단한 화식도구들과 독뿐이다. 부엌세간과 가구들은 아예 남겨 두었다.

손달구지에 집을 싣고 난 유봉이 말했다.

《여보, 우리 만일이가 짓고 있는 집으로 가는데 어떻소.》

《거기야 아직?...》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되겠소. 이제 함숙으로 집을 싣고 가면 만일이가 알게 되고 가만 있지 않을게요. 그리고 함숙생들에게도 불편을 줄것 같고. 우리 군사복무때 병실을 지어 본 경험이 잊지않소. 그 집에 림시로 살면서 점차 완공해 보지요.》

《하긴 그게 좋을것 같군요.》

무슨 일에 서나 오손도손 마음이 통하는 그들이었다.

완공 못한 집으로 여러차례 이사집을 날랐다.

마지막집을 건너 싣고 떠나려는데 감나무에 물을 주고 난 막내딸 향란이가 눈물이 그렇게서 감나무를 쓸어 만졌다.

《아버지, 나 이 집에 자주 와서 감나무에 물이랑 쥐도 되나요. 그리고 가을엔 빨간 감을 따서...》

향란은 팔소매로 눈굽을 훔쳤다.

유봉은 목이 메여 한동안 말을 못했다.

《향란아... 이 집에 만일 삼촌이랑 와서 산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럼 드문히 와서 그저 보기만이라두...》

유봉은 눈굽이 뜨거웠으나 우정 어성을 높였다.

《너 왜 자주 이러니. 어서 가자.》

눈물이 글썽해서 감나무를 자주 돌아다보는 향란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옥순은 말없이 돌아 서며 슬며시 눈굽을 짚었다.

이사집을 푼 유봉이 지붕과 문창들에 비닐박막을 치고 있는데 만일이가 혈떡거리며 달려 왔다.

《형님,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날 뭘루 아는가 말이요. 당장 내려 가자요.》

만일이는 다짜고짜로 부려 놓은 이사집들을 손달구지에 와락와락 걷어 싣는다. 유봉이 그의 팔목을 덩석 붙잡았다.

《탄부라는게 집 하나 가지고 뭇 시시하게 그래?》

만일이가 왈각 성을 냈다.

《내가 형님집을 가진다고 마음 편할것 같소. 누님이랑 불편한 몸인데 지붕도 없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자 김옥순이 끼여 들었다.

《만일이삼촌,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린 일 없어요.》

《어쨌든 안돼요.》

만일이는 자기의 팔을 틀어 잡은 유봉의 손을 뿌리쳤다. 만일이가 집을 싣으면 유봉이가 또 부리웠다. 아무리 설복하고 큰소리까지 쳐도 만일이를 당할수가 없었다.

그러자 유봉은 만일이의 제일 약한데를 찔렀다.

《이보라구 만일이,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온 우리끼리야 뭐라나. 하지만 안해 생각을 해야지. 그래 집도 없이 합숙에서 몸을 풀겠어.》

《그래두 그렇지요. 정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 나오겠어요.》

《만일이삼촌, 그러면 안돼요, 첫 아이인데 바람간수랑 잘해 주어야 해요. 우린 애들도 다 컸으니 일 없다니까요.》

동생을 타이르는듯 한 옥순의 살뜰한 목소리에 만일이는 두눈을 습쩍거렸다.

《저 같은게 뭐라구 집과 가구까지 다...》

만일이 눈에 물기가 어려 올랐다. 오래동안 함께 살면서도 보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유봉은 만일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만일이, 내 그 동안 형구실을 잘못했어.》

《형님!》

유봉이 만일이한테 집과 가구까지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중대탄부들이 찾아 왔다.

집주위를 성급하게 돌아 보고 난 중대장이 화가 나서 큰 소리쳤다.

《비서동무, 내 석탄만 석탄이라고 탄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못한건 잘못했소. 하지만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쟁장, 당장 집부터 완공하고 보지요. 이런데서 어떻게 산다고 그러오.》

석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큰소리도 치고 벽이 문이라고 내미는 고집이 센 그였으나 일단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대범하게 인정하고 고치려 드는 중대장이 고마웠다. 그러나 유봉은 팔을 벌리고 막았다.

《안됩니다. 채탄장이 물에 잠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도 춥지 않은데 막장을 살려 내고 봅시다.》

중대장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탁 쳤다.

《제길, 막장이 다 뭐요. 탄광생산협의회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다면 막장을 옮기라는 지령이 떨어졌소.》

《뭘라구요?》

유봉은 흠칫 몸을 떨었다.

《우리의 피땀이 스며 있는 막장을 버리다니...아니 절대로 그럴수는 없습니다. 중대장동무, 정말 무슨 방도가 없을가요?》

너무도 지치고 피로하여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이 갈라 터진 유봉의 절절한 목소리에 감심되었는지 중대장은 무슨 말인가 할듯 머뭇거렸으나 왜서인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나도 생각중인데 아직은...》

《어떻게 하나 막장을 살려 냅시다.》

유봉은 안전등을 들고 단호히 일어 섰다. 탄부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

유봉은 침식장소를 현장으로 옮겼다.

죽탄속을 헤치며 막장의 구석구석을 세세히 탐색하고 갱 설계문진들을 보풀이 일게 들추던 그는 중대장을 만났다.

《물통이 터진 곳에서 불과 몇미터 사이를 두고 수십년전에 다 파먹고 버린 폐굴이 있더군요. 그 사이를 발파해 치우고 폐굴로 물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중대장은 흠칫 놀라더니 덩덤히 말이 없었다.

《나도 그 생각을 해보았소. 얼마전에 우리 갱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이전 갱장아바이한테서 들었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요.》

죽탄속을 뚫고 100미터 들어 가는것부터가 모험이지만 물 먹은 탄벽에 발파구멍을 뚫다가 붕락되는 날엔 큰 사고요. 채탄장이 침수되어 석탄도 캐지 못하는데다가 인명사고까지 나면 우리 중대가 어떻게 되겠소. 내 기술과와 로동안전과와도 토의해 보았는데 모두 머리를 흔들었소. 아무래도 막장을 옮겼다가 물이 줄어 든 다음 다시 오는게 어떻겠소. 이렇게 물에 잠긴 막장만 끌어 안고 있다가는 게도 구력도 다 농칠것 같구만.》

《설사 막장을 옮긴다 해도 채탄장을 새로 꾸리자면 두석달은 걸리겠는데 그동안 캐지 못한 석탄을 무엇으로 봉창한단 말입니까.》

중대장은 유봉의 긴장한 얼굴을 쳐다보며 단호히 잘랐다.

《어쨌든 안되요. 그건 무모한 일이요. 석탄도 중요하지만 탄부들을 그 위험한 일에 끌어 들여선 안되요.》

중대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유봉은 물에 잠긴 막장을 바라보았다.

요란한 채탄기소리며 발파소리 드는던 막장은 피피한 적막속에 잠겨 있다. 어디선가 출렁출렁 떨어지는 물소리가 숨 죽은 막장이 흘리는 눈물인양 처량하게 들려 왔다.

유봉은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든 막장인가.

10여년전 처음으로 탄부의 제복을 입고 탄벽에 첫 채탄기를 박던 일이 어제런듯 떠오른다. 동무들의 축복속에 큼직한 탄덩어리우에 차려 놓은 탄부의 소박한 생일상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달게 받았던 이 막장에서 석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유봉은 어엿한 탄부로, 초급일군으로 성장했으며 장군님의 표창장까지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하기에 그는 석탄을 더 많이 캐는것으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자고 소환장을 받고도 막장을 뜨지 않았던것이다.

막장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차라리 목숨은 버릴지언정 막장만은 버릴수 없다.

유봉은 단호히 결심했다.

오늘저녁 종업원총회가 있으니 탄부들이 다 나간 틈에 슬며시 해치우자. 그러자면 한사람의 방조자가 있어야 한다. 누구와 할것인가. 선뜻 만일이가 짊어 졌다. 그러나 유봉은 머리를 흔들었다. 멀지 않아 첫 아이를 보겠는데 이 위급한 일에 끌어 들일수 없는것이다.

이때 누구인가 유봉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만일이었다.

《형님, 리기주의가 보통 아니군요.》

《그건 무슨 소리야?》

《좋은 일은 다 자기 혼자만 할려니 그러지요.》

《?!...》

《형님, 그 일을 나와 함께 합시다.》

《어떻게 알았어?!》

《아,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룡담으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야. 두렵지 않아요?》

만일이는 심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님,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형님과 함께라면 마음이 든든해요!》

《고맙다. 만일이!》

퇴근시간이 되자 탄부들이 나가고 막장이 조용해졌다.

두사람은 정과 함마, 폭약을 준비해 놓고 앉아 담배를 붙여 물었다.

은연중 비장한 감정에 묻혀 들었다. 이것이 마지막 담배가 될지도 모른다.

유봉은 푸른 하늘아래 두고 들어 온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젖어 들었다.

지금쯤 안해는 집을 꾸러 보겠다고 서툰 솜씨로 무진 애를 쓸것이다. 안해의 거칠어 진 손이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이 뜨거웠다. 이제 막장을 복구해 놓고 나가면 안해를 도와 집을 완공해 놓으리라. 모란이와 향란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테지. 귀를 기울이면 애들의 글 읽는 소리가 또랑또랑 들려올것만 같았다. 막내딸 향란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집을 이사할 때 감나무를 붙잡고 눈물이 글썽해 있던 그 애를 살뜰히 달래 못하고 욕을 한것이 은근히 가슴이 뻐뻐 왔다. 집을 완성한 다음 향란이와 함께 감나무를 심자. 그 나무에서 감이 열릴 때가 되면 우리의 생활도 보다 유족하고 흥겨워 질것이다. 그때엔 간고했던 오늘을 아름다운 추억속에 돌이켜 보게 되리라....

유봉은 만일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안해가 무엇을 낳겠는가 궁리해 보았어요.》

《그래 어떨것 같아.》

《글쎄 아들이면 좋겠는데.》

《딸을 키우는 재미가 아기자기하다네.》

《그래도 아들이 아들이지요 뭐.》

그들은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웃었다.

빨간 담배불이 반디불마냥 반짝거렸다. 그들은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형님.》 만일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왜 그러나?》

《어쩐지 누님이 걱정돼요. 비바람도 막기 어려운 그런데서 어떻게 사는지. 형님은 너무해요. 그전엔 텔레비존도 식량과 바꾸어다 나누어 주었지. 집이고 가산이고 마음 좋게 척척 내놓으니 참.》

유봉은 가슴이 뭉클해 났다.

《만일이, 내 솔직히 말하지만 난 누구보다 마음이 좋고 재산이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야.》

장군님만 믿으면 꼭 잘 살 날이 온다는 한생각뿐이지. 집도 텔레비존도 모든게 다 생길거네. 그날을 앞당기자고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오늘의 난국을 헤쳐 달리는 승용차에서 쪽잠에 드시고 때로는 간소한 야전식사마저 건느시며 최전연초소와 공장과 농촌의 험한 길을 이어 가시지 않나. 장군님의 로고에 비하면 우리의 고생이 다 뭐겠나. 우리 어서 막장을 복구하고 석탄을 뽕뽕 캐내자구.》

《알겠어요. 형님!》

이윽고 유봉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타를 꺼내 마른 탄덩이우에 올려 놓았다.

《그건 왜 그래요?》

《죽탄속에 들어 가면 다 젖을게 아니야. 이제물목을 터치고 나와 기분 좋게 한대씩 퍼우자구.》

작업공구를 찾아 든 그들은 죽탄속에 들어 섰다. 어떤데는 죽탄이 키를 넘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

지기도 했다. 물에 씻긴 탄벽이 철썩철썩 무너져 내려왔다. 어느 순간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위험이 덮쳐들지 몰랐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는 두려울것이란 없었다.

간난신고끝에 죽탄속을 헤치고 물통이 터진 곳까지 들어 갔다. 이제 폭약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진한 후 발파를 해야 한다.

안전등을 비쳐 탄벽과 동발들을 잔잔히 비쳐 보고 난 유봉은 죽탄에 잠기지 않은 결굴을 찾아 보고 그리로 올라 섰다. 차고 들어 온 도끼로 썰기를 깎았다. 동발들을 안전하게 보강한 다음 정대를 잡았다. 만일이는 함마를 쳐들었다.

쨍-쨍- 어무진 함마질소리가 막장안에 메아리쳤다. 팡방울이 흘러 들어 눈이 쓰렸으나 닦을새도 없다. 머리를 흔들며 땀을 털어 버리며 수굴작업을 계속했다.

한초 또 한초... 긴장한 시간이 사슬처럼 그들이 몸을 조이였다. 갑자기 탕- 하고 동발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탄벽이 와락 허물어 져 내려왔다.

피할새도 없었다. 그들은 삼시에 석탄속에 파묻혔다. 다행히 반나마 파묻혔던 만일이는 얼른 탄을 헤치고 나왔으나 유봉은 움직일수가 없었다. 갱바닥에 넘어 지면서 얼기설기 겹쌓여 탄속에 묻힌 동발짚에 발목이 끼운것이다. 만일이가 달려들었다. 동발을 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으나 탄속에 깊숙이 박힌 동발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발목이 끊어 질듯 한 아픔속에서도 유봉은 재빨리 막장상태를 살펴 보았다. 가슴이 섬찟했다. 머리칼이 곤두섰다. 이제 몇초후이면 어마어마한 2차지압이 몰려 와 상상 못할 일이 벌어 질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벌써 그 참사를 예고하듯 탄가루가 술술 흘러 내린다.

유봉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패하라. 2차지압이 온다.》

그러나 만일이는 유봉의 끼운 발을 빼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아무리 고향쳐도 한가지다. 이러다가 다 죽은다.

문득 바닥에 떨어 저 있는 도끼날이 안전등불빛에 번뜩인다. 그렇다, 만일이를 구원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빨리 발목을 자르고 이 위험을 피해야 한다.

유봉은 사납게 고향쳤다.

《야, 죽자구 그래. 갱을 살려야 할게 아니야. 저 도끼로 내 발목을 잘라라.》

《안돼요.》

만일이는 맞받아 고향치며 완강하게 머리를 흔든다. 자기 머리우에 초를 다루며 다가오는 위험도 아랑곳 없었다. 손으로 동발밑을 파헤친다. 손끝에서 피가 흘러 동발을 검붉게 물들인다.

그 어떤 녀인에게서도 느껴 보지 못했던 격렬한

사랑이 유봉의 심장에서 번개쳤다.

(아! 만일이!)

다음순간 유봉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입귀로 피가 흘렀다. 팔을 뻗쳐 도끼를 끌어 잡았다. 발목을 견주고 도끼를 쳐들었다. 큰 숨을 몰아 쉬고 힘껏 내리쳤다.

그 순간 누구의 손인가 내려 치는 도끼자루를 억센 힘으로 덥석 붙잡았다. 유봉은 머리를 들었다.

중대장이었다. 뒤이어 중대탄부들이 달려 왔다.

《아, 동무들!》

탄부들은 힘을 합쳐 동발을 들어 올렸다. 발을 빼냈다. 그 순간 탄가루가 부실부실 떨어 졌다. 탄벽이 흠썰흠썰 움직인다.

《피하라!》

유봉은 일어 서며 고향을 내질렀다. 옆에 있던 탄부들을 와락 밀어 제켰다. 그 순간 2차지압이 오며 탄벽이 재차 무너져 내려왔다. 유봉은 떨어 지는 탄덩어리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이것은 아무리 날랜 사람이라 해도 담배 한대조차 말수 없는 극히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유봉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중대장이 유봉을 와락 끌어 안았다.

《내가 한발 늦어서 비서동무가...》

갱밖으로 나갔던 중대장은 세포비서와 만일이가 안보이자 무슨 일이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탄부들과 함께 급히 달려 왔던것이다.

유봉은 자기를 둘러 싸고 눈물이 글썽해 있는 탄부들을 둘러 보았다.

《왜... 이려고들 있소... 일을 합시다. 일을...》

탄부들은 일할 생각보다도 유봉을 후송하려고 서둘렀다. 유봉은 자기를 업으려고 둘러 댈 누군가의 등을 떠밀었다. 발치에 나딩구는 정대를 거머쥐자 비틀거리며 일어 섰다.

《어서... 발파구멍을...》

웁은 갈가리 찢기웠고 입귀엔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그의 모습은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불 타는 고지를 넘어 서는 인민군용사와 같았다.

한순간 승엄한 정적이 흘렀다.

마지막 한줄까지 다 타서 이 땅에 빛과 열을 주는 고열탄처럼 자기를 깡그리 비쳐서라도 기어이 막장을 살려 내려는 불굴의 탄부! 유봉의 강렬한 심장의 불꽃이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중대장이 함마를 틀어 쥐고 일어 섰다.

《동무들, 막장으로!》

쨍-쨍- 함마질소리가 막장을 흔들었다.

흘러 내리는 팡방울이 죽탄과 범벽이 되여 누가 누구인지 알아 보기도 어려웠다. 허기져 비틀거리면서도 함마와 정대를 놓지 않았다. 5중대탄부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는 소문이 온 탄광에 퍼졌다.

지원자들이 달려 왔다. 무엇인가 이고 든 녀인들이 나타났다. 중대가족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 온 것이다.

그들속에서 자기 안해와 몸이 뚱뚱한 만일이 처의 모습을 알아 본 유봉은 가슴이 뜨거웠으나 조용히 안해를 나무랐다.

《여보, 막달 잡힌 만일이 안해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하오. 그러다가.》

김옥순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혼자 집에 앉아 있을수 없다면서 기어이 따라 나서는걸 어찌겠나요.》

《그래두 그렇지, 어서 내보내오.》

만일이 안해는 눈물에 그렇게서 돌아 섰다.

녀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힘을 돌군 탄부들은 다시 일손을 잡았다.

힘찬 함마질소리, 삽질소리, 다급히 찾고 부르는 소리, 막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문득 어디선가 녀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놀라서 안전등을 비쳤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착 달라붙은 만일이 안해였다.

《아니, 아직도 나가지 않았소?》

《저... 일손을 돕고 싶어서...》

아마도 갱박으로 나가는척 하다가 발이 떨어 지지 않아 몰래 지원자들 틈에 끼워 든 모양이다.

한편 중대장이 지령실로 뛰어 가 전화기를 잡았다. 병원에 긴급전화를 걸었다.

잠시후 의사와 간호원들이 담가와 구급가방을 메고 달려 왔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 보고 난 녀의사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어렸다.

《잡자기 힘을 쓰는통에 해산의 진통이 앞당겨졌군요. 어서 병원으로.》

간호원들이 만일이 안해를 담가에 눕히려 하자 그는 담가채를 꼭 틀어 잡고 몸을 비틀었다. 이마에서 땀이 물처럼 흐른다. 녀의사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안되겠어요. 당장 해산할것 같아요. 빨리 진료초소로 가요.》

만일이 안해를 적십자표식이 붙어 있는 갱《진료초소》로 후송하여 깨끗한 침대에 눕혔다. 만약 경우를 생각하고 준비해 온 의료기구들을 차려 놓았다. 안전등불빛이 희미한 《진료초소》안을 살펴보면 녀의사가 근심스레 말했다.

《조명이 밝아야겠는데.》

탄부들은 저마다 안전등을 내놓았다. 잠간사이여라 문개의 안전등이 모아 졌다.

녀의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탄부들의 눈과 같은 안전등을 죄다 내놓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해불을 켜면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

가?》

안전등불빛이 환한 《진료초소》안을 돌아 본 녀의사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발과준비나 잘해 주세요. 해산방조로 안 다녀 본곳이 없지만 이렇게 막장에서 해보긴 처음이군요!》

《진료초소》의 출입문은 닫졌다. 흰 문보를 찬창가에서 밝은 불빛이 틀러 나왔다.

탄부들은 만족한 웃음을 짓고 돌아 섰다. 입었던 작업복들을 벗어 길다란 쇠꼬챙이에 둘둘 감아 폐유를 바른후 불을 달았다. 그 여러개의 해불이 활활 타올랐다. 다시 함마질소리가 힘차게 들렸다.

갱《진료초소》에서는 의사들과 녀인들이 해산방조를 하느라고 분주했다.

드디어 요란한 발과소리가 막장을 뒤흔들었다.

《물이 줄어 든다!》 하는 웨침소리가 막장에 메아리쳤다. 탄부들은 기쁨에 겨워 얼싸 안고 돌아갔다.

이때 갱《진료초소》에서도 고고성이 터져 나갔다. 막장속에 생의 활력을 주며 맑고 우렁찬 고고성이 메아리쳤다.

수천길 깊은 지하막장속에서 아직 그 누구도 들어 본 일이 없는 갓난아이의 고고성은 이상야릇한 흥분을 안겨 주었다. 탄부들은 난생처음 듣는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하는듯 신비롭고 황홀한 감정에 잠겨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마치도 막장이 자기의 거대한 넋을 새 생명의 고고성에 불어 넣어 다시 탄생한 기쁨의 환희를 터쳐 놓는것 같았다.

《야, 멋 있는데!》

《만일이가 이제 아버지가 됐구만. 하하.》

이때 《진료초소》의 출입문이 열렸다.

청진기를 목에 건 녀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을 훑치며 상곳이 웃었다.

《딸이에요.》

《어참, 탄부를 낳을게지.》

한옆에 서 있던 만일이가 투덜거리자 중대장이 꺾꺾 웃으며 그의 가슴을 톡 쳤다.

《만딸은 금 주고도 못 사. 아 미래의 전차운전공은 뭐 탄부가 아닌가!》

탄부들은 환성을 지르며 만일이를 둘러 썼다.

《축하하네, 만일이!》

《종구만. 막장도 살려 내고 21세기의 전차운전공도 태어났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나-》

《첫돌상도 막장에서 차려야지!》

만일이는 머리를 굽적거렸다.

《그래도 하나 달구 나와야 하는건데...》

와- 웃음이 터졌다. 만일이를 부둥켜 안고 환희에 넘쳐 떠들썩 했다. 막장이 큰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유봉이 만일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안해가 막장에서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 말라구.》

만일이는 눈을 슴뻑거렸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전 집이 내 생활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안해가 기다리는 집을 가지는것이. 그런 단란한 집에서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이 나의 제일 큰 소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장도 살려 내고 동지들의 도움과 축복속에서 아이가 생기고 보니 생각이 깊어 집니다. 친형제와 같은 중대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이 막장을 떠나서는 탄부의 그 어떤 안식도 행복도 아름다운 미래도 없다는것을 난 오늘 뜨겁게 느꼈어요!》

유봉은 가슴이 뜨거웠다.

고난과 시련을 헤쳐 나가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 막장을 지켜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칠 굳센 각오가 되어 있는 몰라 보게 성장한 만일이를 찾아 보게 되는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가웠다.

유봉은 흐뭇한 눈길로 막장을 둘러 보았다.

수천수백톤의 석탄을 태워 전기를 일으키는 화력 발전소들이며 세찬 연기 뿜어 올리는 공장과 온 나라 도시와 농촌들의 자그마한 부엌아궁이에까지 불을 주는 이 막장은 땅우의 행복한 생활의 발원지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탄은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탄부들은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말아들이라고 불러 주시지 않았는가.

그 크나큰 믿음과 신임에 보답하고 말아들 구실을 하자고 탄부들은 스스로 이 막장을 단 하루도 비우지 않는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새 생명의 고고성까지 터치며 지켜 내는 막장이야말로 탄부의 집이고 탄부의 생활이고 탄부들의 찬란한 미래이다.

이처럼 귀중한 막장에서 석탄을- 탄부의 위대한 행복을 캐며 한생을 바쳐 가리라는 강렬한 의지가 고열탄처럼 뜨겁게 심장속에 타올랐다.

유봉은 기쁨에 겨워 떠들썩한 탄부들에게 소리쳤다.

《동무들, 한시바삐 막장의 원상복구를 끝내는것으로 우리 미래의 앞날을 축복해 줍시다!》

고고성이 울려 왔다.

식량이 떨어져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막장이 물에 잠기고 갱이 무너져 내려도 폭약과 동발이 모자라 폭팽이로 탄을 캐면서도 굴할줄 모르는 탄부들에 대한 레찬의 탄성이었다.

이 세상 천지에 나라도 많고 화려한 집이 많아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 융감하고 아름다운 탄부들의 위훈과 미덕으로 빛나는 막장에서 태어난것이 그처럼 자랑스럽고 그처럼 기쁘고 그처럼 행복한 일이 더는 없다는 환희에 넘친 거대한

웨 침이었다.

새 생명의 고고성은 막장속에 퍼졌다. 아름다운 미래에로 탄부들을 부르면서...

×

전차의 푸른 섬광이 번쩍이는 저녁이다.

원상복구한 막장에서 첫탄을 캐여 탄차마다 넘겨 나게 실어 보낸 유봉은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일주일만에 걷는 퇴근길이다.

이제 집으로 가면 얼벌벌한 땀고추를 뒀장에 꼭꼭 찍어 저녁을 먹으리라. 이마에 내뿜힌 땀을 씻고 담배를 피운뒤 허리를 쭉 펴고 누워 만팔 모란이가 부르는 노래까지 듣고 나면 며칠동안 막장에서 물리고 영킨 피로가 일시에 풀릴것이다. 유봉의 걸음은 샷갓봉중턱에 떠흐르는 저녁안개마냥 가벼웠다.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집마당에 들어 서던 유봉은 말뚝같이 굳어 졌다. 자기 눈을 의심했다.

비닐박막을 씌웠던 지붕에는 기와가 번듯이 썩어져 있고 벽체미장도 깨끗이 해놓았으며 문창들도 달려 있었던것이다. 집이 완공되어 있었다.

유봉은 혹시 집을 헛살리지 않았나 해서 두리번거렸다. 이때 부엌문결에 새로 지은 개우리에서 검은둥이가 달려 나와 쩡쨍쨍 매달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 선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알뜰하게 꾸려 진 부엌에는 번쩍거리는 새 냄가마들이 걸려 있었고 식장에는 여러가지 그릇들이 차곡차곡 얹혀져 있다. 수수한 벽지를 바른 방 안에는 번쩍거리는 가구들이 들어 앉았다.

《여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유봉은 가방을 받아 드는 안해에게 물었다.

《글쎄 당신이 막장에 나가 있는 동안 탄광당비서 동지랑 온 탄광마을사람들이 도와 주었어요!》

《!...》

《어떤 집들에선 터밭에서 첫물로 탄 땀강냉이와 남새까지.》

깊은 감동에 잠겨 그 모든것을 돌아 보고 난 유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기만 했다.

만일이에게 집을 주고 나서 가뻔던 마음이 또다시 무거운 짐을 걸머진것처럼 무겁고 불안스러워졌다. 자기가 받는것보다 주는것을 더 마음 편해 하는 그였던것이다.

유봉은 송진내 향기로운 가구들을 만져 보았다.

《새것이 좋건 좋구만. 여보, 이걸 만일이한테주는게 어떻소. 그리고...》

김옥순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향란이 아버지가 그럴줄 알았어요. 차라리 집을 도루 물리는게 좋겠군요.》

《자기가 무슨 장기족인가 하면서 펄쩍 펄쩍요.

하긴 가구도 반자고 안할걸.》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던 유봉이 무릎을 탁 쳤다.

《가만, 우리 이렇게 하는게 어떻소. 부모없이 자란 탄부들을 또 데려다 함께 살지요. 그리고 장가도 보내주어야지. 그때 또 이 집과 함께 가구들도 주잔 말이지. 허허.》

유봉은 무슨 큰 발견이나 한것처럼 기뻐 했다.

《참, 당신은 그저.》

정겨운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던 옥순이 무엇이 생각난듯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살림집을 많이 짓는대요!》

《그건 무슨 소리요?》

《저녁에 당비서 동질 만났댔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시기 제일 수고하는것이 탄부들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탄광을 지원할데 대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대요. 우리 탄광에도 수백명의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시고 살림집을 지으라고 세멘트와 목재까지 보내주시대요. 래일 결기모임을 한다면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리르는 유봉의 눈에 밝은 물기가 고여 올랐다.

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품, 위대한 보금자리에 안겨 사는것인가!

유봉은 다시 안전등을 찾아 들었다.

더는 집에 앉아 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오직 석탄을 더많이 캐는것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유봉은 다는 모르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석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그를 제2의천리마대진군운동의 앞장에 선 시대의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 주시는 영광의 시각이 동 트는 새벽처럼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다만 미더운 중대탄부들과 함께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캐겠다는 마음이 급하여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칠거리기도 하면서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글 발

허일

해 저문 저녁
하루일 넘쳐 한 공민의 긍지로
내 가슴 펴고
퇴근길에 나설 때면

정 깊은 어머니의 눈빛이런듯
멀리서도 보이는 글발 있어라
내 사는 행복의 창가 지붕우에서
쉽없이 번쩍이는 네온등글발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날마다 우리르는 글발이건만
내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한자 또 한자 가슴에 새길수록
조국의 운명, 민족의 존엄 지키시려
바람 세찬 최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그 영상 안겨 와...

아, 저 글발 지붕처럼 엮고 살기에
이 나라 거리와 마을,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웃음 불빛되어 흐르고
아이들의 학교길엔 노래소리 높고

일터마다 기적의 열풍 뜨거운것 아니냐

장군님 펼치신 선군이 있어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선군이 있어
우리의 하늘은 그리도 맑고
우리의 대지는 옥토로 전변되고
나의 행복, 나의 미래도 꽃 피나는것 아니냐

진정 저 글발
우리의 머리우에 빛나 빛나
자연의 밤은 와도
우리엔겐 어둠이 없어라

하거니
하늘가에 빛나는 글발이여
너는 그저 평범한 글발이 아니다
천만군민이 받들어 올리고
내 조국의 운명과 번영이 담보된
태양의 빛발과 같은 불멸의 글발
오, 내 조국의 미래가
저 글발속에 숨 쉬고 있어라

자기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에서

-김송남시집 《격류속에서》를 두고-

최희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시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한 시의 서정세계는 생활에 대한 시인의 독창적인 체험세계의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인들은 생활을 체험할 때 시적으로 그것도 자기 식으로 체험한다. 그런 까닭에 개성이 뚜렷한 시의 서정세계에는 시인의 독창적인 체험세계가 비껴 있다고 보는것이다.

시집 《격류속에서》를 통해 시인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것은 아마 자기를 시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30여년을 하루같이 애 써온 그의 창작적수련과 수고가 성공을 보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는 시집을 읽으면서 시인의 《자서전》을 알게 되었다. 류다른 취미를 가지고 내 나뉠으로 시인의 《자서전》을 써보았다.

...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경공업전문학교를 마친 뒤 기수자격증을 안고 어느 한 작은 식료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간장, 된장을 만들고 과일술을 뽑는 일을 했었다. 그는 동흥산기슭의 호련천가에서 늘 사색하기를 즐겼고 정향꽃향이 그윽히 풍기는 파아란 잔디밭에서 때로는 처녀와 함께 노동의 땀을 식히며 회망찬 래일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시인은 그 시절에 서정시 《돌아라 제국기야》, 《조국의 저녁에》, 《나의 일터여》를 비롯한 여러 편의 시를 썼다. 노동속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시를 배우던 그는 평양 룡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래일의 시인이 될 포부를 안고 문학공부에 전념하였다. 졸업후 20대에 시를 쓰는 사람으로 되었고 혁명가극을 창조하는 영예로는 문예인 대오에서 시인으로 성장했다.

그에겐 다심한 어머니가 있었다. 직장에서 일이 바빠 집에 못 갈적엔 어머니는 저녁밥을 싸들고 나오기도 했고 점심참이면 손자를 업고 현관까지 나와 아들을 기다리곤 하였다. 어머니는 머느리 일손을 덜어 돈보기를 쓰고 아들의 옷 목달개를 달고 바지에 다림발도 세워 주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으러 가던 날엔 아들 몰래 마련해 두었던 작은 붉은 수건을 말없이 쥐여 주던 사려 깊은 어머니였다.

그에겐 살뜰한 안해가 있었다. 시부모공대에, 남

편과 자식들 뒤바라지에 바빴고 남편이 쓰는 시를 중히 여겨 취재차로 멀리 떠날 때엔 갖가지 음식을 구미에 맞게 꾸려 주던 안해였다.

안해는 비록 소문나 영웅은 아니였어도 일터와 가정에 다 바친 그 사랑과 조국을 생각한 그 진정을 헤아려 나라에서 안겨 준 공로메달 하나를 최상의 영광으로 알고 받아 안은 성실하고도 소박한 안해였다. 그에겐 대학으로 간 맏아들과 군대에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다...

물론 시집에는 이런 생활경위나 학력관계가 년도 차례로 씌여 진것은 없다.

그의 흘러 간 생활의 토막들, 그의 생활감정이 짙게 스며들 시의 구체적세부들을 하나하나 골라 꿰고 엮어 본즉 하나의 《자서전》이 된것이다.

물론 모든 시집들에 이러한 《자서전》이 비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시집에는 이러한 《자서전》을 엿볼수 있을만큼 때 시편마다에 시인이 직접 체험한 자기 생활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생활의 터발에서만 자기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한 시의 서정세계가 펼쳐 질수 있는것이다.

이 글의 첫 머리에 제나름의 시인의 《자서전》을 《소개》한것은 그때문이었다.

시인들이 한생을 시를 써오다가 세상에 시집을 내놓을 때 거기에 자기의 철학적세계관, 인생관, 미학관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인이 체험한 진실한 생활의 세계, 독특한 시의 세계를 펼쳐 놓지 못하였다면 감히 시집을 내놓을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할것이다.

시집 《격류속에서》는 시인의 인간적생활경위 뿐아니라 시인의 창작생애가 비껴 있다. 창작적생애란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 탐구와 사색의 생애이며 생활의 진리, 생활의 철학을 예술형상으로 발견해 내는 창조적로동의 생애일것이다. 이러한 창조적로동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에서 진행된다. 시인은 그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에 시의 종자를 심고 꽃을 피워 열매를 수확한다.

이 시집에는 자기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을 열성스레 가꾸어 온 시인의 진한 땀이 스며들고 있고 인간과 생활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온 뜨거운 열과 정이 어려 있으며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감정을 자기의 독특한 음식과 음향으로 읊조린 시인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동홍산릉선에 해 솟아 오면》 호련천을 노래하며 굽이치는 그 유정한 강가에 《가로수 푸른》 공장구내, 《간장, 된장 피여 나는 구수한 냄새》와 《과일술 익는 상긋한 향기속에》 함께 익어 가는 자기의 기쁨이 있어 바로 그곳에서 로동청년이었던 시인의 꿈은 그리도 희망차고 젊은 시절의 삶도 그처럼 보람찼던 것이다.

이것은 서정시 《나의 일터여》에서 노래된 그의 생활인바 바로 이 생활의 터밭에서 그는 한껏 땀 흘리고 사와의 시원한 물에 몸 말길 때에 로동이 얼마나 즐거웠는가를 가슴뿌듯이 느꼈으며 애어린 처녀도 어머니되고 구레나룻아바이도 다심한 주부로 사는것을 보았으며 온 나라 식탁을 다 맡은 그 마음들속엔 쇠물을 녹이는 뜨거움도 있음을 느꼈다. 하기에 시인은 《너를 떠나 나에겐》 그 어떤 노래도 노래의 꿈도 없었노라고, 《나의 삶은 네가 선 땅에 뿌리 내렸고》, 《나의 래일도 너의 지붕 저너머 밝아 온다!》고 락판에 넘쳐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시인이 서정시 《나의 일터여》에서 그 일터를 《사랑하노라》 한것은 로동의 희열과 보람을 느꼈던 그런 직업적인 로동의 일터만을 사랑하노라 한것은 아닌것이다. 그것은 그가 시인을 갈망하던 첫 시기부터 자기시의 터밭을 가지려 하였으며 애써 가꾸려 하였음을 보여 준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시집에 들어 있는 《로동수첩》편의 서정시들은 시인이 《나의 일터여》라고 이름 지어 부른 그 생활의 터밭, 자기 시의 터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인것이다. 물론 이 시절의 시련들에는 체험한 생활을 꾸밈없이 노래하였으나 아직은 예리한 시적감각으로 생활을 감수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의 진리, 생활의 철학을 사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약점들이 있다. 그러나 자기 시의 터밭을 기를지워 보다 알찬 열매를 거두리라는 시인의 래일을 내다볼수 있었다.

시인은 서정시 《나의 일터여》의 약점을 그때로부터 30여년이 흘러간 지난 세기 90년대에 와서 쓴 서정시 《나와 옛 작은 공장》에서 보충하고 있다.

시인은 자기 첫 로동생활이 시작되고 시창작의 첫 걸음마를 떤던 그 못 잊을 호련천가의 식료공장을 수십년만에 다시 찾았을 때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긴다.

그 추억의 세계는 첫 서정시 《나의 일터여》의 시세계와는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일터여》에서의 느낌은 호련천가의 가로수 푸른 공장구내와 된장이 피여 나는 냄새와 과일술의 그 상긋한 향기속에 자기의 기쁨이 있어 청춘의 꿈은 희망차고 청춘의 삶도 보람찬것이라는 시세계였다. 하지만 서정시 《나의 옛 작은 공장》에서 그는 놀라운 기적은 없었어도 소박한 마음들이 당의 뜻대로 《삶의 의미》를 받들어 올리던 공장구내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것을 아직은 모르던 그 시절에 《땀방울의 짠맛을》 제일 먼저 알게 해준 곳으로, 《한생내가 숨 쉴 공기》를 준곳으로, 《흘리는 땀이 보석

임》을 새겨 준 곳으로,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움터난 터밭》으로, 《나의 시 또한》 거기에 뿌리를 든곳으로 보고 느끼는것이다.

이 두편의 시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시인의 깊은 시적체험과 강렬한 주장이 바로 그가 노래했듯이 자기의 젊음, 자기의 사랑을 움 티워 준 터밭, 자기 시 또한 그 터밭에 뿌리를 둔 그 시의 터밭에서부터 가꾼 열매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그가 시에서는 딸기즙이 피는 그 시큼한 냄새를 즐겨 노래한것은 자기 생활의 터밭에서 느낀 창조적 로동의 맛 때문이며 그 터밭에서 한생을 숨쉬며 살 공기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자기의 생과 시의 숨결을 간직한 데 대한 고마움때문일것이다.

그러한 시인이였기에 그 로동시절에 그는 로동계급들속에서 열과 정과 불 타는 녀으로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하는 평범하고도 소박한 인간들의 땀어 번지는 충정의 열도를 뜨겁게 받아 안고 성장한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터밭, 시의 터밭에서 개성적인 시인으로 성장한다.

시집 《격류속에서》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시인이 그 어떤 생활령역에서 그 어떤 주제의 시를 쓰던지 간에 시인의 본래의 음색과 음향으로 노래하는 창작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시집의 《청년돌격대의 기발》편에 들어 있는 《청년돌격대의 기발》, 시초 《뜨거운 지심》, 단상시초 《깨우치노라》, 정론시초 《사회주의찬가》들의 서정적주인공들은 광부 탄부, 농장원, 인민군병사, 건설자, 처녀들임에도 하나같이 시인의 시야에서 생활감정이 펼쳐졌으며 시의 서정세계가 주정화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창작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주정화와 일반화의 합법칙적인 예술형상과정이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직접적인 생활체험을 노래한 서정시들과 다른 생활령역에서 선택한 주제의 작품들에서 주정화하여 노래한 시편들간의 차이를 갈라 보기 어려울만큼 시의 서정세계를 시인자신의 감정정서로 진하게 그려 내고 있다. 광부나 탄부, 농장원이나 비료생산자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시편들인 경우에도 서정적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시인의 본래의 《음색》과 《음향》 그대로 들려 오는 까닭은 시인이 자기의 로동생활시절부터 숙련숙달시켜 온 생활적인 언어를 훌륭히 시화한 시어, 시구들이 진한 향토적색채를 띠고 있기때문이다.

시집 《격류속에서》에는 또한 인간 시인으로서의 고상한 도덕률리의 순결성, 열과 정과 의리로 불타는 시인의 뜨거운 감정정서가 짙게 흐르고 있다.

시집에는 시인은 시인이기에 앞서 자기를 낳아 길러 준 어머니의 효도 깊은 아들로, 미덥고 인정많은 남편으로, 사려 깊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이웃과 벗들에게 화목다정한 인간으로 살아 온 그의 인간

적면모가 방불하게 그려져 있다.

《너성은 꽃이라네》편에 들어 있는 가사 《너성은 꽃이라네》, 런시 《사랑은 추억이 아니다》, 시초 《나의 어머니》와 같은 시편들에서는 인간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생존력, 생활력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노래하였다.

진정없이 줄수 없는것이 사랑이요, 헌신 없이는 받을수 없는것 또한 사랑이다. 진정만이 사랑을 얻을수 있고 헌신 역시 그 어떤 재부보다 값진것이어서 사랑을 얻을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인간에 대한 진정과 헌신이 인간사랑의 생존력으로 되는것이다. 시집에 이러한 진정과 헌신이 우리 시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키고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결합시키는 생존력, 생활력으로 작용하며 하나의 뉴대로 연결되게 되는가 하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있다.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안해, 이웃과 벗들사이의 관계속에서 뜻 깊은 의미로 새롭게 감득하게 하는 시편들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당과 조국, 나라와 인민과 혈연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절절한 감정으로, 강렬한 열도로, 숭고한 지성의 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고결한 어머니를 눈물 젖어 추억하며 시인은 자기에게 물려 주던 달디단 그 젖은 방울방울 다 기우려 주신 어머니의 삶이 아니던가고 하였다.

어릴적 학교 갈 때에는 착실히 공부 잘하라고, 로동의 나날에는 맡겨 진 일 남보다 더 잘하라고 일러 주었으며 남보다 더 우리 당을 억척같이 받들라고 당부하던 그 어머니. 시인은 오늘도 자기가 조선로동당원증을 받으며 구역당으로 가던 날아침 자기마한 붉은 수건을 맏없이 내밀어 주던속 깊은것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를 것처럼 믿어 주던 어머니의 뜻대로 살며 일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본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두고 가신것 중에 가장 귀중한것이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기의 심장이라고 되뇌인다. 당을 위해 바쳐 온 하루하루를 두고, 이웃과 동지와 나라를 위해 기울여 온 자기의 마음을 두고 꿈에라도 노여움을 끼치면 다시는 찾아 오지 않을가봐 꿈 아닌 생시에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늘 자신에게 없는 채찍으로 느끼며 사는 시인이었다.

이처럼 시초 《나의 어머니》의 구절구절에 스며있는 시인이 뜨거운 마음은 어머니와 아들간에 맺어 진 진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져 인간을 하나의 사상과 뜻,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키고 인생을 당과 조국, 나라와 인민과 혈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시인의 이러한 서정세계는 런시 《사랑은 추억이 아니다》에 들어 있는 《그대는 아름다웠지》, 《그날의 손길》, 《공로메달 하나에》, 《당원증을 받던 날》, 《사랑은 추억이 아니다》와 같은 시편들에서도 그대로 펼쳐져 있다.

《너성은 꽃이라네》편의 서정시 《해빛 밝은 거리로》, 《들길에서》, 《고운 마음》, 《두 불빛》 들에는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랑관, 숭고한 도덕률리의식이 짙은 향토적서정과 열렬하고 다정다감한 시적정서로 인상 깊게 노래되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안해와 직장의 너성들, 고향 처녀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풍모에서 받아 안은 시인의 사상감정에는 인간사랑, 인간도덕률리의 순결성이 깊이 느껴지며 시인이 우리 시대 너성들을 마침내는 가정에는 생활의 꽃으로, 사회에는 행복의 꽃으로, 나라의 꽃으로 보고 찬양하는 인간사랑-너성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있다.

시인은 이처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 도덕률리를 노래하는 경우에도 자기 가정, 자기 직장 너성들과 청년들의 구체적생활에서 시를 찾고 그것을 자기의 뜨거운 주정으로 끓이고려과정제시켜 일반화하여 독특한 시적음색과 음향으로 노래하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인이 자기의 생활의 터밭, 시의 터밭에서 시의 열매를 가꾸려 하는 성실한 작가적 자세와 창작적본세를 가지고 있다는 시인적면모가 있다.

명백히 말하고 싶은것은 시인들에게 만약 자기 생활의 터밭, 시의 터밭이 없거나 있더라도 애써 가꾸어 결군 기쁨진 토양이 아니라면 아까운 시의 종자를 차라리 심지부터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시집들에 시인의 사진은 붙여있지 않아도 만약 시인의 이름조차 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인이 결군 시의 터밭에서 풍기는 구수하거나 향기롭거나 달디단것이 느껴 지고 격차거나 류창하거나 살뜰하거나 다정다감한 시인의 음색과 음량이 뚜렷해 졌으면 한다.

시인의 시적음색과 음향은 마치 방송을 통하여 듣게 되는 가수의 목소리로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수 있듯이 그러한 고유의 특색 있는 시적음색과 음향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 시인의 시집을 읽고 내 나름으로 그의 《자서전》을 써보면서 알게 된 시인의 생활이었고 새롭게 듣게 된 목소리였고 다시 보게 된 시인의 얼굴이었다.

×

나는 시집 《격류속에서》의 머리시 《노래여, 나의 이 노래》를 읽으면서 어찌하여 시인이 자기 시집을 《격류속에서》라고 이름하였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시집의 첫 머리에 앉힌 《영원한 영광을》편의 시들인 《사랑의 한생》, 《꽃이여》, 《어버이생각》, 《영원한 영광을》과 같은 시들을 시인이 무슨 생각으로, 무엇이 아파 썼을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후 시인은 슬픔에 피눈물을 뿌리며 수령님 생전에 못다 부른 송가,

자기 한생의 충정과 맹세를 아뢰어 못드린 그 노래들을 《왜 좀 더 일찍 마련하지》 못했던가를 가슴 아프게 자책하였다. 하기에 시인은 눈물 젖은 가슴을 뜯으며 《그리움 사무치는/ 아버지수령님 생각에》, 자기의 심장을 소리쳐 매질하며 자기의 삶을 《더욱더 격류하자고!》, 《수령님 바라시던 그 한길에/ 장군님 따르는 그 한길에/ 서두르며 서두르며 격류하자고!》, 소박할지라도 《내 노래의 작은 이책》을 뒤늦게나마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인이었기에 《넋의 송가》 편의 시들인 《넋의 송가》, 《금수산기념공원을 우러러》, 《인민이 드리는 새해의 인사》, 《영광을 드리노라 어머니 우리 당에》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단 한분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 문명을 다 맡기고 장군님의 안녕만을 삼가 바라며 축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진정 아버지를 잃으면 어머니의 귀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고 빨리도 철이 드는것이 자식에게 《작은 물방울 같아》, 《쉽게 꺼질수도 있었던》 시인의 삶을 《혁명을 떠시고 도도히 굶이치는》, 《이 세월이 벅찬 대하의 흐름속에/ 숨결을 더웁혀》 주었으며, 대하에 비쳐 보면 물방울 같은 자기를 혁명을 싣고 거세차게 굶이쳐 흐르는 생활의 격류속에서 《시의 문법과/ 삶의 궤도가 서로 다른것이 아님을 깨우쳐/ 행복에 반짝이는 한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로운 수령님께 《삼가 조심히 울리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 진정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참으로 그런 진정, 그런 충정, 피의 맹세가 깃들어 있어 시집 《격류속에서》가 시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소중한 것이었고 독자들과 우리 시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새겨 주는듯 깊은 시집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창작생애가 비껴 있는 시집, 주체의 시문학사에 남기려는 시집들은 마땅히 세기를 두고 삶의 메아리로 울리는 시인의 진정과 독특한 목소리, 세대를 두고 후대들이 추억하며 그려 볼수 있는 시인의 뚜렷한 얼굴-시인적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이 시집의 몇가지 실심을 두고 말하려 한다.

시집에 들어 있는 일부 시편들에는 생활현상과 생활의 본질을 가려 보지 못하고 씌여 진 것이 있음을 찾아 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가르치고 있는바와 같이 작가들은 생활의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가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생활은 시대의 특징, 사회의 본질을 담고 있을 때 전형적인 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시초 《나의 어머니》에 들어 있는 시 《어머니 모습》에서 시인은 생활의 현상과 본질을 잘못 가려본 실책을 범했다고 생각한다.

《아들의 효도/ 다만 나라에 바쳐 지라고》, 《우리 당만을 억척같이 받들라고》 키워 준 어머니의 수고, 그러다가 여한없이 먼저 가신 어머니앞에 깊이 머리 숙이는 시인의 마음 눈물에 젖어 있다.

이런 경우에 시인들은 너나없이 자식들을 위해 한생을 바친 늙으신 어머니를 가슴 저런 마음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감상에 빠지게 되며 그가 쓰는 시적표현들에 감상적인 감정색채가 짙어지게 된다.

물론 생리적현상으로서의 늙음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늙음을 젊었다고 표현할수는 없지만 늙음을 극력 강조하여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의 시에서는 그것이 진하게 그려 졌다.

《나이보다 일찌기/ 머리우에 내렸던 그 흰서리》 《그리도 빨리/ 눈굽을 파고 든 그 주름살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주시며/ 어느새 허리 굽으시고》, 자식들의 《그 뒤바라지에/ 그리도 빨리 걸 늙으시고》...

방점 찍은 부분의 표현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나이보다 일찌기》, 《그리도 빨리》, 《어느새》 내린 흰서리와 눈굽을 파고 든 주름살과 걸 늙음과 굽은 허리는 무엇이 가져다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분명 세월이 가져다 준것만은 아닐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눈굽을 파고 든 주름살과 걸 늙음과 굽은 허리는 자라면서 애를 태운 아들 탓이 아니면 자식을 키우며 바친 어머니의 지성이 가져다준것일 것이다.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나라 잃은 그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가난과 고생속에 살아 온 어머니들의 늙음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무방할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생활의 웃음속에 주름살마저 퍼진다고까지 하는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육체적면모를 파고 든 주름살이나 굽어 든 허리와 같은 표현만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파고 든 주름살이나 굽어 든 허리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닌것이다. 물론 사물의 본질이 현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상과 본질이 결코 같은것은 아니다. 시대적특징과 사회적본질을 반영하지 못한것은 문학작품에서 전형적인것으로 될수없는것이다. 시 《어머니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감정을 전동우의 가사 《어머니생각》에서처럼 《즐거움과 기쁨은 자식들에게》만 주고 《피로움과 아픔은 그 마음속에》 묻고 살아 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 드리면》 《귀밑머리 다시 검어 지실가》 하고 생각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경지로 승화시켰더라도 지금과 같이 감상적인 느낌은 오지 않았을것이다. 다음으로 시

집에 들어 있는 일부 시편들은 그 형태와 종류적 특성에 맞게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찾아 보았다. 그것은 특히 련시와 단상시초(단시초일것이다)를 묶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레하면 련시 《우리의 하루》에 포함된 시들인 《새벽》, 《아침》, 《낮》, 《저녁》, 《하루》는 그 개개의 시편들을 떼어 놓고 보면 독자적성격을 가진 하나의 단상시(단시)들이다. 시 《새벽》은 당 중앙의 불빛아래 밝아 오는 조선의 새벽은 나날이 밝다는 시이며 《아침》은 해살 천만갈래 한빛으로 빛나듯이 마음 천만갈래 한뜻에 불 붙어 발걸음도 합쳐 지는 아침이라는 시이며 《낮》은 자신을 바쳐 자기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시간이 흐른다는 시이며 《저녁》은 즐거운 음향이 들려 오는, 별마저 웃어 주는 조국의 고마운 저녁이라는 시이며 《하루》는 한송이 꽃을 피우고 짧은 하나의 자옥을 남기기에 하루를 어찌 길다하며 한 찰나에도 생을 받고 한순간에도 조국은 힘을 키우기에 결코 하루를 짧다고 할수 없다는 시이다. 실제적으로 련시는 동일한 주제에 이바지하는 여러 시편 이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련결된 시형식이다. 이 련시가 련시에 속하자면 매개 시편들이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 진 하루라는 하나의 주제에 꿰여 진 시간철학의 노래로 되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이 련시의 매개 시편들은 하루를 이루는 시간에 대한 노래라기보다는 《새벽》, 《아침》, 《낮》, 《저녁》, 《하루》들이 가지는 의미를 시적으로 밝혀 낸 단시들인것이다. 그것들은 내용과 주체가 서로 다른 독자적성격을 가진 시들이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내적편관은 없다. 다만 제목들이 하루를 이루는 《시간적단위》를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에

포함된 매개 시편들은 토막생각이나 느낌을 찔막하게 시화한 단상시들이며 그것들을 묶었으니 단상시초(단시초)라 할수 있다.

단상시초 《깨우치노라》에 들어 있는 《쌍으며가리》, 《자책》과 같은 시들은 그것이 교훈시인가 단상시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진채로 단상시초에 묶여 졌다고 본다.

물론 시가작품에서도 감정표현방식이 서로 침투되고 어울리기는 하지만 시가의 기본종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게 된다. 이 시집에서 련시나 단상시초에 《이름》을 정확히 달아 주지 못한것은 매개 시가작품들의 그 종류의 상대적계선을 무시한데서 온것이다.

최근 년간에 우리 시인들속에서 련시, 단상시, 교훈시 등 다양한 종류의 시들을 많이 창작하고있는데 일부 시들은 그 종류적계선이 명백치 않은것으로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시집에는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과 꾸밈이 없이 인간의 사상감정을 시인의 진정과 높은 지성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인들에게 좋은 창작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시집 《격류속에서》는 우리에게 향기롭게 무르익은 《시의 열매》는 시인의 근면한 창작적로동의 땀으로 걸군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에서만 수확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모든 시인들은 선군시대의 작가들 답게 주체시가문학의 화원을 더욱 빛나게, 풍요하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의 터발, 시의 터발을 보다 더 기쁨지게 걸구어 나가야 한다.

작가일화

양보 《철학》

리종순이 어느 창작기관의 주필로 사업할때의 일이다.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된 몇명의 젊은 동무들이 주필방에 들어섰다.

그들의 인사를 받고 난 리종순은 창작사실태와 창작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사회생활의 첫 자옥을 내짚는 동무들에게 참고가 되겠는지 들어 보오.

사과는 네알인데 먹을 사람은 다섯명이 있소. 저마다 한알씩 먹자면 한알이 모자라고 반알씩 쪼개 먹자면 오히려 남게 되지...

이런 땀 누군가 한사람이 열사람이 눈치케지 못하게 슬그머니 빠지면 되오, 이것이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리치라고 보오. 양보 <철학> 이라 할지...》

이것이 그의 생활관이였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중에 그후 험룡한 영화문학들을 많이 쓴 작가는 자기의 영화문학의 대사에 이렇게 쓴것이 있다.

《아버지, 사회에 나가면 무엇부터 배울가요?》

하는 딸의 물음에 《양보하는 법부터 배워라.》

최희건

유고, 빅토르

19세기 프랑스 진보적랑만주의작가.

1802년 2월 26일 프랑스의 지방도시 브장송의 나뽈레옹휘하의 장교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이탈리아와 에스빠냐원정에도 다니며 많은 생활체험을 쌓았으며 부르봉왕조의 적극적인 찬양 자였던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다. 열다섯살때 뮐루즈아카데미아의 현상론문에 입상한 때로부터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 섰다.

초기에는 반동적랑만주의 시인으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820년대 중엽이후시기부터 왕정복고 정치를 반대하는 사회정치운동의 영향과 진보적랑만주의문학집단(쉴라클)과의 접촉을 통해 점차 진보적랑만주의문학으로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그 대표자로 되었다.

1827년에 발표한 희곡 《크롬웰》의 서문은 진보적랑만주의의 선언시로 되었다. 이 시기에 진보적랑만주의 사상을 구현한 시집 《동방시집》, 《내심의 목소리》 등을 내놓았다.

1830년내에는 랑만주의극들을 많이 창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귀족에 대한 반항자를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운 희극 《에르나니》(1830년)는 인민대중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프랑스랑만주의극이 고전주의를 극복한 첫 작품으로 되었다.

1831년에 봉건귀족계급과 그리스도교승려들의 허위와 시선을 폭로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도덕생활을 찬양한 대표적인 역사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을내놓았다.

1840년대에는 창작을 거의 중단하고 부르조아공화주의의 립장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1851년에 나뽈레옹3세의 군사정변과 제2제정수립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18년동안 망명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뽈레옹3세를 규탄한 시집 《징벌》을 비롯하여 서사시 《여러 세기의 전설》,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 《바다의 노동자》 등을 창작하였다.

1870년 제2제정이 붕괴된후 귀국하여 제3부르조아공화국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1870~1871년 프랑스-프로쎌야전쟁때에는 68살의 늙은 몸으로 군복을 입고 전선에 나가 싸웠다.

1871년 파리공문을 목격하였으나 공문의 성격과의의를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여기에 적극 뛰어들지 못하고 방관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시기 프랑스부르조아혁명을 반영한 마지막 장편소설 《93년》을 창작하였다.

유고의 창작은 자본주의에 대한 단죄와 버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특징지어 진다. 말기 작품들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의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유고가 자기 문학에 구현한 사회적진보와 평등, 정의와 인디아주의에 관한 사상은 《제급협조》사상, 《도덕적설교》의 방법으로 사회관계개선이 가능한듯 생각하는 《무저항주의》사상 에 기초한것이었다.》의 방법으로 사회관계개선이 가능한듯 생각하는 《무저항주의》사상 에 기초한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것이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이다.

유고의 작품들은 최하층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부르조아사회의 모순을 폭로 비판하였으며 높은 예술적기교로 보여 준것으로 하여 19세기프랑스와 유럽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 대표작으로 되었으며 프랑스 진보적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유고는 생애의 전 기간 10편의 장편소설, 20권의 시집, 10편의 극작품, 7권의 논문집을 남겼다.

유고는 1885년 5월 22일 여든세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령구는 개선문에 안치하여 인민들의 조의를 받게 한후 6월 1일 판테옹묘지로 옮겨 졌다.

그가 남긴 말

《사람의 위대성이 그의 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것처럼 인민의 위대성은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창검은 꺾을수 있을망정 사상은 꺾을수 없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름다운지 모르나 진보를 위한 예술은 더욱 아름답다.》

《최고의 재판은 량심의 판결이다.》

《너자는 약하다. 허나 어머니는 강하다.》

《생활은 영웅을 낳는 하나의 싸움터이다.》

《빠리보다 웅장한것을 하늘이며 하늘보다도 더 웅장한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문학가는 인민의 일상적인 요구에 무관심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대 만약 돌이라면 자석이 되고 풀이라면 합수초가 되며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여라.》

《종교는 온갖 미신들을 달고 다닌다.》

금강내기바람

-한 관리위원장의 이야기에서-

김청수

1

내가 강송이와 함께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동해의 공벽한 산골인 산정리에 배치 받은것은 역사적인 당대표사회가 있는 직후였다. 당시 당은 국제적으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고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북침전쟁소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던 정세하에서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할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에게는 산정리라는 지명이 몹시 귀에 설었다. 그래서 도 도서관으로 달려 가 1대 5만 지도를 보았다. 산정리를 찾은 순간 나와 송이는 입을 딱 벌렸다. 여기서 통천까지 가자면 하루길이 넘는데 산정리는 통천에서 100리나 더 떨어진 산골에 자리 잡고 있었던것이다. 게다가 그쪽 방향에는 아직 철길도 놓지 않았던 때였다.

《공벽한 산골이군요.》

송이가 락심해서 말했다.

《그래도 바다가가 아니요. 우리 산정땅에서 우리의 청춘과 희망을 맘껏 꽃 피워 보자구.》

내가 주먹을 부르쥐며 열변을 토하자 송이는 나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전...동무만 믿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송이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잘 생긴 처녀는 아니었다. 윤기 흐르는 쌍태머리, 언제 봐야 정기도는 까만 눈동자, 살결이 맑은 가름한 얼굴, 고집스러워 보이는 작은 입...호리호리한 몸매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어딘가 가냘파 보였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사실은 좀 벌나게 맺어 진 사랑이었다. 대학 3학년 겨울방학때 나는 천내탄광에 가서 웅근 한달을 갱에서 보냈었다. 거기서 나는 한 전차운전공처녀와 알게 되었다. 처녀는 대학생 지원자인 나를 위해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영양제식사는 물론 끼니를 건넬세라 자기가 밥을 가지고 왔었다. 매일처럼 빨래를 해주고 어느 날에는 몸이 수척해졌다면서 토끼곰까지 만들어 가지고 갱안으로 찾아 들어 왔었다. 정말 정이 폭폭 드는 처녀였다. 처녀의 정성에 감복되어 나는 더 그악스럽게 일했었다. 내가 방학기간을 천내탄광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기쁘게도 《로동청년》신문과 《대학생》 잡지에 긍정교양기사로 소개되었다.

대학 사로청에서는 나를 위해 축하모임을 조직하

였다. 몸매가 고운 대학생처녀가 달려 나와 나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축하해요, 중배동무!》

꽃다발을 받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내앞에 바로 천내탄광의 그 잊을수 없는 《전차운전공처녀》가 서 있었던것이다....

그 처녀가 바로 강송이였다. 나는 후에야 송이가 천내탄광의 오랜 탄부의 딸이며 나와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3년동안이나 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왜 강송이를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도 잘 리해되지 않는다. 명백한것은 그가 남들앞에 나서기를 싫어 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것이다. 축하모임때 강송이가 꽃다발을 들게 된것은 대학 사로청조직에서 천내탄광출신의 처녀대학생을 골라 분공을 주었기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가까와 졌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은 희망을 한껏 부풀게 했다. 그 사랑은 공벽한 산골이 아니라 그 어떤 무인도라 할지라도 청춘을 아름답게 꽃 피울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그 배심은 첫날에 서리맛아 나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하였다. 70리를 겨우 걷고는 발바닥에 하얀 당콩알만 한 물집들이 생겨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 농가에서 쉬기로 했다.

《에이참, 하필 기차도 없는 고장에 보낼건 뭐람.》

내가 물집을 슬슬 어루만지며 투덜대자 송이는 생긋 웃으며 배낭에서 성냥을 꺼냈다.

《중배동무, 딱총을 놓자요.》

우리는 이틀만에야 가까스로 산정땅에 당도할수 있었다.

산정리는 생각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금강산은 저 멀리에 있었지만 그 지류를 이루는 경치 수려한 산골짜기(물론 골짜기는 넓었다.)에 오붓이 자리 잡은 산정리는 아래마을에 바다까지 끼고 있어 살기가 좋은 고장일것만 같았다.

우리는 옷마을들인 4반과 5반 농산기사로 배치되었다. 원래 나는 관리위원회 기사로 배치 받았었는데 나로서의 꿈이 있었으므로 작업반에 나가겠다고 뼈를 썼던것이다.

그때는 초가을이었다. 가을이 금방 지난 뒤였는데도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그닥 좋지 못했다.

리당비서의 말에 의하면 10여년째 농사가 시원치 않아 나라에서 식량까지 보태준다는 것이었다. 리당비서는 나보다 네댓살 우였는데 제대군관이었다. 사람이 텅텅한게 친근감을 주었다.

《왜 흥년이 됩니까?》

나의 물음에 리당비서는 마라초를 말면서 쓰겁게 웃었다.

《그놈이 금강내기때문이에요.》

《금강내기요?》

나와 송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서로 마주보았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런 바람이 있소. 이 지방의 내륙폭풍이지. 글썽 그놈의 금강내기바람이 수정기면 들이닥쳐 한순간에 논밭들을 녹여 내질 않소.》

젊은 리당비서는 담배를 피워 물며 우리들에게 금강내기와 관련한 전설을 들려 주었다.

《임진왜란때 금강산에 옥미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하오. 그런데 금강산으로 기어 든 왜놈들은 산속에 곱게 생긴 처녀가 홀로 있는것을 보고 환성을 지르며 달려 들었소. 뜻밖에 왜놈들에게 붙잡힐정황에 처하게 된 옥미는 몸을 더럽히우지 않으려고 제 몸에 불을 질렀소. 이때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 와 왜놈들을 몽땅 불 태워 죽였는데 그 바람이 바로 금강내기였다오...이 금강내기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는 미국놈들의 군함을 두척이나 수장시켜 버렸소. 사람들은 옥미의 넋이 살아 놈들에게 본때를 보였다고 통쾌해 했지.》

《그러니 이 고장 사람들은 원래부터 금강내기를 사랑해 왔군요.》

여직껏 말 한마디없이 리당비서의 말을 귀담아들던 송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할수도 있지. ...그런데 지난 전쟁때 미국놈들이 소이탄을 뿌려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뒀으니 바람피해가 심할수밖에...》

이날 저녁 나와 송이는 오래도록 바다가를 거닐었다.

바다는 쉬임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파도가 기슭을 칠 때마다 그 어떤 신비롭고 강렬한 음향이 나의 가슴에 마쳐 왔다.

《어쩐지 출군요.》

송이는 몸을 웅크리며 나의 곁에 다가왔다.

《전... 두려워요.》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렵긴, 일없소. 우리 다음해 농사를 본때 있게 지어...》

나의 말을 끝 맺을수 없었다. 겨울의 찬바람에 헉-하고 숨이 막혔던 것이다.

우리는 극성스레 일하였다. 부식토를 모아서는 등짐으로 저 날랐다. 들에서 새날을 맞고 들에서 날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바람에 대한 견딜성이 강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피곤을 모르고 뛰여 다녔다.

초봄에 계획을 확정할 때였다.

군에서는 금강내기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여 계획을 조절해 주려고 하였다.

나는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줄것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나라에서는 다수확품종인 강냉이를 많이 심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내기바람때문에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강냉이를 종전 계획대로 다 심겠습니다.》

송이도 함께 호응하여 계획을 변경시키지 말아줄것을 요구하였다.

《목표는 좋은데 꽤 해낼수 있을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가장이 머리를 기웃하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예,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나의 결의에 회의에 참가한 관리위원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씩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허곡이 되면 야단이야.》

《허곡》이라는 말이 나의 부아를 돋구게 했다.

《그럼 우리가 쪽정이란 말입니까?》 하고 나는 발끈했다.

《아니 아니, 우려돼서 그러는거지. 종소, 4반과 5반은 이전 계획을 그대로 줍시다.》

나의 반발에 당황해 진 경영위원회 기사는장은 이내 승낙을 해버렸다.

우리들의 결의를 터무니 없는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아직 젊어서들 그래. 이제 금강내기맛을 보전정신이 들겠지. 하겠다는대로 놔두라구.》

우리는 더욱 억척스럽게 일하였다.

한번은 별치 않은 일로 다툼적도 있었다.

나는 산에 올라가 조막도끼로 활창대를 할 물푸레나무들을 찍고 있었다. 두어아름되게 찍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도끼를 나귀 쳤다. 돌아 보니 물날은 솜동복을 입은 산림보호원(현재는 산림감독원임)이었다. 흙빛얼굴에 눈초리가 부리부리한게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이 보호원을 나는 곱게 보지 않고 있었다. 전쟁시기를 연상시키려는듯 리소재지나 군으로 갈 때면 가라말을 타고 요란스럽게 말발굽소리를 내는 이 사람을 보면 속에서 원인모를 반감이 일어 나군 하였다.

《왜 그러는거요?》

나는 대뜸 꼴을 내며 물었다.

《몰라서 묻소? 여기 나문 찍지 못하우.》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아니, 활창대감도 맘대로 못 쓴단 말이지요?》

《그렇소. 정 찍겠으면 산을 넘어 가시오.》

《첻, 번대머리가 다 된 산을 농구 재세나 새나.》

내가 코웃음을 치자 보호원은 벌컥 성을 냈다.

《그래 번대머리가 된 산을 보기가 그렇게도 좋

소?》 그의 눈에서 불씨가 튀는것을 보고 나는 실연했음을 깨달았다. 《뭐 그리구두 농사를 짓는다구? 5반농사를 한해 못 지어두 산만은 다치지 못하고. 산을 한번 가꾸자면 한생을 바쳐야 한단 말이요. 한생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할거요. 이제 두고 보우. 어렵도 없소.》

순간 모욕감이 나의 온몸을 휩쌌다.

《뭘라구?》

《어림 없다니까.》

우리는 서로 잠시 노려 보았다. 적의 같은것이 가슴속에서 이글거렸다.

《종소. 내 올해농사를 짓구 당신과는 따로 계산하겠소. 날가리루 당신 뺨을 후려 갈길테야.》

《금강내기한테 먼저 얻어 맞을걸.》

만약 그가 얼굴에 웃음이나 조소 같은것을 띠었다면 일은 정말 크게 번져 졌을것이다. 그러나 보호원의 거무데데한 얼굴에는 동정의 빛이 질게 어려 있었다.

물론 진짜 사내라면 그 어떤 조소보다 동정을 참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왜서인지 맞서기가 싫어졌다. 막연하게만 생각해 오던 불안감이 현실적인것으로 육박해 왔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올해농사를 본때 있게 지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삼복철에 들어 서면서 들판의 곡식들은 무성하게 자랐다. 벼며 강냉이, 조들이 시퍼렇게 독을 쓰면서 우줄우줄 하늘을 향해 키돋음을 하였다.

수정기가 끝나고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자 나와 송이는 탄성을 길렀다.

중복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숙소에서 밥을 대충 먹은 나는 토방에 걸려 앉아 아직 채 습관되지 않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느라 자연 담배를 배우기마련이다. 휴식참이면 농장원들은 논두렁이나 밭머리에 앉아서 《기사동무...》 하며 담배쌈지를 앞에 꺼내 놓는것이다. 그래서 피우기 시작한 담배였다.

담배를 두어모금 빨 때 송이가 옆구리에 소나무로 만든 합지를 끼고 들어 왔다. 검은 대우가 나는 합지에는 빨래가 무드기 담겨 있었다.

송이가 들어 서자 집 안주인인 장인숙이 수다를 떨며 맞이하였다.

프락프라운전수의 처인 장인숙은 서른댓살 난 몸집이 큰 녀자였는데 입이 큰탓인지 수다스러운 편이어서 나는 그다지 속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와 송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돌리기 시작한것도 바로 장인숙이었다. 하긴 그런것에 별로 마음을 쓴 일은 없었다.

《아이구머니나, 송이기사가 또 빨래를 해왔군요. 쫓쫓, 극성두 하지. 그 마음은 아무리 금강선녀라 해두 갖다 대질 못한다니까. 정말 중배아지썬 복을

라고 난 사람이예요. 호호호.》

장인숙이 톨깁스럽게 재깁거리자 송이는 얼굴을 붉히며 내 앞으로 왔다. 송이는 산정리에 와서부터 계속 내 옷가지들을 빨아 주었었다.

《저의 숙소엔 담배를 말리느라고...》

빨래를 젖은채로 가져 오는것이 못내 미안한 모양이었다.

《원, 별소릴 다... 이리 주오.》

내가 토방에서 일이 서자 송이는 눈을 곱게 흘기었다.

《일 없어요. 제가 널겠어요.》

송이는 집 토방앞에 늘어 놓은 빨래줄에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나에게 운명의 희롱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그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줄에 낀 빨래들이 불안스럽게 춤 추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옷가지들이 허공으로 날아 올랐다.

송이는 빨래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어 뻗었다가 부풀어 오르는 허드레치마를 부여잡으며 빨강게 상기된 얼굴을 나에게로 돌렸다.

(금강내기?!...)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나의 뇌리를 쳤다.

나는 발으로 뛰어 나갔다.

폭격기소리 같은 날카롭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한 광풍의 음향이 공간을 꽉 채웠다. 바람이 핏트며 지나갈 때마다 대지는 덜덜 떨었다. 다 자란 강냉이들은 아우성치며 련이어 쓰러졌다.

정신이 한절반 나간 나는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 기만 했다.

이때 눈앞에서 무서운 광경이 벌어 졌다. 돌개바람에 말리운 대여섯평되는 발의 강냉이들이 뿌리채로 허양 뿔히워 타래치며 올라 갔던것이다.

그것들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던 나는 강한 바람에 날리워 서너미터 떨어진 곳에 나가 넘어 졌다. 불에서 끈적지근한것이 흘러 내렸다. 어디서 날려왔는지 모를 강냉이대들이 내 몸을 덮었다.

썩와- 위잉-

바람의 요동은 그치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나는 검불처럼 흘날리려는 머리칼을 움켜 쥐고 상처 입은 야수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람이 후려 갈기는대로 이리 비적 저리 비적 황폐화된 밭으로 걸어 갔다.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눈앞에 눈이 나타났다. 푸르싱싱 자라던 벼들은 넘어져 있었다. 여기저기서 벼들이 지푸라기처럼 날아 갔다.

논 한가운데에 웬 처녀가 서 있었다. 송이었다. 처녀는 모든것을 체념한듯 못 박힌듯이 서 있었다. 정쟁이우까지 감탕칠한 처녀의 두다리를 찢겨진 치마자락이 부여안고 울고 있었다.

《아!-》

나는 가슴을 움켜 잡고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논판에 나가 넘어 졌다.

2

나는 며칠동안 절망속에서 헤여 나오지 못했다. 금강내기바람은 나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강그리 하늘로 날려 보냈다.

우리는 작업반원들의 비난을 면할수가 없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세웠기때문에 그들은 더 손해를 보게 되었던것이다. 농장원들의 비난의 눈길이 나를 더 못 견디게 했다.

(이 산정리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청춘을 꽃피울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너무도 어렵지 않는다. 금강내기는 그 꿈 아니, 청춘시절과 나의 인생을 지푸래기처럼 하늘로 날려 보낼것이다. 산정리를 떠나 한다. 한해 농사를 더 지어 볼가?...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것이다. 뜰바에는 빨리 떠나 한다! 아무 미련도 없이.)

나는 오랜 심뇌끝에 산정리를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문제는 송이였다.

송이 역시 큰 심적타격을 받았지만 처녀는 그래도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였다.

송이가 산정리를 떠려는 나의 결심에 선뜻 동의해 나서겠는가?

나를 믿고 함께 와서 이 낯 설은 땅에 순정을 바치며 살아 온 처녀에게 산정리를 뜨자고 말하자니 여간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어떻게 말폭지를 뿜것인가?...)

마침 알맞춤한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송이는 꽃강냉이를 한바가지 삶아 가지고 나의 숙소로 왔다.

강냉이는 기껏해야 염소꼬리만 했는데 그나마 알이란것은 팔알보다도 작았다.

나에게 강냉이를 권하는 처녀의 까만 눈동자에는 아침이슬 맞은 머루알처럼 희뿌연것이 끼여 있었다.

《한심하구만...》

《...마르면 쪽정이가 될거예요.》

처녀는 살갓이 툰 손등으로 불그스레해 진 눈굽을 닦았다.

송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초봄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이 하던 말을 생각했다.

《...그러다 허곡이 되면 야단이야.》

허곡!... 수치감으로 하여 온몸에 전율이 왔다.

《이보우 송이, 우리 산정리를 뜨구 말자구.》

나는 손에 쥔 강냉이를 바가지에 던져 넣으며 성급히 말했다.

《예?!...》 처녀는 흠칫 놀라며 나를 보았다.

《뜨다니요?!...》

《그래, 떠야 해. 여긴 강냉이도 안되고 사람도 못 살 불모지나 같은 곳이란 말이야. 불모지!》

《그렇게 뜰걸 오긴 왜 왔어요?》

송이는 머리를 떨구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초에 이런 곳에 온것이 잘못이지. 여기에 그냥 있다간 우리 인생도 쪽정이로 밖에 되지 않을거야.》

《...중배동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여기서 한생을 보람 있게 살자고 마음 다치지 않았나요?》 하고 송이는 절절히 말했다.

《이번에 금강내기맛을 보구두 그래?》

《금강내기를 바로 우리가 길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미치개바람을 어떻게 길들인다구 그래? 사람의 힘으론 어렵도 없어.》

나는 송이를 완강히 설복하려 들었다.

이 산정리형편을 보라, 십년나마 금강내기바람의 피해를 받아 오지 않았는가, 차라리 다른 고장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일한것의 절반만큼 이라도 일하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보람 있는 삶으로 될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구 뜨자.

《전 이 산정리에 정들었어요. 땅두 사람들두... 전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살면서 기어이 금강내기를 길들이고야 말겠어요.》

송이는 조용조용 말하였으나 그 어조에는 확고한 신념 같은것이 배여 있었다.

《이제 두구 보우. 후퇴할 때가 있을거요. 난 갈테요.》

《중배동무!...》

처녀는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보니 나의 결심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것만 같았다. 그 티없이 맑은 눈에는 애뜻한 사랑과 비애 그리고 절망 비슷한 형언키 어려운것이 어려 있었던것이다.

《송이!》

나는 처녀를 와락 껴안았다. 송이는 나의 옷을 적시며 슬게 울었다.

《싫어요.... 흐흑, 난 헤여지지 않을래.》

슬픔에 떠는 처녀의 젖가슴이 나의 마음을 더욱 허비였다.

《이보우 송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선정할수 없지만 자기가 살 땅은 선정할 권리가 있단 말이요. 우리 우리의 희망을 꽃 피울수 있는 곳으로 가자구.》

그러나 송이는 계속 산정리에 남아 있겠다고 고집했다.

이리하여 우리는 헤여지게 되었다.

타고장으로 간 나는 있는 지혜, 있는 열정을 다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그 파정에 나는 농산기사로부터 농장기사장으로 사업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로 소환되었다.

그사이 나는 송이의 소식을 들을수 없었다. 물론 책임은 나한테 있었다. 나는 《성공》하기전에는 편지 쓰지 않겠다고 결심 다졌던것이다.

도에 소환된 나는 얼마 안되어 산정리가 속해있는 군으로 지도사업을 나가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기뻐다. 이번 기회에 송이를 데리고 올라와 결혼하리라 마음 먹었다. 나의 눈앞에서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쉴게 올던 송이의 처량한 모습이 지워 질줄 몰랐다. 《난 가지 않을래.》 울음섞인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귀전에 계속 울리었다.

알아 본데 의하면 산정리농사는 여전하였다. 금강내기바람에 의한 피해가 매년 계속되었다.

송이도 이제는 더 고집하지 않을것이다.

산정리에서 제일 반겨 맞아 준것은 장인숙이었다. 남편이 기계화 반장으로 되면서 리소재지마을로 내려 온 장인숙은 리합숙 식모로 있었는데 그새 몸이 더 나서 보는 사람도 숨 가쁠 지경이었다.

(금강내기두 저 녀자의 몸을 파먹지는 못했군.)

나는 잘 있었는데, 그사이 어디서 뭘 했기에 몇년 사이에 승용차를 타고 왔는가 하며 설새없이 물어 보는 장인숙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중배아저씨, 색시는 얻었겠지요? 아이는 몇이나요? 보나마나 고운 색실거야.》

장인숙의 물음에 나는 빙그레 웃었다.

(벌써 강송이는 잊은가 보군. 금강선녀요 뭐요 하며 수다를 떨던게 언제데...)하고 생각하며 나는 송이가 잘 있는가고 물었다.

《오, 송이기산 농장에서 나간지 오래 돼요.》

장인숙은 묻지 않아도 될걸 괜히 묻는다고 생각했는지 감쪽하게 눈을 할기며 웃었는데 가을박처럼 동실한 얼굴이 신통히 조화되는것을 보고 나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에선 왜 나갔는가요?》

《글쎄, 이젠 3년이 됐는가. 중배아저씨가 떠나간 후에 인차 나갔는데요 뭐. 산림경영소 조림분조에 들어 갔어요. 대학공부까지 한 녀자가 조림공이 뭐예요? 조림공이... 하긴 처녀가 파년해 지면 어쩔수 없나 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나는 가슴이 섬찝해 졌다.

《송이기산 두구 말이 많거던요. 진규보호원한테 반하지 않았나 하는 말두 돌아 가요. 농산기사가 조림분조에 들어 갔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예요.》

장인숙은 입을 비죽거리고 나서 계속 사설질을 했으나 이미 나의 귀에 들어 오지 않았다.

(보호원이라...)

눈초리가 부리부리한 흙빛얼굴이 떠올랐다. 송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산림보호원한테 마음을 두고 있던 말인가?!...

아니! 강송이는 그런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 조림분조에 들어 간것은 무엇으로 설명한단 말인가?...

(혹시 나무를 심어 금강내기를 막아 보려는게 아닐까?) 어쨌든 나는 강송이를 만나자던것을 뒤로 미루었다. 내가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찾아 올것이라는 생각에 서였다.

나흘을 기다렸으나 송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송이에 대한 의심을 짙게 하였다.

산정리를 떠나게 된 날이었다.

나는 6반 막바지에 있는 조림분조발을 찾았다.

중낮때여서 날씨는 따뜻했다. 해토가 이미 끝난 밭에서는 하얀 땅김이 물씬물씬 피여 오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하늘색머리수건을 쓰고 미색작업복을 입은 강송이가 나무모를 심는것을 보고 천천히 그리로 다가갔다.

땅김이 고요히 피여 오르는 밭에서 일하는 처녀의 모습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송이!...)

강송이를 부르려던 나는 주춤거렸다.

산비탈쪽에서 무슨 나무모 같은 지게짐을 한가득 진 산림보호원이 송이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진규는 무거운 짐을 저서 그런지 걸음새가 고르롭지 못했다. 송이는 진규에게로 뛰어가 지게를 받들어 주었다. 진규가 지게를 벗자 처녀는 그에게 흰수건을 꺼내주었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심장이 부정맥환자처럼 뛰면서 가슴이 빠근해 졌다. 거센 숨을 몰아쉬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왜서인지 태양 숲덩이처럼 보였다.

(돌아 서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발길은 그들이 있는데로 갔다. 리성과 감성의 부조화는 생활에 흔히 있는것이다. 진규와 송이가 놀라는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 졌다.

《수고합니다.》

다시 가슴이 후둑거리기 시작했다.

송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었다.

진규는 눈인사를 하고 나서 인차 자리를 피했다.

송이의 감실감실하게 탄 두볼로 눈물이 흐르는것을 본 나는 미묘하고도 혼탁된 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송이는 울음을 씹어 가며 말했다. 《지도사업 나오셨단 얘긴... 들었어요.》

《나는 사실 송이를 데려 가려고 왔소.》 하고 나는 《사실》이라는 단어에 력점을 찍으며 저도 이상할 정도로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송이는 맥을 잃고 소르르 주저앉아 버렸다.

《송이!》

송이는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송이, 왜 이러는거요?》

나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 보았다. 송이는 나의 두팔을 잡고 일어 서다 말고 나의 팔에 눈물에 젖은 얼굴을 비볐다.

《그런걸 난... 그런걸 난...》 하고 곱씹으며 나를 바라보는 처녀의 두볼에는 행복의 웃음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자신이 잘못 처신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먼저 송이를 찾아 봐야 했다. 송이는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항차 장인숙이 같은 수다쟁이들이 별의별 말을 다 돌렸겠으니...

《난 송이를 데리러 왔소. 리당과 산림경영소와 합의 보았으니 함께 갑시다.》

《네? 어디루요?》

송이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어디긴 어디겠소? 원산이지.》

나의 팔에서 송이의 손이 풀려 내렸다. 처녀의 얼굴은 질려 있었다. 나는 긴장해 졌다.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소? 그래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를 일에 한생을 쏟아 부을 작정이요? 지금 송이 나이가 몇인줄 아오? 스물일곱이란 말이요.》

《...》

나는 단호한 립장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려 가 기다리겠으니 뒤따라 오오. 난 오후두시에 떠나야 하오.》

나는 아직도 초점 풀린 눈으로 나를 멍하니 보고 있는 송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떴다. 한참 내려 가다 뒤를 돌아 보니 송이는 어깨를 내려 뜨린채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송이는 오후두시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승용차옆에서 안절부절하며 도로쪽만 바라보았다.

반시간도 더 지나서 옷마을쪽에서 한필의 말이 뽀얀 먼지를 일구며 달려 왔다. 말을 타고 오는것은 뜻밖에도 산림보호원 진규였다. 그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팔소매로 씻으며 나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아서 진규와 말을 훑어 보았다.

가라말은 주인을 닮은듯이 성질이 매우 급하였다. 검은 잔등에 멍에자리가 나지 않은걸 보니 타고만 다니는것이 분명하였다. 하긴 내가 산정리에 갔을 때에도 이 감때 사나와 보이는 청년은 늘 말을 타고 다녔었다. 긴 목이 살진데다 기갑고가 높고 앞다리가 곧바른걸 보면 부림말이 아니라 승마인것은 틀림 없었지만 나는 멀리 않은 거리도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보호원을 곱게 보지 않았었다.

편지를 펼치려는데 손이 자꾸만 떨려 갔다.

《중배동무! 함께 못 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는 영원히 산정땅에서 살립니다. 중배동무는 언제인가 저에게 어머니는 선정할수 없지만 자기가 살 땅은 선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어머니를 버릴수 없듯이 전 제가 사는 이 땅을 버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어머니라 부르는 내 조국의 한 부분이기때문이에요. 못 산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떠나면 이 땅은 영원히 불모의 땅으로 될것이 아니겠나요. 복은 투정질을 하거나 불평을 부린다고 찾아 오는것이 아니지요. 오늘은 힘겹고 고생스러워도 성실한 땀을 바치면 우리의 후대들은 복락을 누릴수 있을거예요.

중배동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송이 올림》

나는 편지를 움켜 쥐고 승용차에 올랐다.

《갑시다!》

차는 도래굽이로 달렸다.

나는 무심결에 뒤를 돌아 보다가 산우의 키 낮은 락엽송옆에 한 처녀가 서 있는것을 보았다. 강송이였다. 송이는 한손을 쳐들려다가 얼굴을 싸쥐었다. 이름 못할 흥분으로 하여 나는 처녀에게서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은 나의 가슴에 청사진으로 새겨져 그후에도 자주 떠오르곤 하였다. 왜냐하면 아름다운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때문이다.

3

산정리를 떠나 도로 올라 간 나는 송이의 그후 소식을 들을수 없었다.

산정리는 여전히 그 본색여서 도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농장측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나는 산정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슴이 아릿하게 아파 나곤 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의 한 부분이 산정땅에 묻혀 있었기때문이었다. 그 묻혀진 부분이 때없이 나를 괴롭히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갔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운명이 다시 산정리와 련결되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초시기였다.

도에서 처장사업을 하던 나는 어느 군의 영농지도소조에 망라되어 한 협동농장을 맡아 보게 되었다.

나는 이 기회에 실적을 올려 보려고 다른 군에서 온을 냈다는 다수확벼품종을 도입하였다.

농장기사장과 오랜 농장원들은 그 벼품종이 토양과 기후조건에 잘 맞지 않는다면서 심는것을 반대하였으나 나는 완강히 내밀었다.

적지적작의 원칙을 어긴것으로 하여 그해 농장에서 술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나는 철직되어 산정협동농장 농장원으로 배치되었다.

결국 30여년전으로 되돌아 가 인생길을 처음부터 다시 걷게 된 셈이었다.

내가 산정땅을 다시 밟았을 때는 가을이 한창이었다.

나를 처음 맞아 준 리당비서는 30여년전에 금강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던 그 리당비서였다. 세월은 그의 머리에 도 서리를 뿌렸다. 굴대갈던 허리는 구뭇해 졌다.

《...결국 없힌 셈이군요.》

나의 지나온 생활과 철직되어 내려 오게 된 경위를 다 들은 비서는 이런 말로 결론을 내렸다.

비록 머리를 들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걸려 내려 가지 않았다. 오히려 비서의 말에 체했다고 할가. 나는 온밤 잠들수 없었다.

이튿날은 휴식일이였다. 한가위날이었던것이다.

할 일이 없어 리합숙방에 앉아 번거로운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리당비서가 찾아 왔다.

함께 바람도 쏘일겸 6반으로 올라 가자는것이였다.

나는 선선히 따라 나섰지만 마음은 불안하였다.

아니나다를가 길에 나섰을 때 리당비서가 《참 강송이라고 생각나시오?》 하고 묻는것이였다.

《예? 예...》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 동문 뵈합니까?》

《산림감독원으로 있소.》

《그럼 이전 보호원은요?》

나는 의아쩍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진규동무는 올해 초봄에 희생되었소. 송이동무의 남편이었지요. 좋은 동무였는데...》

송이의 남편이라는 말에 나는 어째서인지 마음이 허전해 졌다. 감때 사나와 보이던 흙빛얼굴의 감독원이 잘못되었다는데 생각이 간것은 그다음이였다.

《그는 산불을 끄다가 희생되었소.》 하고 리당비서는 담배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강송이는 그 뒤를 이어 보호원이 되었지요. 오늘이 한가위이어서 함께 진규동무의 묘를 찾아 가 보자는거요.》 묘를 찾아 가 보자는거요.》

《예...》

나는 리당비서와 함께 가면서 그 두사람사이에서 련결되는 세부들을 찾아 보려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조림밭, 흰 수건, 말, 편지... 이것이 전부였다.

물론 이제 와서 질투나 혹은 비난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것은 아니였다. 생활은 서로 다른 뜻을 달고 오랜 세월을 흘러 오지 않았는가. 사람은 사십대 중엽부터는 원숙해 진다고 말할수 있다. 오십나이에 이르면 젊은 시절을 아름답게 분석하는것이 아니라 제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 리성적으로 돌이켜 보게 된다.

나는 지금껏 마음속으로나마 송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 진것은 강송이의 불행이였다.

리당비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에게 그들 두사람의 지나온 생활을 들려 주었다.

내가 강송이에게 오후 두시까지 관리위원회에 오라는 요구를 남기고 간 다음 송이는 내내 허탈상태에 빠진것처럼 앉아 있었다.

진규는 그런 송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송이동무, 왜 그러니까?》

《두시까지 오라는군요.》

송이는 한숨을 내쉬며 멀리 바다가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아란 하늘에서 내려치던 갈매기들이 끝없이 흔들거리는 바다로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누가? 도지도원동무가 말이요?》

진규가 놀라며 다시 묻자 송이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건 왜요?》

《가자는거지요. 산정리를 뜨구...》

진규는 그옆에 앉아 담배를 맡았다.

《그럼 가야지요.》 하며 그는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진심이에요?》

송이는 진규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예.》

《고맙군요...》

진규는 송이를 부축하다싶이 하며 그의 숙소로 갔다.

송이는 숙소에 가서도 멍청하니 앉아 밥 먹을 생각도 짐 꾸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진규가 숙소집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송이의 집을 꾸리도록 한 다음 송이를 억지로 집과 함께 말에 태웠다.

그들이 5반 마을까지 내려 왔을 때였다.

길옆의 어느 한 농가에서 헛간에 썩은 강냉이짚이영을 내리우고 있었다. 진규가 이영은 왜 내리우는가고 묻자 집주인은 기가 막힌지 혀를 차며 당장소를 먹일게 없어서 그런다고 하소연하였다.

《...야단은 야단일세. 사람두 소두 다 녹네그려.》

이때 송이가 별안간 진규의 손에서 고삐를 나누어 췌다.

《이라!》

처녀는 오던 길로 말을 몰아 갔다.

《아니, 송이동무! 송이! 제길힐.》

진규가 절룩거리며 송이의 숙소에 가니 이미 김을 다 부리운 송이는 진규에게 편지첩이를 내밀었다.

《미안하지만 이걸 중배동무에게 전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이렇게 되어 진규가 뒤늦게 말은 몰아 송이의 편지를 가지고 나에게 왔던것이다...

《진규동무는 다리 상한 영예군인이었소.》 리당 비서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전선에서 전사하고 어머니와 두 누이동생은 피살되었다고 하오. 그는 열여섯살때인 전쟁의 마감해에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나갔더랬소. 전후에 분계연선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다리를 상했지. 그는 전상자병원에서 의족을 하고 군산림경영소에 배치 받았더랬는데 자진하여 산정리보호원으로 왔소. 군에서는 그의 다리를 넘려하여 말한필을 구해 보내주었지.》

리당비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내가 두번째로 산정리를 떠나간 때로부터 다시 3년이 흘렀다.

이때 진규는 나이 서른을 넘겼다. 진규는 타고난 락천가여서 혼기가 늦는다고 근심하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나 같은 놈에게 누가 곱게 키운 딸을 주겠답디까?》 하며 웃음으로 넘겨 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정작 혼사말이 나서면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이며 물리쳐 버렸다.

일부 사람들은 진규가 강송이를 넘보고 있다고 지레짐작하였다.

사실 6반 막바지의 자그마한 초가마리집에서 홀로 살림을 펴고 있던 진규는 송이가 집일을 도와주러 오면 박정스레 마당에서 돌러 보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경사 급한 산비탈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진규는 발을 잘못 디더 산아래로 굴러 내렸다.

그는 얼마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허리를 크게 다쳤다. 피 배인 다리는 더욱 엉망이 되었다.

뒤늦게야 의족도 없이 쓰러져 있는 진규를 발견한 송이는 너무도 억이 막혀 그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울었다고 한다.

진규를 업고 한발자욱 한발자욱 내려 오는 강송이를 보고 마을사람들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부터 송이는 진규네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은 얼마후에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서 결혼하였다....

《그들 부부는 일년 열두달 편히 쉬는 날이 없었소.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번대머리 같던 우리 산정리 산들이 처령듯 푸르게 되었소. 그런데 7작업반 밭이 있는 산중턱에서 갑자기 산불이 일어 크게 번져 질줄이야... 진규동무는 그 불을 끄다가 잘못되었소.》

《그런데 저... 강송이가 조림분조에 들어 간것은 물론 금강내기때문이였겠지요?》 하고 나는 무척 힘들게 물었다.

《그렇소. 금강내기를 막아 보자는 생각에서였소. 그들은 조국해방전쟁때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어 금강내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던거요. 그래서 이를테면 방풍림을 세웠지

요.》

《하지만 금강내기바람의 피해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퍼그나 숙어 들었소. 아직 방풍림들의 키가 낮아 피해는 있지만...》

리당비서의 뒤를 따라 6작업반 뒤산에 있는 진규의 묘에 올라 간 나는 놀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 왔던것이다.

강송이는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 어린 딸애와 함께 서 있는 송이의 모습은 곱혀 보였다. 윤기를 잃기 시작한 머리며 때 이르게 많이진 주름들은 송이가 걸어 온 고난의 흔적 같았다.

나와 리당비서는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고 내려갈 때까지 내내 뒤줄에 서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그 녀자에게 다가 갔을 때 송이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찾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직이 말하고는 아직 정기가 사라지지 않은 눈을 내리깔았다.

《중배동무는 우리 산정리로 왔소.》

리당비서의 말에 강송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마주 볼수 없었다.

이 고결한 인간들앞에서 새삼스럽게 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되었다.

불현듯 어제 리당비서가 하던 말이 흥벽을 쳤다.

《...결국 었힌 셈이군요.》

나는 지금껏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 왔었다.

물론 조국을 위해 땀도 바쳤다. 허나 바친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랐으며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땀을 바쳐 왔었다. 그 결과 받아 먹는데만 습관되다니 나중에는 체증이 와서 《었힌 인생》이 되고 만것이다.

누구나 나처럼 바친것만큼 받기를 바란다면 이땅은 더는 풍요해 질수 없다.

누구나 나처럼 바친것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면 어머니라 부르는 조국은 헐벗게 될것이다....

나는 진규의 묘비앞에 놓여 있는 꽃다발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4

당조직의 방조를 받으며 과오를 씻은 나는 이태후에 산정리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새 직무를 맡으며 내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영예롭지 못한 길로 가지 않겠는가 우려도 하였다. 타산하는 버릇은 성격처럼 굳어 졌는지 고치기 힘든가보다.

우연이라고 할가 아니면 필연이라고 할가?

그 이듬해 산정리는 금강내기바람의 피해를 덜입었다.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피해는 적지 않은것이였지

만 지난 시기에 비해 보면 확실히 덜 받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바람의 세기가 약했다든가 혹은 금강내기와 눈이 덜었다든가 혹은 새 관리위원장이 무서워 금강내기가 더 요동을 치지 못했다는 등등...

나는 필연적인 것으로 믿고 싶었다.

금강내기바람이 분 이튿날 나는 6작업반 마을에 있는 강송이의 집을 찾아 갔다.

송이네 집은 산기슭에 좀 외따로 떨어져 저 있는 아담한 두칸짜리 문화주택이었다. 네모 반듯한 울바자를 따라 박은 콩대들에는 줄당콩들이 주렁이 매달려 춤을 추고 있었고 지붕에는 호박잎들이 무성히 덮여 있었다.

마당에 들어 서니 송이는 없고 그의 딸 신옥이가 콩을 따고 있었다. 나와 이미 친숙해 진 신옥은 무엇이 그리 기쁜지 콩당콩당 뛰며 매달렸다.

《엄만 어딜 갔니?》

《산에 갔지요 뭐.》

신옥은 뻔한걸 묻는다고 생각했는지 새물새물웃으며 나를 올려다 보았다. 예쁜 눈이며 마루가 오희한 꼬며 입술이 넓고 작은 입은 신통히도 제 엄마를 빼물었다.

《관리위원장아저씨, 내 옛말 해줄가?》

《음, 해주렴.》

나는 토방에 앉아 집주변을 둘러 보았다.

《먼 옛날 금강산에 옥미라는 언니가 살았대요. 옥미는 고왔대요. 그런데 하루는 금강산으로 왜놈들이 달려 들었지요 뭐. 놈들은 옥미를 욕 보하려고 했어요. 그래 옥미는 제 몸에 불을 질렀어요. 이때 큰 바람이 불어 왜놈들이 다 타죽었는데 그것이 금강내기래요. 금강내기는 좋은 바람이래요. 미국놈들이 저 산을 다 벗겨 버려 원통해서 운대요. 그래서 우리 엄만 나무를 심어요. 금강내기가 울지 못하게.》

나는 미소를 그리며 신옥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엄마가 들려 주던?》

《응, 엄만 어제 울었어요.》

《건 왜?》

《금강내기두 좋아 하기 시작한다나요.》

나는 사뭇 즐거운 생각이 들어 호탕하게 웃었다. 신옥이도 해죽 웃었다.

나는 다시 집주변을 둘러 보다가 이마살을 찡그렸다. 땀나무가 없었던 것이다. 굴뚝옆에 있는 삭정이 두단과 돼지우리우에 있는 웅이박이나마들이 전부였다.

(반장이나 사무장한테 단단히 일러 주어야겠군...)

나는 웅이박이나마들을 마당에 내려 놓고 도끼질을 시작했다.

한참만에야 다 패서 벽쪽에 가려 놓는데 송이가

들어 왔다.

《아니 위원장동지가 웬일이세요?》

송이는 미안쩍어 하며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파란 그릇에 물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오래간만에 도끼질을 하니 좀 빠르합니다. 허히.》

세수를 하고 난 나는 송이가 내미는 흰 수건을 받았다. 그 수건을 보니 생각이 깊어 졌다.

《송이동무, 도움 받을게 있으면 아무때나 제기하십시오.》

《도움이야 뭘...》

송이는 얼굴을 붉혔다.

옷을 입던 나는 호박덕대가 부러진것을 보고 다른것으로 맞추려고 하였다.

《봐두십시오, 위원장동지. 이젠 다 자란걸요.》

《가을까지 견뎌 낼수 있을까?》

《뿌리두 깊이 내린데다 줄기가 굵어서 일 없습니다.》

송이는 굳이 나를 만류하였다.

《이번의 금강내기바람을 두구 뭘 좀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글쎄요. 아직두 피해가 있으니...》 송이는 얼굴빛을 흐렸다. 《저 위원장동지, 요즘 농장원들이 풀베기를 하는데 글쎄 이삼년 자란 나무들까지 사정없이 베버리고 있더군요. 그게 어떤 나무들입니까.》

《알겠소. 내 대책을 세우겠소.》

송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송이를 다시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필연이라고 본 나의 생각은 옳았다.

금강내기피해는 점점 줄어 들었다. 금강내기와 함께 때때로 겹쳐지던 가물과 장마피해도 없어졌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산정리에서는 자연피해를 덜 받았으며 알곡생산은 해마다 올라 갔다.

최근년간에 와서 산정사람들은 금강내기에 혼쭐나던 지난 날을 웃음속에 추억하게 되었다.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새 세기 첫해에도 산정땅에는 농사가 잘되었다.

전야에서 벼가을을 하던 나는 현장방송으로 감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산정협동농장에 근위1급칭호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순간 온 산정땅에는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 낫을 들고 벼단을 안은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며칠후 리 문화회관에서는 우리 농장에 근위1급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근위1급칭호가 수여된후 공로 있는 농장원들과

일군들에게 국가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이례적으로 강송이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제일 먼저 나섰다.

그 녀자는 우리 농장소속이 아니었지만 당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로력훈장을 수여 하도록 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있는 강송이의 가슴에 금빛훈장이 빛나는것을 본 나는 그 녀자의 값 높은 한생앞에서 마음속으로 머리를 숙였다.

모임이 끝나자 문화회관앞에서는 출판이 벌어졌다.

그런데 강송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물이 보니 집쪽으로 올라 갔다는것이였다.

나는 마음이 허전해 저 회관앞을 떠났다.

(강송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걸고 걸으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 온 녀성, 남편도 청춘도 희망도 바로 오늘을 위해 강그리 바쳐온 강송이, 기쁨보다 슬픔이 많았고 즐거움보다 고생이 더 많았던 송이가 아닌가....

오직 바치는것만을, 청춘도 기쁨도 행복도 생의 모든것을 전부 바치는것만을 인간의 삶으로 안고살아 온 강송이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두고 그저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농업대학에서 공부라고 있는 송이의 딸 신옥이가 들려 주던 이야기가 생각키운다.

《...금강내기는 좋은 바람이래요. 미국놈들이 저산을 다 벗겨 버려 원통해서 운대요.》

《엄마가 들려 주던?》

《응, 엄만 어제 울었어요.... 금강내기두 좋아하기 시작한다네요.》

강송이는 결국 사나운 금강내기바람을 길들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송이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 행복의 순간에 강송이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것인가?...

(혹시 남편의 묘에?...)하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가보니 들국화다발이 놓여 있었다.

여기에 왔다 간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천천히 돌아 서다가 들국화다발을 다시 보았다. 바람에 하느적이는 하얀 꽃잎들이 나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얼마후에 나는 잣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서 강송이를 찾아 냈다.

어느새 작업복차림을 한 그 녀자는 손에 술을 들고 나무들에 동그라미표식을 하고 있었다.

인적기를 들고 뒤를 돌아 본 강송이는 밝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처녀적처럼 티없이 맑고 순진한 웃음이었다. 회색 작업복차림인 송이의 가슴속에는 푸른 술잎들이 내려 앉아 햇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소?》

《2작업반 뒤산 골짜기에 빈 땅들이 있는게 걱정되는군요. 그래 여기 나무들을 솎아 거기에 심자구요. 큰 나무들은 초겨울에 옮겨 심어야 잘 자라니 준비를 서둘러야겠더군요.》

《동문 참... 남들은 오늘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동무는 래일을 걱정하고 있구만.》

《그런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동무가 보이지 않더군. 글썽 모두들 기뻐 춤을 추는데 주인공이 보이지 않으니 걱정될수밖에 없지 않소.》

《호호 참, 위원장동지두.》

강송이는 처녀적처럼 손등으로 입을 가무리고 즐겁게 웃었다.

《전 저 알찬 이삭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 보느라니 이 푸른 숲이 걱정되더군요.》

그 말에 나는 송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송이는 지금 훈장을 받은것보다 저 풍요한 농장벌과 그것을 보호해 준 이 무성한 숲의 설렘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것이 아닌가.

문득 수십년전에 헤여질 때 송이가 써보낸 편지의 구절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버릴수 없듯이 전 제가 사는 이 땅을 버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어머니라 부르는 내 조국의 한 부분이기때문이에요.》

누구나 조국을 어머니라 부른다.

어머니!

자식들은 어머니에게서 받을것만을 바란다.

인생말년에 이르러서야 바치지 못한것을 후회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나처럼...

그것은 나자신의 운명만을 안고 살아 왔기때문이지 아니겠는가.

참된 사랑에도 명예와 보수가 있다. 그러나 조국-어머니대지가 주는 가장 고귀한것이 있다.

《이 숲과 저 이삭들이 동무의 가슴에 안겨 있는 영원한 훈장이지.》 하고 나는 나직이 말했다.

푸르청청한 하늘에서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조용히 웃는 녀인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불 타고 있었다.

해금강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박해출

아버지의 고향은 눈앞에 있는데

노를 저어 해금강문을 나서니
가슴 뭉클 젖어 와라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서 들던 이야기
술섬을 에돌아 배바위를 지나
거기서 옥교암을 돌아 서머는
고향마을 감포가 보인다...

감포, 그 이름 가슴에 다시 새겨 보니
어렸을 땐 그리움속에 가고 싶던 곳
부르고 부르면 화답할것만 같은 아버지의 고향
손 뻗치면 닿을듯 한 지척이건만
해종일 바다우에서 나는 땀 돈다
미국놈 군함은 언제까지 저 배길을 막아 서려는가

지척도 천리란 그 말 이 가슴 허빈다
한지붕아래 피를 나눈 형제면서도
아직까지 남남처럼 서로 모르는
그 눈물속의 모지름이 우리 소원 아니어서
통일을 부르며 불같이 살아 왔건만
어찌하여 반세기 넘는 분열을 안고 세기를
넘었느냐

언제까지
내 아들에게 저기는 할아버지 고향 감포라고
그곳의 대추나무집은 할아버지 집이었다고
옛말처럼 들려 줘야 하느냐
옛말이 아니면서도 옛말처럼 들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땅은 남남이 될가 봐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고향땅을 밟아 본다

꿈에서만 가는 길이더냐
물도 한빛, 물길도 한길이건만
땅우에 독버섯마냥 솟은 저 콩크리트장벽
물우에도 솟아 있는듯 눈에 보인다
네것ियो 내것ियो 바다도 두개로 갈라 놓은

아 하루 또 하루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깊이깊이 새겨 지는 아버지의 고향마을 포구어
산처럼 쌓인 그리움의 닳을 내릴 그 길은
틀어 전 노대를 폭탄처럼 움켜 쥐고
있어서는 안될 분렬의 장벽
산산이 까부시며 가야 할 통일의 길

잉어바위앞에서

사랑편지 전했다는 잉어바위아
감호에서 살던 몸
어이하여 바다에서 굳어 졌느냐

푸들쩍 한두번 꼬리치면 가닿을 감호
여기는 물결도 흐르지 않는듯
내 마음도 해금강의 잉어바위 되였는가

오, 네앞에 서니
분렬의 이 세월 그대로 간다면
강토 삼천리가 너처럼 돌이 될지 뉘 알라

그러나 통일이여
너는 이제 우리의것이 되리
통일 위한 심장은 결코 돌이 될수 없노라!

현종암 너처럼

신선들이 종 울리며 즐겼다는 현종암
절경속의 신선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 옛날 타종봉은 어디 있느냐
나는 밤새도록 종 울리며 해돋이 보고 싶건만
내 지금 북남을 가로 막은 장벽앞에 서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울려 갔을 종소리

나는 분렬의 고통 안고 몸부림치는 세대
나는 통일의 그리움에 목이 타는 세대
기필코 하나의 조국을 이룩할 세대

그 옛날 타종봉을 나에게 다오
통일의 첫 종소리 울리는 《신선》이 되고 싶다
그날에는 저영 통일의 날에는

밤새도록 종을 치고 또 치며

현종암 너처럼 굳어 저도 한이 없으리

해금강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일렁이는 물결 타고 해금강에 나서니
마주 선 두개의 바위기둥
큰 바위는 《향로봉》이요
작은 바위는 《초대바위》라
그 모습 그 생김 신통히도 금강문

끝없이 펼쳐 진 황홀한 바다풍경
문발을 드리운것 같은 《수렴도》앞에 서니
수천년을 정들어 예서 산다는
《부부바위》의 속삭임 미풍에 들리는듯

《얼굴바위》 제 자랑 먼저 하고픈데
《사자바위》, 《지렁이바위》 저만 보란다
명화라도 이런 명화 세상에 또 있을까
넋을 잃고 취해서 돌고 도는데
본계선이란 웬말이나

피물처럼 떠 있는 저 멀리 미국놈 침략선...

오, 이 아름다움앞에
이발을 드러낸 원쑤의 총구와 포가들
보이는 산과 강, 작은 개울마저도
독사처럼 휘감은 철조망 철조망
철과 철이 불과 불이 서로 맞댄 땅

심장에 피가 끓는다
아름다움이 동강난 해금강아
내 무슨 절승경개 노래하라
아름다움의 절정을 안아 볼수록
이 가슴에 굶이치는 불의 대하
아 통일! 통일만이
가장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여!

짚신이여

곽명철

벗어 버린지는 오래여도
결코 헤어질수 없는 계급과 함께
오늘껏 수십여년세월 자옥을 같이 해온
짚신이여

화려한 상점의 진렬장우에서
꽃신발을 고르는 이 세월에
생각 깊은 진렬장우에 올라
오늘도 세대와 세대를 부르는
짚신이여

어려 온다
엄동설한에 너를 끌고
깊디깊은 찬 눈속에 발목을 묻으며
제 키보다 큰 지주집 물독들을 눈물속에 동이로
채워 넣던
어린 머슴소녀의 그 모습이

어려 온다
악착한 지주놈의 등쌀에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깊은 밤 피눈물속에 너를 삼아 신고
정치없이 타향살이 떠나던 불쌍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 한오리 두오리
피눈물의 그 세월을 함께 감아
삼아 온 짚신이여
행복의 자옥이란 단 한자옥도 짚어 보지 못한
짚신이여
이제라도 금시 신으면
살이 쏘리고 피가 날것만 같은
저 눈물나는 짚신자옥을 따라
우리 부모들의 피 맺힌 과거가 걸어 왔다
이 땅의 계급의 력사가 흘러 왔다

짚신에서 꽃신으로
세월의 차이는 참으로 아득해 졌어도
그 세월에만 실어 보낼수 없는
계급의 유물이 되어
짚신은 오늘도 우리와 자옥을 같이 하나니

짚신은 오늘도
꽃신결에 나란히 놓여
놓여 지며
행복한 세대들이 영원히 헛디딤 없을
계급의 참된 걸음새를 준절히 가르치고 있어라

어록비에 새겨진 글

김수철(남조선)

네데를란드의 헤그를 찾게 되는 뜻 있는 사람이
라면 의례히 가보게 되는 곳이 있다. 리준렬사의 령
혼이 떠돌고 있는 아우큰다우공동묘지다.

렬사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 보며 두손 모아 명복
을 비는 우리의 마음이 마냥 무겁기만 한것은 웬일
이었을가.

몇년전 사업차로 헤그에 갔다가 아우큰다우를 찾
은 나의 심정도 다름바가 없었다.

오로지 국권회복의 뜻을 품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불철주야 로심초사하다가 비명에 요절한 리준렬
사!

리준렬사를 포함한 밀사들은 《만국평화회의》
에 참석할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올사보호조약》이 일본의 날조에 의한
것임을 타국대표들에게 안타까이 설명도 하고 호소
문도 제출했지만 일본의 방해책동으로 뜻을 이룰수
없었다.

찬바람 부는 헤그의 으스스한 곳에서는 너무도 분
통하게 산화한 렬사의 장례식이 쓸쓸히 거행되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역만리 차디찬 땅에 동료
를 묻고 무거운 걸음으로 헤그를 떠나는 밀사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가슴이 저려 오군 한다.

아, 그때 밀사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실로 가슴 터지게 안타까운 우리의 렬사요, 생가
할수록 비참한 우리 조상들의 운명이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 온 렬사는 피
와 눈물이 고여 있는 수난이 렬사요, 한과 통분이
맺혀 있는 원한의 렬사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 온 민족이 울
었다는 《시일야방성대곡》, 그 통곡소리가 오늘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듯 싶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슬픈 이야기는 없는것이다.

헤그에서 돌아 온 나는 리준렬사 어록비를 찾았
다.

리준렬사기념사입회가 마련한 높이 3.9미터, 너
비 3.6미터, 무게 20톤인 화강암으로 만든 리준렬
사 어록비.

어록비에 적혀 있는 글을 여기에 인용해 본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것이다.》

리준렬사가 헤그로 떠나기 직전, YMCA 강당에
서 진행한 《생존경쟁》이란 제목의 연설 일부분이
다.

그 어록비앞에서 발걸음을 땔수 없었다. 글자 하
나하나가 리준렬사의 거센 목소리가 되어 심장에
와닿는것이였다.

그 목소리는 리기와 타산의 제 삶 찾기에만 급급
한 우리들의 뇌리를 일깨워 주는듯 싶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리준선생이 살아 계셨던
1900년대 초의 그때와 너무나 흡사하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와 같이 사면이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 일본을 위시한 주변강대국들이 《한》반도
에 끼친 그 해독에 대하여 어찌 한두마디로 다 이
야기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근세의 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무기력하
고 우매한 존재였던가를 한탄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더는 한탄과 원망만을 할수 없다. 거
기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옛처지
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강약이 부동이라는 말이 있다. 힘이 약하면 별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네 조상들이 제아무리 국권을 지키려고 해도,
빼앗긴 국권을 찾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것이 리준렬사를 포함한 우
리네 민족이 받아 온 고통이였고 슬픔이였다.

이제는 새 천년기 21세기이다. 우리는 치욕의 그
때로부터 백년을 힘들게 지나왔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다시는 수치스러운 렬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
다.

이 시점에서 리준렬사의 말을 다시금 새겨 본다.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것이다.》

위대한 인물! 리준선생이 옳게 지적하고 있는것
처럼 그 당시 우리 나라에는 참다운 민족의 지도자
가 없었다.

황제는 저들의 가냘픈 왕족의 운명을 어리석게도
외세의 총칼에 의존하고 있었고 문무대신이라는것
들은 저 하나의 목숨부지에 급급한 비겁한 인간들
이였다.

나라와 민족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많은 애국지사

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참담게 이끌어 줄 위인, 령도자는 없었다.

요즘 세계에는 우리 조선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우리네 경제실상에 대한 《빛 좋은》 허상은 사라지고 국제금융의 통제에 들어 간 초라한 물골의 우리들에게 이것은 무엇일까?

사업관계로 자주 만나게 되는 외국인들(특히 미국이나 일본사람)이 내가 조선사람임을 알고는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는것을 여러번 겪은적이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라 따지고 물었더니 그네들은 《**김정일** 넘버 원, 넘버 원(제일, 일등이라는 뜻)》 하며 엄지손가락을 쳐드는것이였다.

그들중 한 미국인이 하던 말이 아직도 재미 있게 기억된다.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말가운데 <스틱 앤 캐럿>이라는 말이 있지요. 직역하면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이지요. 즉 말을 안 듣는 자는 때리고 말을 잘 듣는 자들은 먹을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미국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세계인들을 그렇게 대해 왔지요. 그러나 북에 대하여서는 어림 없지요.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 대하여 <스틱 앤 캐럿>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들을수록 어깨가 으쓱해 지는 명담이였다. 그옆에 있던 일본인 오다씨도 질세라 응수했다.

《우리 일본사람들도 **김정일**위원장의 파워(위력)에 놀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일본을 송두리채 변화시키고야 말것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지요. 일본은 그분앞에서 점잖아 질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반도,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이다.

최근 들어 와 이북의 강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들린다.

뜬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조미협상때 일이란다.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협상차로 온 이북특사 조명록차수에게 미싸일경기를 제의했다 한다. 즉 태평양가운데서 서로 미싸일을 쏘고 그 미싸일을 요격하는 경기이다. 제의를 받고 조명록차수 평양에 보고하고 돌아 와 클린톤에게 하는 말.

《제의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부에서는 태평양에서가 아니라 평양과 워싱턴에서 서로 미싸일발사와 요격을 할것을 제의했습니다.》

《평양과 워싱턴?!》

이 말을 듣던 클린톤, 심장이 방망이질하여 간신히 입을 열어 《미싸일경기를 취소합니다.》, 참 통

패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있다.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때 일본이 《랍치》요, 《의혹》이요 뭐요 하고 떠들자 이북은 일제식 민지통치 전 기간 일본으로 끌려 간 징용자와 징병자문제로 장훈을 불렀고 피해보상금문제에서는 일본이 《한》반도에 끼친 그 모든 손실을 종합하여 액수를 불렀다고 한다.

그 액수가 2,000억달라라나...

어쨌거나 들을수록 속이 썩원한 이야기다. 지지리도 못 살고 억눌려 세계도처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는 긍지 높은 민족이 되였다.

이북의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분께서는 그토록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시면서도 강대국들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다고 한다.

수교를 하면 몇백억이다, 뭘 얼마다 하는 일본정상배들을 가련하게 내려다 보시면서 주권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나갈것이라는 그분의 명쾌한 선언!

이북의 힘의 원천은 일심단결과 군력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시대가 막을 올렸으며 이제 우리 민족은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오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로씨야의 뿌진대통령이 찾아 가고 전 미합중국 국무장관 알브라이트도 찾아 갔다.

강대국들도 그 옛날의 조선이 아님을 알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누구도 우리 민족을 깔볼수 없다.

너무도 분통하여 눈도 감지 못하고 객사한 리준렬사도 이 사실을 알면 비로소 눈을 감을것이다.

위인이 있어야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자신의 말을 다시금 공명처럼 울리면서.

이제는 아우큰다우를 찾는 우리 《한국》사람들의 마음이 그전처럼 무겁지가 않을것이다.

리준렬사가 넘원하던 위인이 계시는 위대한 나라가 북에 있기때문이다.

그전날 세계무대에서 동정조차 받지 못하던 우리 민족은 세상사람들이 우러르는 위대한 민족이 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덕분이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어처구니

리성철

1. 시라소니들

하늘중천으로 둥근달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 깊은 밤이었다.

풀벌레소리마저 멎어 버린 고요한 수림속 령길에 갑자기 소란스러워 졌다.

웬 짐승들이 사슴 한마리를 몰고 령마루로 오르면서 벽씩 떠들어 대고 있는것이였다.

네놈이 사슴을 몰아 대는중의 한놈은 말같이 큰 그 사슴의 잔등우에 척 올라 앉아서 건들거리고 있었다.

날과람 있어 보이는 황갈색의 몸뚱이에 둥그스름한 대가리, 얼핏 보면 작달막한 호랑이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어지간히 큰 고양이 같기도 했다. 하지만 호랑이도 고양이도 아니였다. 귀박죽우에 삐죽 솟구쳐 오른 긴 털몽치와 칼로 썩둑 잘라 버린 듯 불품없이 몽툯한 꼬리만 보아도 호랑이나 고양이 아니라는것이 알린다.

그럼 도대체 웬 짐승들인가.

시라소니들이였다. 항간에서 《머저리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라소니.

모색이 엇비슷한 수천마리의 꿀벌들도 개개가 다 특징이 있고 이름이 있는것처럼 시라소니들한테도 이름이 있는데 사슴잔등에 올라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는 시라소니는 어처구니라고 부른다.

어처구니는 시라소니들의 두령이였다. 두령인 어처구니만이 아니라 여느 시라소니들도 제 나름의 이름이 있건만 여기서는 편리상 그저 듣기 좋게 첫째, 둘째, 셋째로 부르기로 하자. 사슴을 중심으로 오른 쪽에서 걷고 있는 시라소니는 첫째요, 왼쪽의 시라소니는 둘째요, 뒤에 바투 따라 서고있는 시라소니는 셋째로.

《히- 이래두 우리가 <머저리범>이라는 소릴 들어야만 하는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제격 여느 시라소니들의 신경을 돋구었다.

《우리가 왜 머저리요?》

둘째가 대뜸 불 부은 소리를 했다.

《우린 호랑이보다 몸집이 좀 작으게 흠이지만 재간은 한가지 더 있지 않소. 범이 오르지 못하는 나무잡이재간 말이요.》

《하- 그래두 모자라는게 있기에 그러겠지?》

어처구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능청스럽게 살짝 물었다.

《그건 다 호랑이탓이요, 호랑이탓.》

이번엔 첫째가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전에 우리한테 왔던 승냥이도 말하지 않았소. 솔골의 그 호랑이대왕이 너무 용맹을 떨치니 반대로 밤골의 우리 시라소니들이 놀리운다고. 정말 우리가 머저리들이라면 날래기로 소문난 이 덩치 큰 사슴을 어떻게 사로잡았겠소.》

《그 말이 옳아요.》

셋째도 축에 빠질세라 소리 질렀다.

그 호랑이만 없으면야 솔골, 밤골 할것없이 우리 양지동산 짐승들모두가 어처구니두령님을 대, 대왕으로 떠, 떠받들거예요. 사슴아, 그, 그렇지? 어디 네가 좀 말해 보렴.

셋째는 사슴의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씨벌됐다.

사슴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힐끗 돌아다 보더니 코웃음쳤다.

《네놈이 감히 우리 호랑이대왕님을? 흥!》

면박을 받은 셋째 시라소니는 악에 받쳐 욱유했다. 당장 사슴의 목줄대를 끊어 놓겠다며. 여느 시라소니들이 너도나도 말렸으니 다행이지만 가만 놔두었더라면 무슨 변이 날번 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호랑이만 없으면 우리 시라소니들이 《머저리범》이라는 소릴 들을 넘려두었구 대신 이 어처구니가 대왕님이 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어처구니는 부하들을 내려다 보며 입을 열었다.

《음, 그래그래. 모든게 다 호랑이탓이구말구. 그 호랑이만 제끼면 우리가 동산의 짐승들을 모조리 다 거머쥐고 땡땡거리며 살수 있단 말이야.》

《웁소, 웁소. 당장 호랑이를 제끼구 어처구니두령님을 양지동산의 대왕님으로 올려 모시자구.》

시라소니들모두가 흥분되어 떠들어 댔다.

이렇듯 열을 올리며 기세등등하여 령마루로 오르던 시라소니일행은 와들와들 놀라며 멈춰 섰다.

놀랍게도 두눈에 불을 환히 켜 호랑이가 령길을 뚝 막아 섰던것이였다.

《이놈들, 꿈쩍 말고 게 섰거라.》

호랑이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착한 사슴은 왜 잡아 가는거냐. 놔두고 다들 물러 가지 못할가.》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는 호랑이의 도고하고도 위풍에 찬 기상앞에 시라소니들은 기가 죽었다.

어처구니는 몸을 떨며 생각했다.

(어떻게 할가? 달아뺄것인가 아니면 맞서야 하는가. 아니 이제 물러 서면 다야. 아무렴 우리 넷이 저

놈 하나를 못 제깎가.)

어처구니는 이 두령의 담력을 좀 보라는듯 호랑이를 향해 샷대질하기 시작했다.

《호랑이님, 마침 잘 만났수다래. 그러지 않아도 한번 겨루자고 버르던 참이었는데요.

우리 시라소니들이 결코 당신보다 못지 않다는걸 보여 줄테니 한번 겨루어 봅시다래.》

어처구니는 가까스로 허세를 부렸다. 그랬건만 그 용기는 부하들을 부추기는데 은을 냈다.

두령의 객기에 힘을 얻은 시라소니들은 움츠렸던 대가리들을 쳐들고 호랑이와 맞설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허, 눈 먼 말이 제일 용맹하다더니...》

호랑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어디 덤벼들어 보라는듯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다.

《뭐 눈 먼 말? 그럼 우리가 눈 먼 말이라는거요? 하긴 눈 먼 말이던 눈 먼 시라소니던 시비가릴게 없지. 이기면 뭘테니까!》

서로 노려 보는 긴장한 속에서 시라소니들은 호랑이를 에워쌌다. 하지만 호랑이는 태연자약했다. 여전히 길 한복판을 우뚝 막아 선채 까딱 안했다.

《시작해라!》

두령의 신호에 따라 호랑이앞으로 다가들던 시라소니들은 입을 딱딱 벌리며 엉거주춤 멈춰 섰다. 놀랍게도 호랑이가 꼬리를 휘저어 새된 바람소리를 내면서 뒤로 달려 드는 시라소니를 쳐눕혔던것이다. 꼬리에 얻어 맞은 그 시라소니는 너부러진채 꼼짝 못했다.

호랑이는 런이어 앞을 막아 선 두 시라소니를 타락 쳐갈겼다. 강대한 앞발타격이 얼마나 센지 한 시라소니는 등뼈가 부러지고 또 하나는 대갈통이 터져서 너부러졌다.

(아니, 저런!... 보통이 아니구나!)

그제야 상대를 잘못 건드렸음을 깨달은 어처구니는 제격 사슴의 잔등에서 뛰어 내려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다 보는걸 잊지 않았다.

여겨 보니 호랑이가 사슴의 잔등을 다정히 쓸어 주며 떠나보내는 모습이 안겨 왔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꺼이꺼이 울고 있던 어처구니는 이발을 으득으득 갈며 하늘에 대고 고아 댔다.

《내 몸이 열두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하고 말테다. 가만 놔두지 않을테다!》

어디선가 밤새의 울음소리가 처량히 울려 오고 있었다.

《접동, 접동...》

2. 여우와 말승냥이

해별이 간간이 흘러 드는 바위굴속에 생김새가

서로 다른 세 짐승이 있었다.

한 짐승은 사냥개처럼 채털 털가죽에 거무튀튀한 상관이며 뺨쪽한 두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냥개와는 달리 뒤다리보다 앞다리가 더 길어서 상체가 우뚝 솟구쳐져 있었다.

승냥이었다. 승냥이족속중에서도 몸집에 제일 커서 말승냥이라고 불리우는 늑대였다.

사납다고 하는 메돼지나 힘장사인 갈색곰들도 은근히 두려워 하는 포악한 맹수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승냥이는 통방울 같은 눈알을 희번덕이며 바위굴속을 왔다 갔다 거닐었다. 그럴 때마다 땅에 척 드리운 긴 꼬리가 칠칠 끌리어 다니곤 했다.

다른 짐승은 날씬하고 긴 허리에 너부족한 꼬리, 뾰족한 주둥이에 새노란 두눈을 뱅글뱅글 돌리는 여우였다. 헬끔헬끔 말승냥이의 눈치를 보고있었다. 여우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짐승은 키 작은 범처럼 생긴 시라소니였다. 호랑이와 맞섰다가 죽을뻔했던 바로 그 어처구니였다.

어처구니가 머나먼 길을 달려 와서 이 말승냥이를 만날수 있었고 또 간절한 청탁을 할수 있게 된 데는 여우의 공적이 많았다.

그날 밤 멧없이 흰소리치며 호랑이와 맞섰다가 동생벌 되는 친근한 시라소니들을 모두 다 잃고 외로리가 된 어처구니는 동굴속에 들어 박혀서 끙끙 앓고 있었다. 수적우세를 믿고 달라붙었건만 호랑이를 제끼기는커녕 수염 한대 다쳐 보지 못한채 죽음을 셋이나 냈으니 복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으득으득 이를 갈며 모대기고 있는데 하루는 누군가 문밖에서 찾는 소리가 났다. 내다보니 뜻밖에도 갈섬에서 사는 여우였다. 긴 허리에 황불색의 털옷을 입은 불여우였다. 지혜가 남 다르게 뛰어 났다는 불여우.

어처구니는 여우를 보자 상통을 쥔그렸다. 확 풍겨 오는 노린내도 역했지만 뾰족한 주둥이며 뱅글거리는 새노란 눈알이 보기 역겨웠던것이다.

시라소니들은 위낙 여우족속들을 좋아 하지 않았다. 들러 오는 소리마다 불여우가 누굴 홀려 갔다느니 혹 여우가 무얼 채갔다느니 하는 좋지 못한 소리들뿐이니 그런 놈들과 가까이 했다면 손해밖에 볼것이 없다고 생각해 오던터였다.

《안녕하시나요, 어처구니형님.》

푸점 종계도 여우는 어처구니를 대뜸 형님으로 추어 울리며 깅깅이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저... 형님께서 호랑이와 정면으로 대결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히야, 대단한데요!》

(이놈이 무슨 수작을 하자고 이렇게 썰썰거릴가?)

어처구니는 시답지 않은 태도로 물었다.

《헌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그런데 듣자하니 싸움끝에 피해를 좀 보셨다면

서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나요? 난 형님이 맥을 놓고 쓰러질까봐 위로하고 도와 주려고 왔어요. 형님, 우리 복수합시다요. 그놈을 요정덱시다요.》

어처구니는 호기심이 났다.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왔다고 낮을 찡그렸는데 생각과는 좀 다르지않는가. 하지만 엮어 대는 소리는 고마우나 체소한 그 몸으로 뭘 어떻게 도와 주겠다는건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처구니는 슬쩍 떠보았다.

《찾아 와서 위로해 주니 고맙네만 무슨 힘으로 그 용맹한 호랑이를 요정낸다고 그러나. 그래 깔따구 같은 자네가 우리 시라소니들 셋보다 낫단말인가?》

여우는 물끄러미 마주 보더니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유, 생각 없는 머저리는 가만 앉아서 좋은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더니...》

《뭘, 그럼 내가 머저리란 말이야?》

어처구니는 발끈 성을 냈다.

《힘만 믿고 싸운다면 아둔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엔 <지혜가 있으면 사나운 악어도 잡을수 있고 기지가 있으면 사나운 말도 길들일수있다>는 격언이 있지요.》

여우는 지혜가 샘 솟는 자기 머리를 바칠테니 힘과 지혜를 합쳐 거사를 치르자고 했다.

《이제 늑대어른까지 셋이 되면 무서울게 없어요.》

《늑대라니? 음지동산의 말승냥이 말인가?》

어처구니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چه노랍시고 으시대는 말승냥이가 이 양지동산까지 와서 날 돕자고 할텐가? 안될 일이야.》

《아유, 길고 짧은건 대박야 안다구 늑대는 호랑이와 적수지요. 언젠가 노루사냥을 한답시고 이 양지동산까지 마구 들어 왔다가 호랑이한테 쫓기여 벼랑에서 떨어 지기까지 했다던데 그래선지 그는 송곳이를 갈면서 늘 호랑이를 제길 기회만 찾고 있대요.》

《그래?! 아, 그렇다면야!》

어처구니는 환성을 올렸다.

그리하여 어처구니는 여우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음지동산인 이독굴의 이 동굴속에 들어 섰던 것이다.

《호랑이와 정면으로 맞섰단 말이지?!》

동굴안을 왔다갔다하던 말승냥이가 우뚝 멈춰서며 어처구니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날카로운 송곳이를 드러내며 뇌까렸다.

《하긴 생쥐 고양이한테 덤빈다는말이 있지.》

(뭘, 생쥐?!)

어처구니는 모욕감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럼 용감한 시라소니들이 다 생쥐란 말인가요?》

바빠맞은 여우가 새노란 두눈을 뱅글거리며 들이댔다.

《아, 노여워 말라구. 내 그저 해보는 소리지뭘.》

말승냥이는 마주 보는 눈길들을 피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인차 《내 조언을 줄테니 어디 좀 들어 보라구.》 하고는 자기가 유식하다는것을 뽐내고저 그러는지 아니면 원체 남을 혼시하기 좋아 하는 성미인지 어디서 주어 들은 소리를 꿰쳤다.

《약자는 함부로 강자를 건드리지 말라! 했거늘 괜히 자는 범 깨우지 말라구.》

어처구니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이런 혼시나 받자구 혈떡거리며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여우도 눈이 켜해서 말승냥이를 쳐다보았다.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놀라운 눈길이었다.

《이거 섭섭합니다요. 그래도 믿고 불원천리 찾아왔는데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할망정 실망을 주나йка.》

여우는 눈물을 짜며 상대를 감동시키고저 애썼다. 어처구니를 너무 알보지 말라고 그도 범의 사촌이요 범이 오르지 못하는 나무우에도 펄펄 날아오르고 뛰어 내리며 사슴과 메돼지 같은건 눈감박할 사이에 물어 메치는 날래고 용맹한 맹수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팽팽 돌아 책략가로 소문난터인데 그래 셋이 합치면 누가 강자가 되고 누가 약자가 될것 같은가고 들이댔다.

하지만 말승냥이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응하려하지 않았다.

이럴수가 있는가? 여우는 아연해서 잠시 멍청히 말승냥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더니 무슨 수가 떠올랐는지 발뻘발뻘 말승냥이결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응? 그건 안되네.》

왜서인지 말승냥이는 여우의 말을 막으며 그를 콕 밀쳐 버렸다.

여우는 땅바닥에 넘어 젖어도 실망하지 않았다.

《기회란 두번 다시 오기 힘들다 했거늘 왜 승냥이 어르신은 하늘이 주는 좋은 기회를 놓치여 후회하려 하시오?》

곤덕지게도 여우는 다시금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말승냥이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했다.

어처구니는 기분이 잡쳐 졌다. 여우가 무슨 꿈꿨이를 하는지 말승냥이가 통방울 같은 눈알을 데룩거리며 힐끔 건너다 보는게 심상치 않았다.

《그럼 한번 던져 봐?》

말승냥이는 어처구니를 쳐다보며 히물거렸다.

(던지다니? 어디다 뭘 던진다는거야?)

어처구니는 불쾌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눌러야만 했다. 거사만 치를수 있다면 그 어떤 수도모도 곤난도 극복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눈치만 살폈다.

말승냥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뇌까리기 시작했

다.

《좋아, 좋아. 그런 투지와 배짱이 마음에 든다. 종개도 많으면 범을 잡는다 했거늘 우리는 종개도 아니요 날구 뛰는 이름난 맹수들이다. 그래 맹수들 셋이 호랑이 하나 못 제길가.》

《아, 그럼요. 우리 셋이 합심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지요. 해해...》

여우는 좋아서 꼬리를 저어 대며 웃어 댔다.

《진정한 벼은 불행할 때 알수 있다 했거늘 어처구니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지. 여우야, 우리 호랑이를 제끼고 어처구니를 양지동산의 대왕자리에 앉히기 위해 힘껏 싸우자꾸나. 목숨까지 바쳐.》

말승냥이는 아주 달라 저서 어처구니의 잔등까지 다독여 주었다.

모름지기 아까는 제 몸값을 올리느라고 비틀어본 것 같았다.

(그럼 그럴겠지. 아무렴!)

어처구니는 고까왔던 생각이 삽시에 녹아 내리고 가슴이 후더워 올랐다.

《고맙습니다. 내 평... 평생토록 말승냥이님을 하늘처럼 믿고 받들겠습니다. 정말 하늘처럼...》

어처구니는 갈린 음성으로 떠들거렸다.

《야, 여우야, 거 쪽대도 웃매듭, 아래매듭이 있는데 우리도 형, 동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좋아서 흐흐 웃고 있던 말승냥이가 문득 여우를 돌아 보며 건네는 말이였다.

《아, 정말 그렇군요. 우리 의형제를 못자요.》

여우는 어처구니와 말승냥이를 둘러 보며 박수를 쳤다.

의논끝에 말승냥이가 만형이 되고 어처구니는 둘째, 여우는 막내동생이 되었다.

말승냥이는 만형이랍시고 한마디 혼시했다.

《발이 발을 돕고 옷턱이 아래턱을 돕는것처럼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형제가 되구,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 우린 살아도 죽어도 운명을 같이 하자구.》

세 짐승은 굳게 언약했다. 서로를 위해, 거사를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자고!

이날 말승냥이는 이 뜻 깊은 날을 어찌 맨승맨승하게 보내겠는가 하고 하면서 어처구니와 여우를 이끌고 사냥길에 나섰다. 양네 집을 습격하려는 것이였다. 높은 울담장때문에 어찌지 못하던것인데 어처구니의 도움으로 한번 《즐거운 사냥》을 하려는 심산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어처구니는 높은 담장을 어렵지 않게 후닥닥 뛰어 오르더니 눈 깜박할 사이에 대문을 활짝 열어 제겼다.

《하, 거 정말 날랜데!》

여우와 말승냥이는 감탄했다.

《이놈의 꼬부랑 양새끼들아, 이래도 우리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중간에서 눈치놀음할테냐?》

말승냥이는 으르렁거리며 닥치는대로 양들을 몰

어 메치기 시작했다.

양들은 아우성치며 사방으로 흩어 졌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어처구니는 피 흘리며 쓰러지는 양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세상에 이렇듯 어리무던한 바보들도 있는가. 머리우에 돌아 있는 그 역센 뿔로 냅다 받으면서 한결같이 맞받아 나선다면 무서울것이 없으련만 저저마끔 구석진 곳으로 달아 나 대가리만 틀어 박다니...

얼마후, 약자들과의 싱거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달은 어처구니와 여우는 피 묻은 입술을 핥으며 물러 섰다. 그러나 말승냥이만은 물러 설념을 안했다. 오히려 이제 그만 진정하라고 말리는 어처구니에게 《이건 뭐야, 결판두 나기전에》 하고 역증을 내며 밀쳐 버렸다.

넘어 저 엉덩방아를 찢는 어처구니를 여우가 부축하여 일으켜 주며 위로했다.

《오해하지 말아요. 형님은 아직 승냥이기질을 몰라서 그럴수 있어요.》

《승냥이기질이라니?》

말승냥이는 마지막한마리의 양이 쓰러질 때까지 깨깨 다 물어 메쳐 그들이 피를 량자하게 흘리며 숨지는것을 보고서야 직성이 풀려 물러 났다. 결국 말승냥이 혼자서만도 서른마리의 양을 물어죽인 것이였다. 그제야 말승냥이는 시뻘건 아가리를 한껏 벌리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 알텐가. 이 승냥이기질이란 어떤것인지.》 하고 웨치는것만 같았다.

어처구니는 말승냥이가 좀 미웁하고 얄밋긴 했으나 싫지는 않았다. 도리어 그와 함께라면 무서울것이 없겠다는 신심이 생겼다.

여우와 말승냥이를 가까이 사귄 다음부터 어처구니한테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별치 않은것을 가지고도 흥분하며 떠들며 대는가 하면 웃기도 잘하고 성을 내기도 잘했다. 오가는 짐승들을 붙잡고 괜히 트집을 잡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마치 대왕이 다 되기라도 한듯 존대를 받고싶어 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는 말승냥이와 여우가 뒤를 받쳐 주고 역성을 들어 주니 두려운것이 없고 근심되는것이 없었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호랑이를 제끼는 일만은 생각처럼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애 태우던 세 짐승에게 하루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호랑이가 끄덕끄덕 졸며 굴앞에서만 맴돈다는 것이였다. 하루밤에도 몇백리를 거닌다는 호랑이가 굴앞에서만 맴돌다니? 이건 분명 병에 걸린것이다. 세 짐승은 대뜸 환성을 올렸다.

《이젠 됐구나!》

3. 불청객들

깊은 산속이었다. 아름답리 사시나무우에 웬 짐승이 앉아서 줄곧 아래를 노려 보고 있었다.

고양이처럼 생긴 동실한 대가리에 불품없이 몽툭한 꼬리를 가진 짐승이었다. 시라소니였다. 어처구니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시라소니.

어처구니가 앉아 있는 사시나무아래컨엔 시꺼먼 아구리를 짝 벌린 커다란 굴이 있었다.

어처구니는 바로 그 굴을 지켜 보고 있었다.

주린 배속에서는 쪼르르거리는 소리가 연방 울려나오고 피곤이 물린 눈꺼풀은 자꾸만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지만 어처구니는 애써 참았다.

(왜 나오지 않을까? 혹시 굴안에서? 아니, 좀더 기다려 보자. 좀 더...)

어처구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다렸다. (오늘은 끝장을 보고야 말테다. 끝장을!)

과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우람찬 몸집에 허리가 늘씬한 짐승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굴밖으로 걸어 나왔다.

누르끼레한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짙게 내려간 호랑이었다.

이마밖에 뚜렷한 임금 왕(王)자 무늬, 송곳처럼 내뿜은 흰 수염, 불을 뿜는듯 무섭게 번뜩이는 등근 눈!

(역시 대왕님다운 위풍이 있어!)

위엄에 찬 호랑이의 모습이 가까와 지자 어처구니는 점점 기가 죽어 나무뒤로 몸을 숨겼다.

이때 저 아래컨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울려 왔다. 돌아 보니 새초발을 헤치며 두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다.

앞에 선것은 허우대가 크고 우람진 몸통과 재빛 털색갈로 보아 말승냥이가 분명했고 뒤에 선것은 작은 키에 긴 허리를 갑작거리는 행동거지로 보아 여우라는것이 대뜸 알렸다.

《호랑이님!-》

《대왕님!-》

호랑이를 알아 본 말승냥이와 여우는 멀리서부터 소리쳐 부르며 달려 왔다.

《아니 갑자기 웬 일들인가?》

호랑이는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호랑이님, 몸이 좀 어떻습니까?》

《얕으신다기에 병문안을 왔습시다요, 호랑이님. 저 하늘은 해가 있어 빛나고 이 밀림속은 호랑이님으로 빛나는것이옵니다. 그런데 얕으시면 어찌나йка.》

여우는 눈굴을 훑치며 목 멘 소리로 떠들거렸다.

《허, 빠르기두 하다. 누가 그런 소식을 전해주던가.》

《다 아는 수가 있습지요. 새가 알려 주고 쥐가 알려 주고...》

《변변치 않지만 성의로 알고 좀 드십시오.》

여우와 말승냥이가 풀어 헤치는 구레미속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함께 희끄무레한 색갈이 나는 사기단지가 나왔다. 웃주둥이는 좁고 아래는 동실하게 배가 나온, 아주 멋지게 생긴 단지였다.

《호랑이님, 이 단지안엔 <백화불로주>라고 부르는 이름난 약술이 들어 있습니다.》

말승냥이가 호랑이앞에 단지를 올리며 설명했다.

《듣자 하니 이 <백화불로주>는 만물의령장인 사람들중에서도 왕족들만 마셨다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보약술이라고 합니다. 더우기 이건 땅속에서 300년 묵은것이여서!...》

《300년전의 약술? 그게 사실인가?》

호랑이가 놀라움에 묻자 여우가 허리를 갑작거리며 사실을 늘어 놓았다.

《예예, 그게 죄다 사실임을 이 여우가 목을 걸고 보증합니다요. 이 여우는 조상대대로 머리가 팽팽 돌아 꺾 많다는 칭찬을 받는 반면에 남을 속여 먹길 잘하는 특기가 있어 못짐승들한테 미움개도 사고 때로는 애매한 욕도 많이 먹던 놈이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나쁜 버릇이 다 없어져 지금 호랑이님앞에서 하는 말은 티끌만 한 거짓도 섞이지 않은 사실이오니 받아 주십시오. 해해...》

우린 어느 한 옛 성터주변에서 웬 땅굴을 발견하여 그안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지요. 아, 그런데 그 땅굴속에 글썽 희귀한 보물들과 함께 이런 단지가 있지 않겠나요.》

처음엔 단지에 새겨진 멋진 무늬와 알지 못할 글자들을 보면서 두 친구는 고개를 기웃거렸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것이 유명한 <백화불로주>라는 것을 알게 되자 누군가 단지를 부둥켜 안으며 다치지 못하게 하였다는것이다. 여우였다. 웅당 산중의 대왕이신 호랑이님한테부터 권하는것이 도리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귀를 강구고 있던 어처구니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건 죄다 사실이야. 호랑이님, 그 말은 믿어두 되겠습니다요. 이 어처구니가 보증합니다요.)

그때 있었던 일을 금시련듯 새노란 눈알을 뱅뱅 돌리기도 하고 앞발을 살살 휘젓기도 하면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여우를 물끄러미 마주 보던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그렇단 말이지...》

호랑이는 웃으면서 찾아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랑이는 독한 약술을 좀 마셔서인지 별스럽게도 눈을 쪼프리며 말승냥이와 여우를 유심히 쳐다보는것이였다.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말승냥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자네들은 도대체 어떤 사이인가?》
 호랑이의 입에서는 뜻밖의 물음이 튀어 나왔다.
 《예? 무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온지?》
 《언제 보나 임자네들은 늘 붙어 다니니 하는 말
 이네. 그림자처럼.》
 《예, 그 말씀인가요. 난 또 무슨 큰 일이라도...
 우린 형제간입니다요. 흐흐.》
 말승냥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형제간이라니? 그럼 둘이 다 한어머배속에서 나
 왔단 말인가?》
 《?...》

말승냥이는 호랑이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뿐 대
 답을 못했다. 모름지기 배 다른 형제라고 말한다면
 더 험악한 비난의 질문이 쏟아져 나올까 봐 두려
 운 모양이었다.

이때 여우가 난처해서 어물어물하는 말승냥이를
 도와 나섰다.

《아유, 우린 말이지요. 이를테면 친구지간입니다
 요. 형제간보다 더 가깝고 사이 좋은 친구입지요.
 해해.》

《친구라? 음, 그런 사이였됐군.》

머리를 끄덕이던 호랑이가 불현듯 《그럼 그 시
 라소니하구두 친구지간이겠구먼? 그런데 그 친구
 는 왜 보이지 않나?》 하고 물었다.

《어처구니 말인가요? 그야 올수 없지요.》

호랑이의 의문에 찬 눈길과 마주치자 말승냥이는
 당황하여 떠들거렸다.

《그건 저... 아, 그야 머, 머저리인걸요.》

머저리라구? 나무우에서 귀를 강구고 있던 어처
 구니는 눈이 쾅해 졌다.

이때 여우가 뾰족한 주둥이를 난딱 쳐들며 말승
 냥이의 말을 보충해 주었다.

《예, 그 어처구니 좀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남기도 하는, 예, 그런 친구입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듯 급이 높고 위신 있는 좌석에는 어울릴 재목
 이 못되는 놈입지요. 그렇다 보니. 해해... 그렇습지
 요.》

어처구니는 입을 딱 벌렸다.

《허, 그런가. 헌데 듣자 하니 셋이 꽤를 지어다닌
 다던데? 착한 짐승들을 막 해치면서 말이야.》

호랑이의 비꼬는 소리에 제격 여우가 발라 맞추
 었다.

《시, 어처구니야 호랑이님앞에 죄 지은 놈인데
 어떻게 감히 여기 오겠나요. 호랑이님, 우리가 그놈
 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요. 해해
 ...》

승냥이도 제격 맞장구를 쳤다.

《목을 매서라도 그놈을 호랑이님앞에 끌어다 놓
 겠습니다. 다시는 날치지 못하게스리. 흐흐...》

(뒹, 내 목을 매어 끌어 오겠대구? 하, 이거 아무
 리 롱말이라도 정도가 있지...)

어처구니는 기분이 잡쳐 졌다. 뺨이 난 김에 막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큰
 일을 하는데 그만한 허튼소리도 못하랴 하는 생각
 이 든것이다.

어처구니는 호랑이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대며
 비웃었다.

(호랑이님, 그 소릴 곧이 듣소? 그래 내가 머저리
 라면 감히 대왕이 될 꿈을 꿀수 있겠소. 그리구 난
 다긴다 하는 저 승냥이와 여우가 여기까지 와서 날
 도와 나설수 있겠는가 말이야요.)

이윽고 여우와 말승냥이는 자리에서 일어 섰다.

4. 침묵속의 대결

말승냥이와 여우가 돌아 가자 드디어 자기 차례
 가 되었다고 생각한 어처구니는 속으로 비꼬았다.

(호랑이님, 이젠 이 어처구니의 선물도 좀 받아주
 셔야지요.)

그러면서 어처구니는 품속에서 바줄을 꺼내들었
 다. 바줄의 한끝은 동그랗게 울가미가 매여 저 있었
 다. 어처구니가 말승냥이로부터 받은 과업은 약술
 을 마신 호랑이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며 나무 아
 래로 다가오는 순간 얼른 목에다 울가미를 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호랑이는 가만 앉아 있기만
 할뿐 거닐념을 안했다.

(어떡한다? 가만 있다가는 안되겠어.)

어처구니는 나무를 꺾었다.

고요한 숲속의 정적을 깨치며 생나무 꺾는 소리
 가 《딱-》하고 울리자 호랑이는 언뜻 머리를 쳐들
 었다.

나무우에 척 앉아서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는 어
 처구니를 발견한 호랑이는 놀라서인지 《어흥-》
 하고 소리를 냈다.

불이 펄펄 이는 호랑이의 두눈을 보자 어처구니
 는 황황히 나무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다. 호랑이가 나무
 잡이를 할줄 모른다는데 안심이 된 어처구니는 다
 시 대가리를 빠금히 내밀었다.

정말이지 호랑이는 나무우를 뚫히 올려다 보기만
 할뿐 여전히 가만 앉아 있을뿐이었다.

은근히 담이 커진 어처구니는 호랑이를 놀려 주
 려고 했다. 동그란 대가리를 가웃거리면서 불품없
 이 몽툰 꼬리를 살래살래 저었다.

《호랑이님, 날 잡지 못해 안타깝겠지요? 잡겠으
 면 어서 올라 오시라구요. 어서, 이서...》

하고 놀려 대는것이다.

《허, 네 주제에 누굴 놀리려 들어? 삶은 소대가리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이구나.》

호랑이와 어처구니는 얼굴표정과 몸동작으로 서
 로 의사를 나누며 대결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주체가 어떻다는거요? 그래도 남들은 날 보기 아주 멋 있다던데요. 대왕님이 될 위풍 있는 기상이라면서!》

《그래? 허허... 바보일수록 더 우쭐한다더니. 이놈, 그만 까불어 대구 어서 냉큼 내려오지못할까. 땅에 떨어 저 대가릴 곤두박기전에.》

《내가 왜 땅에 떨어 저? 그레 호랑이님재간에 날 떨어 드릴것 같애요? 안돼요, 안돼. 그 누구도 이 어처구니를 어찌지 못해요, 못해!》

호랑이는 입이 쓰거운지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제 슬그머니 앞발을 쳐들었다. 박달몽둥이마냥 단단해 보이는 앞발이 건듯 들리자 여직껏 감추어져 있던 날카로운 갈구리발톱들이 삐죽삐죽 뻗어나왔다.

어처구니는 등골이 오싹해 졌다. 한대 얻어 맞기만 하면 대번에 허리가 부러져 나갈 판이었다.

《그, 그건 뭐요, 날 위협하는거요?》

《음, 너 정신 못차리구 그렇게 계속 분별없이 날 뛰다가는 제 명도 다 못 살고 똬지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걸 경고하는거다!》

《뭐, 뭐 제 명도 다 못살구 똬진다구?》

어처구니는 드디어 침묵을 깨치며 고아 땀다.

《어디 두고 보자, 이제 누가 이기나 어디 두고 보잔 말이야!》

어처구니가 떠들어 대건 말건 호랑이는 썸뽕 좋게 먹다 남은 약주와 음식을 먹어 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어처구니는 주린 창자가 더욱 쓰러나서 애꿎은 나무가지만 딱딱 꺾어 내며 푸르락거렸다.

그리고 있던 어처구니는 두눈이 뻥굴해 졌다. 아나 글썽 호랑이가 끄덕끄덕 졸고 있지 않는가. 우두커니 앉은채로 드렁드렁 코를 끌고 있었다.

(하, 그럼 그렇겠지! 아무렴 독한 약주를 마시는 데 취하지 않을수 있을라구.)

나무아래로 발발 기어 내려 온 어처구니는 호랑이의 등뒤에서 조심조심 서성거렸다. 올라가기를 걸어야 할텐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다.

(안되겠어. 괜히 나 혼자 하다가...)

어처구니는 부랴부랴 골짜기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정충거리며 달려 가는 어처구니의 궁둥이아래로는 불쑥없이 몽툰 꼬리가 이쪽저쪽으로 분주히 흔들거리고 있었다.

5. 오 해

허둥지둥 달려 가던 어처구니는 주춤 멈춰 섰다. 여우와 말승냥이가 너럭바위아래서 쿨쿨 자고있었던것이다.

이럴수가 있는가. 남은 나무우에서 배를 출출 끓으며 호랑이와 신경전을 하게 하고 지희들은 배불

리 먹고 썸뽕 좋게 낮잠을 자다니.

《이거 도대체 어찌자는거요?》

어처구니는 말승냥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건 누구야. 단잠을 깨우는게?》

말승냥이는 술내를 풍기며 짜증을 냈다.

《듣고도 모르겠소? 머저리지, 모자라는 친구.》

《머저리? 오, 너 어처구니구나. 헌데 이름을 바꿀셈인가? 하긴 머저리라구 부르는게 더 좋을수두 있지!》

《또 또? 이거 참는것도 분수가 있지 정말 계속 이럴내지요?》

어처구니는 왈칵 성을 냈다.

그만해야 말승냥이와 여우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아니 성은 왜 내나?》

《성을 안 내게 똥소? 언제는 대왕님이 될거라며 잔뜩 울리 취주더니 이제 와선 머저리다, 모자라는 친구다 하며 승벽내기로 깎아 내리니...》

《흐흐... 자네앞에서는 우스개소리도 못하겠구만.》 말승냥이는 시뻘건 아가리를 한껏 벌리며 웃어 대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한텐 그 머저리라는 소리가 잘 어울려.》

순간 어처구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말승냥이는 계속 씨벌거렸다.

《가령 푹푹한 생쥐와 어리무던한 고양이와 있다고 합세. 그 둘중에 누가 낫겠나?》

《거야 아무렴 고양이가 얼짜 낫습지요.》

여우가 대뜸 말참네를 했다.

《그래. 바로 그런 리치란 말이야. 자넨 머저리라고 부르지만 그 말꼬리엔 <범>자가 붙는단 말이야. <머저리범> 호랑이죽속이라는 소리가 아니겠나.》

《그럼요. 우리 같은건 열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런 칭호는 받아 보지 못합지요.》

여우의 맞장구치는 소리까지 듣고 난 어처구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헤벌쭙 웃었다.

《아, 정말 듣고 보니 그렇군요! 아무렴!...》

《개는 가마를 태워도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줄 모른다더니... 저를 위해 고생하는 우릴 업구 다너도 성차지 않을텐데 도리어 행패질하다니. 난 돌아 가려네.》

말승냥이는 당장 떠나가겠다며 우물렁거렸다.

어처구니는 말승냥이를 부여잡으며 간청했다.

《아, 이러지 마시라요.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마감까지 도와 주십시오. 거사만 성공하는 날이면 내 뭐든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록용이면 록용, 짐승이면 짐승 달라는데로 다 드리지요. 여우한테 두.》

《음, 그래 그래!》

그제야 말승냥이는 누그러지며 흐흐 웃었다.

여우도 좋아서 해해거렸다.

어처구니는 여우와 말승냥이가 웃고 떠드는 모습

을 쳐다보며 속으로 코방귀를 쏘다.

(꽤나 좋아들 하는구나. 그저 준다고 하니 좋아해. 흥, 내가 왜 다 줘? 너희들의 힘을 빌려 호랑이를 제끼자고 하니 귀맛 좋은 소리 하는거지 어림도 없다.)

호랑이사냥길에 오르던 세 짐승은 운수 좋게도 재빛토끼를 발견하고 사로잡았다.

《보라구. 바다물속의 룡궁에 들어 가 룡왕까지 속여 넘겼다는 영특한 토끼도 우리 세 친구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걸! 으흐흐...》

말승냥이는 토끼의 길다란 두귀를 잡아 허공중들어 올리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럼요. 이제 우리들앞에 호랑이도 요 모양이 될겁니다요. 해해해...》

여우가 발라맞추는 소리였다.

어처구니도 늦을세라 《오, 옹습니다. 나두 승냥이형님을 크게 믿었기에 나무우에서 배를 출출 끓으면서도 참고 견딜수 있었던겁니다요.》 하고 제격 말승냥이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래?! 아무렴 그래야지! 그저 이 승냥이형님만 폭 믿으라구. 그러지 않아도 내 오늘 자네들에게 호랑이는 어떻게 목 매달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려네.》

말승냥이는 저 혼자 거사를 다 치를것처럼 큰 소리치며 객기를 부렸다.

6. 결 판

정말이지 동굴앞에는 누런색바탕에 검은 물무늬가 짙은 내리뻗친 커다란 호랑이가 척 앉아서 드렁드렁 코를 끌며 자고 있었다.

《히, 저놈의 호랑이는 안장서 자는 놈팽이인가?》

말승냥이가 중얼거렸다.

《예, 저놈이 자는 버릇은 원체 저런가 봅니다.》

어처구니가 소곤소곤 대답했다.

말승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아래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하긴 황소는 앉아서 자구 말은 서서 자지.》

말승냥이는 어처구니에게 눈짓했다. 호랑이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좀 타진해 보라고.

어처구니는 흠칫 몸을 떨며 눈을 홑떴다.

(이럴수가 있나. 큰일은 제가 다 할것처럼 떠들더니 위험한 고비엔 나를?...)

《왜 그렇게 놀라나? 걱정 말라구. 호랑이목에 올라가미 썩우는 위험한 일은 나와 여우가 할테니 자넨 그저 바줄끝을 들고 나무우에 올라 가 있다가 잡아채면서 반대편으로 뛰어 내리면 된다네.》

《아, 그래요. 헌데 내 혼자 몸으로야 어떻게 호랑이를 끌어 올리겠수?》

《왜 혼자겠나. 나와 여우가 제격 같이 할텐데.》

말승냥이의 말에 위안을 느낀 어처구니는 살금살금 호랑이의 궁둥이쪽으로 다가갔다.

어처구니는 호랑이의 꼬리를 살며시 눌러 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쿨쿨 자기만 할뿐.

등뒤에서 여우의 속살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궁둥이, 궁둥이두 좀 눌러 보라구요.》

궁둥이까지 눌러 보았으나 호랑이는 여전히 까딱안했다. 취해서 곤드라진게 분명했다.

그제야 말승냥이와 여우는 안도의 숨을 쉬며 다가들었다.

긴장한 속에서 세 짐승은 거사를 치를 준비를 했다. 말승냥이는 바줄끝을 들더니 어처구니의 몸에 감으려고 했다. 순간 어처구니는 흠칫하며 뒤걸음쳤다. 《내 몸에다 왜 바줄을 감겠어?》

그러자 곁에 섰던 여우가 한발 나서며 나무람했다. 《아니, 바줄을 들고 오르다가 떨어 뜨려 거사를 망치면 어찌겠어요? 승냥이형님은 매사에 실수가 없게 하자고 그러는건데.》

그제서야 어처구니는 몸에 바줄을 감아 매고 나무우로 올라 갔다. 호랑이목에 올라가미를 썩우는 순간 잡아 채려는것이다.

말승냥이와 여우는 땅에 드리운 바줄끝을 들어 동실하게 올라가미를 만든 다음 호랑이의 머리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호랑이는 눈을 꼭 감은채 자고 있어도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다.

임금왕(王)자가 새겨 진 번듯한 이마. 금시라도 찢를듯 한 코수염! 금시라도 눈을 번쩍 뜨면서 파웅!- 울부짖을것만 같은 호랑이의 엄엄한 기상앞에 여우와 말승냥이는 기가 질려 후들후들 다리를 떨었다.

숨을 죽이며 가까스로 호랑이머리말에 다가들던 여우와 말승냥이는 별안간 공중에서 울리는 소란한 소리에 와들와들 놀라며 우를 쳐다보았다.

《버리지 버리지 구구구...》

《구구구 버리지 버리지...》

나무꼭대기에서 산비둘기들이 벽씩 떠들어 댔다. 마치 여우와 말승냥이를 조롱하는듯.

(뭘, 버리지? 저것들이 우릴 놀리는게 아니야? 이놈이 새새끼들 좀 조용하지 못하겠어?)

어처구니는 산비둘기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나무우에 앉은 어처구니만이 아니라 호랑이머리말에 다가선 말승냥이와 여우도 새들을 울려다 보며 주먹질하였다.

그러자 새들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일제히 날아올랐다.

사위가 다시 조용해 지자 말승냥이와 여우는 호랑이머리를 향해 올라가미를 쳐들었다.

아, 그런데 웬 일인지 바줄이 팽팽해 지며 따라올라 오지 않았다.

무심결에 아래를 내려다 보던 여우와 말승냥이는

눈을 흘렸다.

아니 글썽 놀라웁게도 호랑이가 아래로 드리운 바줄을 꼭 짓밟고 있지 않는가?!

자는게 아니었구나!

여우와 말승냥이가 실책을 느끼는 순간, 호랑이는 눈을 번쩍! 떴다.

《엉?》

불이 펄펄 이는 호랑이의 두눈을 본 여우와 말승냥이는 그만 넋을 잃었다.

순간 나무우에서 내려다 보고 있던 어처구니도 눈알을 콧콧이 세우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 아, 어찌문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자는척 하는것두 모르구 속히워서 이런 참변을...)

어처구니는 자기의 잘못으로 여우와 말승냥이가 끔찍 못하고 호랑이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옥죄여 들었다.

그러던 어처구니는 언뜻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호, 호랑이님, 이, 이걸 잡으십시오. 어처구니를 잡아 왔습니다.》

뜻밖에도 여우가 호랑이한테 바줄을 내밀며 나무우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이럴수가 있나?...

《어흥-》

올려다 보는 호랑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어처구니는 흠칫 몸을 떨며 몸에 감겨 진 바줄을 풀려고 했다. 황황히, 하지만 잡되지 않았다.

《아유, 어처구니형님, 이젠 그만 까불어됐으면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구요. 호랑이님앞에 허리 굽혀 빌 생각을 하지 않구, 참 저렇게 답답하다구요.》

여우가 올려다 보며 짹짹거렸다.

《뭐 어째라구? 히야. 여우, 넌 그런 놈이었었구나. 그런 놈이었어.》

여우에게 마구 욕질하고 난 어처구니는 말승냥이한테로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승냥이형님, 이럴수가 있소? 당장 그 배신자 여우부터 물어 메치라구요.》

하지만 말승냥이는 어처구니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아 주지 않았다. 무정하게도 도리어 《이놈아, 냉큼 내려 오진 않쿠 나만 뻘이 쳐다보면 어쩔셈이야?》 하고 짹 소리치더니 바줄을 탁 잡아 쳤다.

그 바람에 어처구니는 미처 어쩔새도 없이 나무우에서 툭 떨어 지고 말았다.

어처구니는 아픔과 끓어 오르는 격분을 참을수가 없어 여우와 말승냥이를 향해 대들었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소? 호랑이를 제끼구 날 대왕자리에 앉히겠다며 그토록 떠들던 네놈들이 어쩌면...》

《허, 이것봐라. 미꾸라지 룡이 될 꿈을 꾸다더니 네 주제에 감히 대왕이 되겠다구. 흥!》

말승냥이가 이죽거리는 소리였다.

불은 불에 키질한다고 여우가 뽀족한 주둥이를

발짝 쳐들며 야죽거렸다.

《아유, 이 어리석은 시라소니야. 네 아무리 우릴 물고 넘어 지며 추레를 부려도 이젠 소용 없어. 나와 이 승냥이님은 이미 호랑이님한테서 분부를 받았었던 말이야. 네놈을 잡아 들이라는. 저 호랑이대왕님, 우리 말했습지요? 올가미를 씌워서라도 시라소니를 잡아 올리겠다고요.》 《?!...》

어처구니는 억이 막혀 입을 딱 벌렸다.

순간 어처구니는 피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언젠가 여우는 말승냥이의 귀에 대고 뭔가 소곤 소곤했다. 그러자 말승냥이는 음흉한 눈으로 힐끔 어처구니를 건네다 보며 《그럼 한번 던져 봐?》 하고 뇌까렸었다.

(그러니 그때 벌써 나를 제물로?!)

어처구니는 이제야 깨달았다. 여우와 말승냥이는 애초부터 짜고 든것이다. 호랑이목에 올가미를 걸다가 여차 실수하는 날엔 이 어처구니를 제물로 던지면서 살아 날 구명수를 열자고.

(내가 눈이 멀었지. 이런 놈들인줄두 모르구...)

어처구니는 그만 리성을 잃고 펄펄 뛰며 울부짖었다.

《아, 하늘이여, 땅이여, 찌개저라! 너두 나두 다 없어지게 산산이 썩 찌개저라!》

잠시후 호랑이의 웅글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허허,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두 있나! 제 친구의 몸에 바줄까지 묶어 놓다니. 그러느라니 승냥이와 여우, 자네들이 정말 수고 많았겠네그려. 하지만 이 시라소니의 공로에야 비길수 없을테지? 제노랍시고 으시대는 임자네들을 이렇게 내앞에까지 고스란히 모셔 오자니 속인들 얼마나 태웠겠나. 어서 그 몸에 감긴 바줄부터 풀어 주라구.》

(뭐, 내가 여우와 승냥이를 모셔 왔다구?)

어처구니는 뻥해 졌다. 그러나 인차 눈치챘다. 호랑이가 수를 쓰고 있다는것을.

그랬건만 여우와 말승냥이는 저희들을 떠보기 위한 호랑이의 갑작수에 걸려 든줄도 모르고 깜짝 놀라며 어처구니를 쏘아 보았다. (그게 사실인가. 네놈이 우릴 배반하고 호랑이가 준 임무를 수행하였다는게?) 하고 따져 묻는 의혹과 분노가 엉킨 눈길이었다.

어처구니는 맞받아 웨치고 싶었다.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배신행위야 내가 아니라 네놈들이 하지 않았느냐. 다만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네놈들을 함부로 믿고 거사를 치르려한것뿐이다. 제 리속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서슴없이 잡아먹는 너절한것들인줄을 모르고.)

하지만 어처구니의 입에서는 아무말도 튀어 나오지 않았다. 맞받아 쏘아 보던 눈길을 피하며 책고개를 돌렸을뿐이었다. 흥, 나만 골탕 먹을텐가, 네놈들도 어디 그 맛을 좀 봐라! 하는 반발심이었다.

《음, 이래도 계속 오그랑수를 쓸테냐?》
여우와 말승냥이를 노려 보는 호랑이의 두눈에선 불이 펄펄 일었다.

《내 그러지 않아도 이럴줄 알고 여기서 네놈들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이 호랑이목에다 올라미를 어떻게 거는지 좀 똑똑히 보려고 말이다.》

그만에야 여우와 말승냥이는 땅에 넘적넘적 엎드리며 빌기 시작했다.

《호, 호랑이님.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제발 목숨만... 대왕님, 제발...》

눈물, 코물 줄줄 흘러며 굽실거리는 말승냥이와 여우를 보자 어처구니는 환멸을 느꼈다. 탕탕 큰소리치며 거사는 자희들이 다 치를것처럼 으시대던 그 기개는 어딜 가고 모두 이렇게 비굴해 졌는가.

(아, 내가 눈이 멀었지. 이런것들을 믿구 호랑이를 제끼려 들다니. 아니 내 주제에 호랑이와 맞서려 한것부터가 잘못이지.)

어처구니는 새삼스럽게 호랑이를 쳐다보았다. 뛰어난 지략과 용맹, 엄엄한 기상! 불수록 감탄과 두려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어처구니는 자기가 호랑이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건 뭔가?) 돌이켜 보니 없었다. 우선 제 자신을 잘 몰랐고 친구라고 나선 여우와 승냥이를 몰랐으며 제끼려고 한 호랑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았는가.

(그러니 난, 난 청맹파니였구나. 두눈을 뻔히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청맹파니!)

어처구니는 호랑이가 눈길을 돌려 자기를 쳐다보고 있음을 느꼈다.

정말이지 호랑이는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마주보며 무섭게 꾸짖고 있었다.

《너 이놈, 이래도 큰소리칠테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내 이미 경고했었지? 그렇게 계속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제 명도 다 못 살고 똬지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구!》

어처구니는 그 눈길을 피하며 황황히 고개를 떨쳐 드렸다.

할 말이 없었다. 자기에겐 차례지는 응당한 조소인것이다.

그만에야 어처구니는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아, 내가 어리석었지. 상대를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다니...)

이 시각 어처구니만이 아니라 여우와 말승냥이도 만회할수 없는 참패앞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만사란 다 때가 있고 선후차가 있는 법이거늘 이 맹수들이 찾은 교훈과 후회는 이미 때 늦은것이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호랑이의 노성이 터져 오를것이다.

《따웅!-》

호랑이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강한 앞발로 곁에 있는 통나무를 후려 쳤다.

그러자 아직껏 우뚝 서 있던 아름드리 사시나무가 몽청! 허리 부러지며 나뒹굴었다.

그걸 본 여우와 말승냥이 그리고 어처구니는 눈깔을 뒤집으며 너부러지고 말았다.

한편 호랑이의 등뒤에서는 누군가가 이 모든것을 다 지켜 보고 있었다. 머리에 뿔창모자를 쓴 점박이 사슴이었다.

《어처구니, 흥!》

사슴은 나자빠진 어처구니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제 주제를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서 분별없이 날뛰더니 꼴 좋게 됐다!》

이윽고 수림속엔 다시 고요한 정적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속에서 쌍쌍이 쫓고 쫓기우는 다람쥐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이 펼쳐 지고 청 고운 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토막소식

인기를 끄는 풍자도서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 부쉬를 풍자조소한 책이 출판되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신은 주정뱅이인가? 하다면 이 점이 최고수뇌자로서의 당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등 책의 내용 전반을 조소와 풍자로 엮었다.

책이 출판될 때 편집원은 저자에게 이 책의 내용 전반을 좀 《부드럽게》하며 최소한 절반가량의 내용을 고쳐 쓸것을 요구하였으나 단호한 거절을 당하였다. 결국 그대로 책이 출판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책이 출판되어 나오자마자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아 수요자가 급격히 늘어 나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도서로 되었다고 한다.

씨름

씨름은 두사람이 마주 잡고 서로 힘을 겨루며 기교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민속놀이이다.

씨름을 옛 기록들에서는 《각회》, 《각저》, 《각력》, 《료교》 등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적부터 씨름을 즐겨 해왔다.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옛 무덤들인 씨름무덤(4세기 말엽)과 장천1호무덤(5세기 중엽)의 벽화들은 우리 나라 씨름의 오랜 역사적연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씨름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민속놀이로서 널리 퍼져 있었으며 5월봄명절과 7월 백중, 8월추석 등 민속명절 때와 생산활동의 여가에 씨름경기가 자주 벌어 지곤 하였다.

씨름판은 씨름군들의 나이와 힘에 따라서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 등으로 구분하였다. 흔히 애기씨름-어린이씨름부터 시작하는것이 관례로되어 있었다.

씨름판은 두어칸(4m 정도)직경으로 둥그렇게 모래를 퍼서 만들었다.

씨름군의 경기차림은 아래에 짧은 속바지를 입고 옷동은 맨몸으로 하고 넓적다리에 살바를 매는것이였다. 살바로는 두세발되는 배천을 비끄러매서 썼다.

살바를 어느 쪽 다리에 매는가에 따라 왼씨름과 오른씨름으로 구분하였는데 흔히 왼씨름을 하였다.

농촌에서는 특별한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때나 흔히 씨름을 하였는데 장난씨름에서는 살바를 매지 않고 하는 《민둥씨름》(넉넉씨름이라고도 한다.)을 많이 하였으며 선채로하는 《선씨름》도 하였다.

씨름수에는 크게 세가지-손수, 다리수, 몸통수가 있다.

손수는 주로 손과 팔을 써서 상대방의 무릎, 잔등,

목뒤, 다리 등을 치거나 밀고 당기며 젖히여 넘어뜨리는 수이다. 손수에는 무릎치기, 목죄기, 팔걸이, 다리당기기 등이 있다.

다리수는 다리와 발을 리용하여 상대방을 걸어 당기거나 걸어서 뒤로 밀어 옆으로 돌면서 후려 넘어뜨리는 수이다. 다리수에는 안걸이, 안걸이뒤집기, 빗장걸이, 호미걸이, 덧걸이, 무릎걸이, 안발치기, 원발목치기 등이 있다.

몸통수는 주로 강한 허리힘과 팔힘을 리용하여 상대를 궁둥이, 배, 가슴을 높이 들어 올려 몸의 균형을 잃게 한다음 좌우로 돌리고 젖히면서 팔과 다리로써 손 쉽게 넘어뜨리는 재간이다. 이것은 씨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교로서 조선씨름의 특기의 하나인 배지기가 여기에 속한다. 몸통수에는 궁둥배지기, 돌배지기, 돌림배지기, 동이배지기, 뒤집기, 점치기 등이 있다.

우의 수들을 두가지이상 결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방어하고 반공격하는 수를 쓰는것을 결합수라고 한다.

5월봄명절과 8월추석때 씨름경기에서는 상으로 황소를 걸었는데 우승하여 마감을 장식한 사람은 상으로 받은 황소를 몰고 개신장군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 가곤 했다.

씨름은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중국, 몽골, 일본 등 이웃나라에도 있었다. 이 나라들의 씨름은 우리 나라의 씨름과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씨름은 특별한 기재도 없이 때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미 있게 놀수 있는것으로서 우리 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사랑하며 즐겨 온 민족경기이다. 씨름은 운동에서 몸이 상할 위험성이 적고 인내력과 투지, 힘을 키우며 신체단련과 체력향상에 유익한 민속놀이이다.